

정책보고서 2008-17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육비 부담 정도에 관한 연구

신윤정

성태운

최은영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출 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육비 부담 정도에 관한 연구」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머 리 말

과거 높은 출산율로 인하여 적극적인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여 왔던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은 최근 들어 심화된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여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성을 선회하였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날로 치열해지는 입시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교육비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크다고 본다. 교육비 지출과 더불어 여성의 노동 시장 참가의 증가에 따른 보육 서비스 비용도 출산율 기피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는 우수한 노동력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 경제 성장에 커다란 밑받침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1960~70년대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한 부모들의 희생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나치게 과열되어 입시 위주의 학벌주의를 양산하게 되었으며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의 본 기능은 점차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도한 교육열은 부모들로 하여금 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갖게 하여 자녀 출산율 기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오늘날 자녀에 대해 보육·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계는 과도한 보육·교육비 지출로 인하여 큰 부담을 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절감시켜 줄 만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 부재는 부모들의 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출산 지연 혹은 출산 포기 등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보육·교육비의 부담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육·교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20년 동안의 보육·교육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지출이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검토한다. 또한 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의 보육·교육비 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적정 수준의 보육·교육비를 얼마큼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육비 절감이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는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보육·교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가적인 큰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연구진은 본 연구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주신 보건복지가족부 손주영 사무관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원내 감독자로서 귀중한 조언을 전해 주신 이삼식 박사와 박세경 박사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성실하게 보조해 준 김필숙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08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목 차

요 약	13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30
제1절 보육·교육비 지출과 출산행태에 관한 이론	30
제2절 선행 연구 결과	39
제3절 보육·교육비의 개념적 정의	45
제3장 보육·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거시적 분석	62
제1절 연도별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62
제2절 출산율의 거시적인 결정 요인	75
제3절 실증 분석 결과	78
제4장 보육·교육비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미시적 분석	91
제1절 조사 개요	91
제2절 기술 분석 결과	96
제3절 심층 분석 결과	131

제5장 결론	156
제1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156
제2절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	158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61
참고문헌	163
부 록	171

표 목차

〈표 2- 1〉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비 분류 체계	45
〈표 2- 2〉 김영철 등(1997)의 교육비 분류 제안	49
〈표 2- 3〉 선행연구에서의 보육·교육비 정의	53
〈표 2- 4〉 사회통계조사에서의 보육·교육비 정의	57
〈표 2- 5〉 한국노동패널에서의 보육·교육비 정의	59
〈표 3- 1〉 0~5세 자녀 보유 가구의 월 평균 보육료 지출	63
〈표 3- 2〉 0~5세 자녀 보유 가구의 보육료 지출 비율	63
〈표 3- 3〉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 Panel A. 월 평균 교육비 지출 금액 ...	66
〈표 3- 4〉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 Panel B. 소득 대비 교육비 비율	66
〈표 3- 5〉 월 평균 사교육비 지역별 특성 분포	72
〈표 3- 6〉 월 평균 사교육비 아버지 교육 수준별 특성 분포	73
〈표 3- 7〉 월 평균 사교육비 소득별 특성 분포	73
〈표 3- 8〉 우리나라의 성별 취업률과 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	76
〈표 3- 9〉 주요 변수들의 요약 통계(시계열 분석)	79
〈표 3-10〉 주요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시계열 분석)	80
〈표 3-11〉 교육비 변화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81
〈표 3-12〉 연도별 자녀 1인당 명목 교육비 지출	81
〈표 3-13〉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Panel A. 합계출산율	83
〈표 3-14〉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Panel B. 조출산율	83
〈표 3-15〉 소득 수준에 따른 납입금 변화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Panel A. 합계출산율	84
〈표 3-16〉 소득 수준에 따른 납입금 변화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Panel B. 조출산율	85

〈표 3-17〉 소득 수준에 따른 보충교육비 변화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Panel A. 합계출산율	86
〈표 3-18〉 소득 수준에 따른 보충교육비 변화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Panel B. 조출산율	87
〈표 3-19〉 주요 보육·교육비 변수들에 대한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 결과 ..	90
〈표 4-1〉 미시 분석을 위한 전화 조사 대상 샘플수	92
〈표 4-2〉 전화 조사에 사용한 보육·교육비 전국 평균 비용	94
〈표 4-3〉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비용 질문 대상자	95
〈표 4-4〉 미시분석을 위한 주요 측정 변수	96
〈표 4-5〉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평균	98
〈표 4-6〉 양육 자녀 수 별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99
〈표 4-7〉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 정도	99
〈표 4-8〉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 정도(소득계층별)	100
〈표 4-9〉 보육·교육비 적정비용, 지출비용과의 차이, 희망 감소율	101
〈표 4-10〉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 정도	103
〈표 4-11〉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 정도(소득계층별)	104
〈표 4-12〉 향후 보육·교육비 적정비용, 전국 평균 비용과의 차이, 희망 감소율	105
〈표 4-13〉 자녀출산 의향(전체 여성)	107
〈표 4-14〉 현재 기대자녀 수(전체 여성)	108
〈표 4-15〉 자녀출산 의향(양육자녀 1명인 경우)	109
〈표 4-16〉 자녀출산 의향(양육자녀 2명인 경우)	110
〈표 4-17〉 현재 기대자녀 수(자녀양육 1명인 경우)	111
〈표 4-18〉 현재 기대자녀 수(자녀양육 2명인 경우)	111
〈표 4-19〉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전체 여성)	112
〈표 4-20〉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양육자녀 1명)	113
〈표 4-21〉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양육자녀 2명)	113
〈표 4-22〉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에 따른 출산 의향(전체 여성)	114

〈표 4-23〉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에 따른 출산 의향(양육자녀 1명)	115
〈표 4-24〉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에 따른 출산 의향(양육자녀 2명)	116
〈표 4-25〉 자녀 출산 의향별 보육·교육비 지출 평균	117
〈표 4-26〉 보육·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의향(전체여성)	118
〈표 4-27〉 보육·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의향(출산의향 없는 여성)	118
〈표 4-28〉 보육·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의향(전체여성, 양육자녀1명)	120
〈표 4-29〉 보육·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출산의향 없는 여성, 양육자녀 1명)	121
〈표 4-30〉 보육·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의향(전체여성, 양육자녀2명)	122
〈표 4-31〉 보육·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의향(출산의향 없는 여성, 양육자녀 2명)	122
〈표 4-32〉 보육·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전체 여성)	124
〈표 4-33〉 보육·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 (출산의향 없는 여성)	124
〈표 4-34〉 보육·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 (전체여성, 양육 자녀 1명)	126
〈표 4-35〉 보육·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 (출산의향 없는 여성, 양육자녀 1명)	127
〈표 4-36〉 보육·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 (전체 여성, 양육자녀 2명)	128
〈표 4-37〉 보육·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 (출산의향 없는 여성, 양육자녀 2명)	128
〈표 4-38〉 로짓 모형에 사용한 설명 변수	134
〈표 4-39〉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전체 여성	137
〈표 4-40〉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양육 자녀 수	138
〈표 4-41〉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보육비, 유치원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139

〈표 4-42〉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전체 여성) …… 141	141
〈표 4-43〉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자녀 출산 의향 없는 여성) …… 142	142
〈표 4-44〉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전체 여성) …… 145	145
〈표 4-45〉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자녀 출산 의향 없는 여성) …… 147	147
〈표 4-46〉 보육비 절감에 따른 자녀 출산 의향 변화 시뮬레이션 …… 150	150
〈표 4-47〉 초등학교 교육비 절감에 따른 자녀 출산 의향 변화 시뮬레이션 …… 152	152
〈표 4-48〉 자녀 가치관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전체 가치관 변수) …… 153	153
〈표 4-49〉 자녀 가치관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사회적체면의식, 학벌의식 변수) …… 154	154
〈표 4-50〉 학벌체면의식과 보육·교육비간의 상관관계 …… 155	155

그림 목차

〔그림 2-1〕 자녀수와 자녀질의 결정 모형 …… 38	38
〔그림 3-1〕 소득 계층별 0~5세 자녀 보유 가구의 보육료 소비 행태 변화: Pane A. 월평균 보육료 지출 금액 …… 64	64
〔그림 3-2〕 소득 계층별 0~5세 자녀 보유 가구의 보육료 소비 행태 변화: Pane B. 보육료 지출 가구의 비중 …… 65	65
〔그림 3-3〕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비 지출 행태 비교: Panel A 월 평균 교육비 지출 금액 …… 68	68
〔그림 3-4〕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비 지출 행태 비교: Panel B 소득 대비 교육비 비율 …… 68	68
〔그림 3-5〕 자녀 1인당 교육비 지출 중에서 납입금과 보충교육비의 비중 …… 69	69
〔그림 3-6〕 최종 소비 지출과 보충교육비 지출의 실질 증감률 …… 70	70
〔그림 3-7〕 보육·교육비 및 대학 입시제도 관련 주요 정책 변화 …… 71	71
〔그림 3-8〕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 …… 76	76
〔그림 3-9〕 우리나라의 조이혼율 …… 78	78

요 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과거 1960년대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에 인구 대체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 저출산 현상으로 고착화되기에 이르렀음. 2007년에 출산율은 어느 정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선진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 ☐ 저출산 현상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 중 특히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지출하는 보육·교육비가 경제적인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과도한 보육·교육비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측면이 강하며 이에 저출산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 각 가정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정책이 요원하다 하겠음
- ☐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부담 수준이 자녀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정부의 보육 및 교육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 본 연구 결과는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육·교육 정책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육·교육 정책의 개선을 유도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1장에서는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을 기술함
- 제2장은 이론적인 배경으로 보육·교육비 지출과 출산행태에 대한 이론과 선행 연구결과, 그리고 보육·교육비에 대한 개념을 검토함
- 제3장에서는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1983~2006년)를 활용하여 거시적인 분석을 통하여 보육·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과거 20년 동안의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
 - 또한 시계열 분석 모형을 통하여 교육비 지출이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득 계층별 차이가 어떠한가에 대해 모색함
- 제4장에서는 전화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지출에 대한 부담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보육·교육비 수준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출산 의향을 파악함
 - 로짓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보육·교육비 지출과 출산 의향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이 출산 의향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파악함
- 제5장은 결론으로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며 이에 근거하여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부의 보육·교육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함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교육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행위로 보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인적자본에 대한 생산성을 높

이기 위한 것으로 봄. 또한 교육을 미래의 예상되는 소득의 흐름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투자행위로 간주함

- 선별가설이론은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를 교육에 의해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들이 교육을 노동자들이 가진 재능을 식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봄
- 소비자 수요 이론을 적용한 경제학적 출산 행태 모형에서는 부모를 자녀의 가격과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소비자로 보고 있음
- 자녀 수와 자녀 질 모형에서는 부모의 효용수준을 자녀의 수뿐만 아니라 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으며 총 소득범위 내에서 소비, 자녀수, 자녀의 질에 대한 수준을 결정한다고 함
- 2004~2005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교육비 지출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77.2%로 나타났으며 교육비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학원비와 과외비가 지적되었음. 한편, 만 10세 이하 자녀의 보육·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구는 75.2% 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노동패널 제8차년도(2005년)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생 이하 자녀 당 평균 사교육비용은 월 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7.9%에 달하는 가구가 사교육비를 부담 된다고 응답하였음
- 최근 들어 자녀가 제공하는 물리적·심리적 혜택에 변화가 있어와 과거에 비해 자녀의 경제적 기여도는 낮아진 반면 자녀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늘어남. 게다가 유교적 규범마저 변화하고 있어 부모의 노후에 대한 자녀의 의무나 물질적 지원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오늘날 자녀의 의미는 가계 생산 활동의 계승이라는 투자재의 개념이 아니라 애정의 대상이라는 소비재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음. 여성 취업률의 상승 등이 영구 소비재로서의 아동 가치의 상승을 가져와 가족은 많은 수의 자녀 보다는 적은 수의 자녀를 선택하고 있고 또한 한 자녀에 대한 질을 높이려는 행동을 취하게 되어 이것이 저출산으로 연결되고 있음
- 손승영(2005)은 심층면접을 통하여 저출산의 원인으로 가장 자주 언급된 요인은

경제적인 이유이며 특히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음

- 차경욱(2004)은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비,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라고 지적하지만,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만 절감되면 많은 가정에서 자녀 출산에 적극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
-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비를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구분하고 직접교육비에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포함되며, 공교육비는 다시 공부담 공교육비와 사부담 공교육비로 구분된다고 보았음.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일컫는 사교육비는 사부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가 교육비 지출 행위자를 공공 혹은 개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공·사교육비를 구분하고 있는데 반해, OECD에서는 교육비 부담 주체를 정부 혹은 민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공·사교육비를 구분하고 있음
- 교육학계 이외의 다른 연구 분야에서는 특히 사교육비의 범위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이고 있음. 초기의 연구에서는 사교육비를 개인 차원에서 지출하는 교육비로 광범위하게 정의 내리는 경향을 보였음
- 최근의 실태 조사에서는 사교육비의 범위를 구체화함에 있어 일반사교육비에 포함하는 항목들은 제외하고 통상 과외비로 이해되는 항목들을 사교육비로 정의하는 경향을 보임
- 통계청 가계조사(2006년)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정의를 교육과정에 필요한 상품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보고 납입금,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구류로 분류하고 있음. 또한 보육료를 영아 및 아동(유아와 초등학생)의 보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교육비와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음
- 통계청 사회 통계 조사에서는 교육비 지출액을 학교 납입금, 보충 교육비, 하숙·자취·기숙사비,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음. 교육비 대상은 취학전 아동, 재수생, 휴학생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로 하고 있음. 한편, 보육(교육)료는 만 10세 이하 자녀를 보육(교육) 기관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고 있음
-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사교육·보육비용을 “사교육·보육기관 이용을 위해 지출한

수업료(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의 부대비용 포함)”로 보고 있으며, 공교육비용은 학교 등록금, 납입금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Ⅲ. 보육·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거시적 분석

- 본 장에서는 보육·교육비의 증대가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육·교육비에 대한 거시적인 변수를 구축하고 이를 다른 거시경제 변수들과 연관하여 설명하였음
- 1995년부터 2006년까지 0~5세 자녀를 보유한 가구의 월평균 보육료 지출은 대략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보육료를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은 1995년 9.2%에서 2006년 45.5%로 상승함.
- 월 평균 교육비 지출은 집단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의 격차가 커질수록 공교육비보다는 사교육비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자녀 1인당 교육비 지출도 비슷하게 관찰됨
-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의 비율은 더 낮아짐. 교육비 지출 금액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비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저소득 계층에서 교육비에 대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1982년 이후 전체 교육비 지출 중에서 납입금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보충교육비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특히, 1980년대 교육비 지출에서 10~30%내외를 차지하던 보충교육비는 2000년대 들어서 거의 60%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과 공교육비 지출 규모 및 비율은 소득 계층에 따라 연도별로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최종 소비 지출과 보충교육비 지출의 실질 증감률 분석 결과, 사교육비의 꾸준한 증가 추세는 1982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2번 정도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연간 10%가 훌쩍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 오던 사교육비는 1993~1994년에 상승폭이

- 매우 낮아졌는데, 그것은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이어져오던 대학 입학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으로 입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 1998년과 2000년에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또 다시 한번 하락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경제 위기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됨
 - 1999년 사교육비 지출은 다시 원래 수준을 회복하게 되었으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제 불황과 소득의 양극화에 따라 2000년에 다소 감소하였음. 그러나 2001년부터는 경기와 관련 없이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각종 보육·교육비 관련 정책 변화는 실제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 1989년 사설 학원 설립 및 운영 허용, 1998년 과외 전격 허용, 2000년 과외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 2001년 학원 설립 및 과외 교습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 상에서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음
- 1983~2006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실증적인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교육비 변화율 변수는 합계출산율과 조출산율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음. 교육비 전체를 독립변수로 택한 경우와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나누어 분석한 경우, 모두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력을 발견할 수 없었음
- 한편, 여성 초혼 연령, 이혼율, 여성 취업률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경제 성장률과 여성 임금 상승률과 같은 경제적인 변수는 출산율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 규모의 차이가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자료에 포함된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을 5등분하여 그에 따라 교육비를 따로 산정하였음
- 소득 수준에 따라 분류된 납입금 변화율은 어떤 소득 집단에 대해서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사교육비로서의 보충교육비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 대해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속하는 가구들이 출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사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IV. 보육·교육비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미시적 분석

- ☐ 본 연구에서는 미시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25~39세 기혼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하였음
- ☐ 조사 결과, 가구당 보육·교육비와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지출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양육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액이 많아 적은 수의 자녀 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
- ☐ 보육비에 대해서는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치원비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높은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음.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 초등학교 교육비 약 75%, 중학교 교육비 약 80%, 고등학교 교육비 약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함
- ☐ 보육·교육비 부담정도는 소득 계층별로 별다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상대적으로 낮은 보육·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고소득층 모두 지출에 대해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은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서 평균적으로 40~50%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서의 희망 감소율은 소득계층간에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음
- ☐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 대해 보육비, 유치원비, 초등학교 교육비, 중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는 약 50% 정도의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함. 고등학교 교육비와 대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62%와 75%의 사람들이 각각 부담스럽다고 응답함.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 대한 부담정도는 소득

수준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임

- 향후 지출할 보육·교육비에 대해 걱정하다고 응답한 액수는 전국 평균비용에서 약 30~35% 절감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계층일수록 전국 평균비용으로 부터의 희망 감소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약 2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약 7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없거나 잘 모르 겠다고 응답하였음
 - 이러한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은 소득 계층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수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없는 여성 중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녀 출산 계 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자녀 1명 있는 경우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약 43%인 반 면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9.2%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기대 자녀 수는 소득 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기대 자녀 수는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수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보육·교육비를 전국 평균 비용보다 높게 지출하는 그룹과 낮게 지출하는 그룹 사이에서 출산 의향은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보육·교육비 부담 수준별로도 출산의향은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이 절감하면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약 30~40%,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약 20%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임.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출산 의향을 보임
 - 이들이 희망하는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 수준은 현재 지출에서 약 50% 절감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자녀를 1명만 양육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자녀 2명을 가

지고 있는 여성은 자녀 1명을 가지고 있는 여성보다 적정 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이 약 절반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이 희망하는 비용 감소율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비슷하게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지출할 자녀 보육·교육비가 적정비용으로 절감하면 자녀를 출산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약 60%,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약 30~50% 수준을 보임.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출산 의향을 보임

- 이들이 희망하는 평균 보육·교육비에서의 절감 수준은 약 30~40%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희망 절감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양상을 보임

-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향후 보육·교육비 절감에 따른 자녀 출산 의향은 자녀 1명 있는 여성과 비교하여 약 절반정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이 희망하는 평균 보육·교육비에서의 절감 수준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비슷하게 약 30~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보육·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자녀 미출산 이유는 “자녀 교육 비용이 높아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적정 비용으로 보육·교육비가 절감해도 자녀를 추가적으로 출산하는 데는 여전히 보육·교육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지적됨

□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체면의식과 학벌의식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보다 자녀 1인당 지출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적어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사람은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선호 사상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요 기술 분석 결과 요약】

◎ 조사 대상: 전국 거주 25~39세 기혼 여성 1,500명

◎ 조사 기간: 2008년 3월 17일~28일

1.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 가구당 평균 보육·교육비: 보육비 350,000원, 유치원비 360,000원, 초등학교 교육비 430,000원, 중학교 교육비 500,000원, 고등학교 교육비 550,000원
- 자녀 1인당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보육비 310,000원, 유치원비 320,000원, 초등학교 교육비 320,000원, 중학교 교육비 420,000원, 고등학교 교육비 500,000원

2.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사람

- 보육비 약 70%, 유치원비 약 80%, 초등학교 교육비 약 75%, 중학교 교육비 약 80%, 고등학교 교육비 약 90%
- ※ 소득 계층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3.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적정 수준

- 보육비 160,000원, 유치원비 158,000원, 초등학교 교육비 177,000원, 중학교 교육비 221,000원, 고등학교 교육비 264,000원
- ※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서 평균적으로 약 40~50% 절감 희망
(감소 비율은 소득 계층 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4.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사람

- 보육비, 유치원비,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비 약 50%, 고등학교 교육비 약 60%, 대학교 교육비 약 75%
- ※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음

5. 향후 지출할 보육·교육비 적정 수준

- 보육비 114,000원, 유치원비 112,000원, 초등학교 교육비 140,000원, 중학교 교육비 177,000원, 고등학교 교육비 233,000원, 대학교 교육비 402,000원
- ※ 전국 평균 비용에서 평균적으로 약 30~35% 절감 희망

6. 보육·교육비가 적정수준으로 절감할 때 자녀 출산 의향

- 전체 여성: 보육비 지출 여성 44%, 유치원비 지출 여성 33%,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26%,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20%,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24%

※ 현재 지출 수준에서 약 50%의 보육·교육비 절감을 희망함

-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 보육비 지출 여성 28%, 유치원비 지출 여성 24%,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20%,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18%,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23%
- 자녀 1명 양육 여성: 보육비 지출 여성 74%, 유치원비 지출 여성 62%,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40%
- 자녀 2명 양육 여성: 보육비 지출 여성 33%, 유치원비 지출 여성 30%,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27%,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24%,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30%

7. 향후 지출할 보육·교육비가 적정수준으로 절감할 때 자녀 출산 의향

- 전체 여성: 보육비 지출 여성 57%, 유치원비 지출 여성 57%,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51%,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37%,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29%,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24%
- ※ 보육·교육비 전국 평균 비용에서 평균적으로 약 30~40% 절감을 희망함
-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 보육비 지출 여성 31%, 유치원비 지출 여성 31%,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31%,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27%,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23%,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22%
- 자녀 1명 양육 여성: 보육비 지출 여성 73%, 유치원비 지출 여성 73%,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73%,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63%,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41%,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24%
- 자녀 2명 양육 여성: 보육비 지출 여성 37%, 유치원비 지출 여성 37%,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37%,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31%,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30%,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28%

- ☐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은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양육 자녀수와 어머니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인 변수들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고등학교 교육비 절감은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됨.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이러한 영향력은 더 큰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육·교육비 절감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의향을 갖게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 특히 이러한 보육·교육비 절감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유효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 지출할 보육·교육비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여성에 대해서는 보육비와 유치원비의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음. 하지만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향후에 지출할 비용의 절감은 전국 평균 비용에서의 절감으로서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의 절감이 아닌 향후에 지출할 보육·교육비의 절감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의향을 바꿀 만큼 큰 효과를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
- 보육료 지출 절감이 여성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우 현재 지출비용이 20%, 50%, 80%, 100% 절감될 경우 각각 약 5%, 12%, 20%, 25%가 자녀 출산 의향을 갖을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보육료 절감의 효과는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지출비용이 20%, 50%, 80%, 100% 절감될 경우 각각 약 9%, 22%, 35%, 45%가 출산할 것으로 의향이 변경되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교육비 절감이 여성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본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우 현재 지출비용이 20%, 50%, 80%, 100% 절감될 경우 각각 약 5%, 13%, 21%, 27%가 자녀 출산 의향을 가질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초등학교 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게

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지출비용이 20%, 50%, 80%, 100% 절감될 경우 각각 약 6%, 15%, 24%, 30%가 출산할 것으로 의향이 변경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체면의식과 학벌의식 네가지 변수를 사용하여 요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학벌체면의식 요인 추정값과 교육비 지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벌의식과 체면의식이 자녀에 대한 교육에 많은 지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

V. 결론

- 본 연구는 보육·교육비 지출이 절감될 경우 여성들의 자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
 - 특히 이러한 보육·교육비 지출의 절감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더욱 유효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보육·교육비 절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육·교육비 절감이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보육·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따라서 현재 부모들이 느끼고 있는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수준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출산 의향에 유효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보육료 절감의 효과는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 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 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계층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초등학교 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 바, 출산력 회복을 위한 차원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 정책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보육·교육비 절감은 자녀 연령이 어리거나 혹은 여성의 연령이 낮은 계층에서 더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나 가임기 초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출산 의향을 높이는데 초등학교 교육비 절감보다 보육료 절감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정부의 예산 제약성을 고려해 볼 때 보육료 지원이 더 비용 효과적인 정책인 것으로 판단됨
- 출산을 회복을 위한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은 우선 현재 저소득계층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을 보다 많은 계층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점차적으로 보육은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국가가 보장해 주는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정부의 보육료 지원 수준은 자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출산율 회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육료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산층 이상 가구의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을 지양하고 보다 보편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초등학교 교육비 지원 정책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서 특별히 사교육에 대한 지출 없이도 자녀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각 학교마다 실시하고 있는 특기 적성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것이며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학교 교육 이상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교육비에 대해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역시 공교육 기능의 정상화이며 공교육 기능이 정상화될 때 교육비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은 줄어들어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 1960년대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에 인구대체수준인 2.1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1990년대 중반까지 1.5~1.7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기에 이르렀다. 1997년 외환위기를 직면하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며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의 최저 수준인 1.08을 기록하게 되었다. 2007년에 출산율은 1.26으로 상승하여 어느 정도 하락추세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선진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와 연결되어 노동력의 양적 그리고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의 조세 및 사회보장비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였다.

이제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은 인구학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원인에 의해 유발된다고 지적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 중 특히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지출하는 보육·교육비가 경제적인 이유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장혜경 외 2004). 실로 2004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77.2%가 교육비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대다수가 교육비로 인하여 부담을 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괄목한 만한 경제 발전은 높은 자질의 우수한 노동력

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바가 크며 이러한 이면에는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한 부모들의 교육열이 큰 몫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공교육의 기능은 저하되고 사교육에 높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육 인프라의 양적 그리고 질적인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자녀 보육비에 대한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과도한 보육·교육비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측면이 강하며 이에 저출산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각 가정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정책이 요원하다 하겠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부담 수준이 자녀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정부의 보육 및 교육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거시적인 분석을 통하여 과거 20년 동안의 보육·교육비 증가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보육·교육비의 증가가 출산율의 변화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검토해 본다. 보다 미시적인 분석을 통하여 개별가구가 느끼고 있는 보육·교육비 지출의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과 출산 의향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보육·교육비 지출이 절감될 때 자녀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보육·교육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보육·교육 정책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육·교육 정책의 개선을 유도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장에서는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을 기술한다.

제2장은 이론적인 배경으로 보육·교육비 지출과 출산행태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선행 연구결과, 그리고 보육·교육비에 대한 개념을 검토한다. 경제학적 이론으로 인적자본이론, 선별가설, 소비자 수요이론을 적용한 출산 행태 모형, 자녀의 양과 질 모형을 검토한다.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보육·교육비 지출과 저출산 현상과의 관계, 자녀 보육·교육 투자 행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고찰한다. 보육·교육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육·교육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내리고 있는가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거시적인 분석을 통하여 보육·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과거 20년 동안의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시계열 분석 모형을 통하여 교육비 지출이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득 계층별 차이가 어떠한가에 대해 모색한다.

제4장에서는 전화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지출에 대한 부담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보육·교육비 수준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출산 의향을 파악한다. 로짓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보육·교육비 지출과 출산 의향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이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파악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며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부의 보육·교육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제1절 보육·교육비 지출과 출산 행태에 관한 이론

1.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기계나 생산 설비 등 물질 자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이 지닌 능력 및 지식, 기술, 경험, 건강, 태도 등을 인적자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간의 지식과 기술 등은 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비형식 혹은 형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형성될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의 훈련, 경험 및 노동 유동을 통하여 개발된다는 것이 인적자본이론의 중심 개념이다(Mincer, 1979; 박미희·여정성, 2000에서 재인용)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교육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행위로 보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인적자본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되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서 받는 높은 소득은 인적자본의 생산성에 대한 당연한 댓가로 인식된다(Mincer, 1958; Schultz, 1961).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개인의 임금, 미래 소득, 사회적 지위의 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계는 물질 자원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적 자원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다.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교육은 미래의 예상되는 소득의 흐름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투자행위로 간주된다. 이때 교육 투자의 수익률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개인의 임금, 미래 소득의 향상, 사회지위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Becker(1994)는 가계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교육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육의 기회 비용과 졸업 후의 기대 수익률이며 교육에서 오는 추가적인 기대 수익률과 추가적인 기회비용이 같아질 때 까지 자녀 교육에 투자하게 된

다고 하였다.

인적자본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에 경제학자인 Marshall(1956)이 인적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로, Schultz에 의해 본격화 되었다. Schultz(1961)는 유용한 기술이나 지식은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것으로서 자본의 한 형태이며 물질 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의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하였다. Mincer와 Polachek(1975)은 개개인의 인적 자질은 투자로 개발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Mehta(1976)는 창조성, 도덕적 가치, 관심 또는 흥미 등을, DiMaggio(1982)는 음악, 미술, 공예, 재봉 등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을 인적자본에 포함시켰다.

Becker(1976)는 개개인이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 할 수 있는 특성을 개발하는 행동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투자로는 학교 교육이 일반적이며 학교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장래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결국에는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학교 교육은 처음부터 댓가를 지불해 주지는 않지만 장래에 지속적인 대가를 부여하는 특성이 있어서 경제적, 물리적 투자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Mincer(1962)와 Becker(1981)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노동자의 차이는 노동자가 획득한 인적자본의 양에 따라 나타나는 노동의 질적 차이에서 기인하며 그에 따라 노동의 대가인 소득이나 사회적 성취가 좌우된다는 것이다(문숙재 외, 1996에서 재인용).

Becker와 Toms(1986)가 개발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적자본투자에 관한 의사결정 모형에 따르면 인적자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녀로부터 기대되는 인적자본수익률(자녀의 능력수준), 예산제약으로 작용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적 여력, 그리고 자녀의 인적자본축적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로 요약된다. 자녀수(quantity)가 감소하더라도 자녀의 질(quality)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커지면서 인적자본투자가 확대됨을 경제모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Bryant(1990)는 인적자본의 축적에는 시간적·재정적 투자가 요구되며 학교 교육은 처음부터 댓가를 지불해 주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안정된 직업 또는 소득을 보장해

준다고 하였다. 정규 교육, 직장에서의 경험 획득, 건강관리 등이 주목할 만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활동이며, 합리적 사고를 하는 개인은 기대되는 수익률과 비용이 동일해 질 때 까지만 학교 교육에 투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교육은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주요 수단으로서 노동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게 되고 교육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습득하게 된 노동자들은 그 대가로서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소득을 받게 된다고 봄으로써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가 사회적 정당성을 지닌 것이라고 간주한다(정영숙, 1996a). 인적자본이론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미래의 잠재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인적자본이론은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으며, 교육이 인적자본을 형성하는데 부분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교육이 개인간의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적자본론의 대안적인 이론으로서 선별가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2. 선별가설(Screening Hypothesis)

선별이란 어떤 요인 또는 물건의 질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질적인 측면에 따라 개인 혹은 제품을 분류하는 도구를 선별도구라고 한다(Stiglitz, 1975). 선별가설은 인적자본에 대한 반론으로 대두되었으며 인적자본이론의 교육·생산성·소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선별가설에 따르면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교육에 의해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들이 교육을 노동자들이 가진 재능을 식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Layard and Psacharopoulos, 1974). 즉 선별가설에서는 대학이 단순히 인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곳이 아니라 대학 교육이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는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 혹은 분류과정(sorting process)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Lang and David, 1986; Liu and Wong, 1982; Riley, 1979; Stiglitz, 1975; Weiss, 1995; Wolpin, 1977).

Arrow(1973)은 선별가설을 주도하였는데 개인의 생산 능력이 완전하게 교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교육 이외에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고용주에게 있어서 교육은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Layard and Psacharopoulos, 1974). 즉, 자신의 능력과 생산성을 잘 알고 있는 개인과는 달리 고용주는 그것을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통계적 정보에 기초하여 어떤 지표나 신호를 가진 사람이 대개 어느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조건부 기대치를 갖게 되며 이때 주로 학력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이정우, 1995). Stiglitz (1975)는 어떤 개인이 보다 생산적인 특성을 구비한 것으로 분류되면 그 분류결과 자체로 상대적인 소득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선별에 동원되는 정보가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선별 가설은 교육이 선별 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학력간 소득격차의 상당 부분은 교육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의 생산성 보다 과대 평가되고, 사람들은 선별가설의 관점에서 보다 많은 교육을 받고 명문대학에 가는 것이 채용, 결혼, 지위 상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므로 교육에 대한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3. 소비자 수요 이론을 적용한 출산 행태 모형

출산 행태를 설명하는 경제학적 모형은 소비자 수요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다. 소비자 수요 이론을 적용한 경제학적 출산 행태 모형에서는 부모를 자녀의 가격과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소비자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모형에서 부모들의 자녀 출생 선택이 가능한 시기는 부모의 전 생애주기라고 가정하며, 부모들의 한 세대 생애주기 만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정적인 모형(static model)으로 간주한다. 동 모형에서 부모가 직면하고 있는 제약 조건은 부모의 생애 주기 동안 변하지 않으며,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서 이러한 예산 제약 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애 전반에 걸쳐 몇 명의 아이를 낳을 것인지 역시 알 수 없다고 가정한다. 정적인 모형 하에서의 이러한 가정들은 출산 행태를 역동적 모형(dynamic model)으로 고려할 때는 완화된다. 예산 제약을 제외하고 부모가 자녀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자녀의 수에 대한 수요 함수는 다음과 같은 예산제약하에서의 효용 극대화 과정을 거쳐 도출된다.

$$U = U(n, s) \quad \dots\dots\dots (1)$$

$$I = \pi_s s + P_n n \quad \dots\dots\dots (2)$$

부모의 효용 함수 (1)은 자녀의 수(n)와 그 밖의 다른 소비 (s)의 함수이다. U는 효용함수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예산제약식 (2)에서 I는 가계소득, π_s 는 단위당 자녀의 가격, P_n 는 모든 다른 소비품목(composit commodity)에 대한 단위당 가격이다. 부모는 (2)의 예산제약 하에서 자신의 효용 U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자녀 수 n과 다른 소비 s의 양을 결정한다. 이러한 예산 제약 하에서의 효용 극대화 과정을 거쳐 자녀 수에 대한 소비 함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n = N(P_n, I) \quad \dots\dots\dots (3)$$

자녀의 수에 대한 소비 함수는 자녀의 가격과 가계 소득의 함수로 나타난다. 자녀의 가격 변화가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소비자 이론에서의 가격 효과와 대체 효과와 유사하며 가계 소득이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도 소득 효과와 유사하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자녀 수에 대한 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 변수를 가진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자녀의 가격 변화가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계 소득의 변화

가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모형하에서 자녀 수의 수요에 미치는 자녀의 가격 변화는 자녀 양육비의 변화, 자녀 양육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변화(부양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 양육비 지원 등) 등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수는 자녀의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는 일반적인 수요 이론을 따른다.

한편, 가계 소득이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은 비록 많은 연구들이 양의 소득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자녀가 열등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지만 아직도 그 효과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 행태를 추정하는 계량경제학 연구에서 자녀의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찾는 일과 가계소득이 자녀 수요에 미치는 방향과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한편, 소비자 수요 이론을 적용한 출산 행태 모형은 가장 기본적인 유형만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가설을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다양한 출산 행태를 설명하는 데는 역부족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기본적인 모형을 기초로 다양한 출산 행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경제학적 이론을 적용한 모형들이 뒤따라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 중의 초기 형태로 부모가 자녀의 수에 대한 수요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질(quality)에 대해서도 수요를 갖고 있다는 것에 착안한 자녀 수와 질의 모형(quantity and quality model)이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수요 함수 모형을 구축함에 있어 부모의 시간 특히 여성의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간 배분 모델(time allocation model)이 있다. 이러한 두 모형은 Becker(1960)와 Mincer(1963)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Becker(1965)의 가계생산함수 체계하에서 Willis(1973)에 의해 종합되었다. 자녀 수와 질의 모형이 갖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는 Becker와 Lewis(1973)에 의해 제시되었다.

4. 자녀수와 자녀질의 모형

Becker의 출산 행태를 설명하는 다양한 논문들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시작되었다. Becker(1960)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자녀가 열등재라거나 자녀에 대한 지출 수준이 높은 고소득의 가정이 높은 자녀 가격에 직면하고 있어 출산율이 낮다는 설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Becker는 자녀는 정상재라는 전제 하에 자녀에 대한 수요가 자녀의 수로 대변되는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자녀 1인당 지출 비용과 같은 질적인 측면과 관련 있다고 봄으로써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Theil(1952)과 Houthanker(1952)가 제안한 모델에 입각하여 Becker는 부모가 자녀의 수(quantity)와 자녀의 질(quality) 모두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출산 행태 모형을 제시하였다.

새로이 결혼한 부부는 단일한 의사결정자인 하나의 가계로 행동하며 다음과 같은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다.

$$U = u(n, q, s) \quad \dots\dots\dots (4)$$

$$I = \pi_c nq + \pi_s s \quad \dots\dots\dots (5)$$

효용 함수 (4)에서 n 은 자녀수, s 는 부모의 생활 수준, q 는 자녀의 질을 말한다. 예산제약식 (5)에서 I 는 가족의 총 생애주기 소득, π_c 는 자녀에게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지수, π_s 는 어른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지수이다. 예산제약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의 수(n)와 자녀의 질(q)이 곱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제약식이 비선형 형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녀의 수와 자녀의 질의 상호작용이 자녀수와 자녀질 모형을 통해 유도되는 자녀 수요 함수의 특징적인 양상을 가져온다. 이러한 모형을 통해 Becker(1960)가 강조하는 바는 자녀수(n), 자녀질(q), 부모의 생활 수준(s)에 대한 수요함수의 소득 탄력성이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alpha(\varepsilon_n + \varepsilon_q) + (1-\alpha)\varepsilon_s = 1 \quad \dots\dots\dots (6)$$

α 는 소득에서 자녀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ε_n 는 자녀 수에 대한 소

득탄력도, ε_q 는 자녀 질에 대한 소득탄력도, ε_s 는 부모의 생활 수준에 대한 소득탄력도이다. 만일 자녀가 정상재라서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면 자녀 수에 대한 소득 탄력도와 자녀 질에 대한 소득 탄력도를 합한 가격이 반드시 양수를 가져야 하며 이에 $\varepsilon_n + \varepsilon_q > 0$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자녀의 질에 대한 소득 탄력도가 양수이고 그 절대값이 충분히 크다면 자녀 수에 대한 소득 탄력도가 음수라 할지라도 $\varepsilon_n + \varepsilon_q > 0$ 의 조건은 만족된다. Becker는 자녀 질에 대한 소득 탄력도가 자녀 수에 대한 소득 탄력도보다 크다고 측정된 연구 결과들을 인용함으로써 소득 수준이 출산율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자녀 수와 자녀 질에 대한 모형은 Willis(1973)과 Becker 와 Lewis(1973)에 의해 거론될때까지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연구들은 자녀 수와 자녀 질에 대한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예산제약식 (5)가 가지고 있는 비선형적인 특징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가계의 효용함수 (4)를 가계의 소득함수 (5)의 제약하에 최대화 시키면 다음과 같은 1차 미분 조건이 도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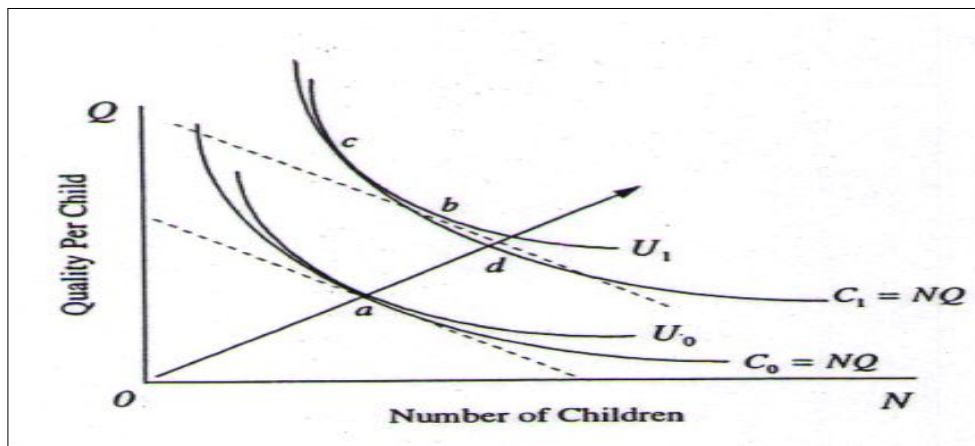
$$MU_n = \lambda q \pi_c = \lambda p_n, MU_q = \lambda q \pi_c = \lambda p_q \quad \dots\dots\dots (7)$$

MU_n 와 MU_q 는 각각 자녀 수와 자녀 질에 대한 한계 효용을, p_n 와 p_q 는 각각 자녀 수와 자녀 질에 대한 한계 비용 혹은 그림자 가격(shadow price)을, λ 는 소득의 한계 효용을 나타낸다. 이 조건에서 자녀 수에 대한 그림자 가격은 자녀의 질에 대한 증가함수 이며, 비슷하게 자녀 질에 대한 그림자 가격은 자녀 수에 대한 증가 함수이다.

가계의 자녀 수와 자녀 질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은 [그림 2-1]에 나타난 무차별 곡선에 의해 설명된다. 가계의 자녀 수와 자녀 질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나타내는 균형점은 가계의 효용 수준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 U_0 와 예산제약선인 $C_0=nq=(I-\pi_s(\pi_c, \pi_s, I)/\pi_c)$ 가 접하는 점인 a에서 이루어진다. C_0 는 가계의 자녀에 대한 지출 수준을 나타내며 $s(\pi_c, \pi_s, I)$ 는 부모의 생활 수준에 대한 수요 함수를 나타낸다. 점점 a

가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의 최대 효용수준을 나타낸다는 가정은 무차별 곡선 U_0 가 예산제약선 $C_0=nq$ 보다 볼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효용 극대화를 위한 제2차 미분조건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선호 체계에 있어서 자녀 수와 자녀 질이 완전한 대체재를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림 2-1] 자녀수와 자녀질의 결정 모형



예산제약선의 비선형성은 자녀 수와 자녀 질에 대한 상호작용을 야기시키는데, 만일 자녀 질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자녀 수에 대한 소득 탄력성 보다 크다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 수에 반하여 자녀의 질을 선호하게 되는 대체효과를 결과케 한다. Becker와 Lewis(1973)와 Willis(1973)는 자녀 질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자녀 수에 대한 소득 탄력성 보다 크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증명 가능하다고 하였다.

자녀 질과 자녀 수의 상호작용은 그림을 통해 설명 될 수 있다. 만일 자녀 질과 자녀 수의 소득 탄력도가 동일하다면 소득확장선(income-expansion path)은 oad로 주어질 것이며 자녀 질과 자녀 수의 상대 비율 그리고 자녀 질과 자녀 수의 한계대체율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만일 자녀 질에 대한 소득 탄력도가 자녀 수에 대한 소득 탄력도 보다 크다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지출 수준은 C_0 에서 C_1 으로 상승될 것이며 최적화 수준은 a에서 c로 이동하게 된다. 소득 상승으로 인한

총 효과는 자녀의 질과 자녀의 수에 대한 상대 가격을 고정시킨 상태에서의 순수소득효과인 a에서 b로의 이동과 대체효과인 b에서 c로의 이동으로 분해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이 상승하여도 자녀 수는 변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출산율의 상승을 가져오는 “순수 소득 효과”가 야기한 자녀 수의 증가분을 더 높은 자녀의 질은 원함으로써 자녀의 비용을 증가시켜 출산율 하락을 가져오는 대체 효과가 상쇄하기 때문이다.

제2절 선행 연구 결과

2004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287,000원으로 보충교육비 135,000원(47%), 학교납입금 102,000원(36%), 하숙·자취비 18,000원(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비 지출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77.2%로서 2000년 72.5%보다 4.7% 포인트 증가하였다. 동·읍면별로는 동부가 78.0%로 읍면부 72.7%보다 5.3% 포인트 높았다.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40대 및 50대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주의 직업별로는 기능노무직,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의 부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교육비 부담 요인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보충교육비 64.6%, 학교 납입금 30.9%, 하숙·자취·기숙사비 2.4%, 교재비 1.7% 순으로 나타나 학원비와 과외비가 교육비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보충 교육비를 가구의 교육비 부담의 주된 요인으로 지정한 비율은 2000년 56.0%에서 2004년 64.6%로 8.6% 포인트 증가한 반면, 학교 납입금을 지정한 비율은 2000년 37.9%에서 2004년 30.9%로 7.0% 포인트 감소하였다. 보충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연령층은 30대와 40대이며 학교납입금의 경우는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노동패널 제8차년도(2005년)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생이하 자녀 당 평균 사교육비용은 월 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7.9%에 달하는 가구가 사교육비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가구당 연평균 502

만 7천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당 평균 409만 9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82.2%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보다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 통계청 사교육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73%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8만 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 25만 6천원, 중학생 31만 4천원, 고등학생 35만 9천원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¹⁾.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아버지의 학력 수준 보다는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사교육에 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은 차이를 보였는데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계층은 100만원 미만 계층보다 8.8배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7).

이러한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한 연구는 상당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계량적인 모형을 통해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혼자가 향후 출산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가장 많은 이유는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인 것으로 나타났다(장혜경 외, 2004).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및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구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양육비 및 사교육비 부담이 가구에서 출산을 줄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이삼식 외, 2005). 이제까지 수행된 연구들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용복과 이소희(2004)는 오늘날 자녀의 의미가 가계 생산 활동의 계승이라는 투자재의 개념이 아니라 애정의 대상이라는 소비재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투자재로서의 자녀를 중시하는 자영업·농가세대가 저하되고 영구 소비재

1)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월 평균 금액이다.

로 자녀를 중시하는 고용자 세대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영구소비재로서의 아동의 경제적인 가치가 오늘날에 지배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 취업률의 상승 등이 영구 소비재로서의 아동 가치의 상승을 가져와 가족은 많은 수의 자녀보다는 적은 수의 자녀를 선택하고 있고 또한 한 자녀에 대한 질을 높이려는 행동을 취하게 되어 이것이 저출산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았다. 손승영(2005)은 가족가치관과 관련된 전통적 요인은 약화되고 있으나 자녀 양육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가족에서의 성불평등, 자녀 교육 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한국 사회에 작용하는 경쟁 심리와 과잉과시의 사회적 압력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일련의 외국 연구들에서도 자녀를 더 이상 투자재로 보지 않고 소비재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자녀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게 된 현대 사회에 와서 더욱 현저하게 되었다. Becker(1976)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구소비재에 대한 구매의욕이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 출산에 대한 의욕도 증가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후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소득 증대가 반드시 출산력을 증대시키지 않는다는 사실들이 제기되었다. 그 원인은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자녀 양육 부담이 증대되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기 원하므로 비용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되었다. 이에 듀젠베리와 오쿤(Dusenberry and Okun)은 소득 수준이 증가 할수록 자녀를 적게 갖고 자녀에 대한 질적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고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스틀린(1973)은 선진국에서는 대중 교육이 발달하여서 자녀들은 부모를 도와줄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새로운 소비 패턴이 형성되고 부모들도 사회적인 압력을 내면화해서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경쟁체제에 돌입하다보니 더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도 자녀가 제공하는 물리적·심리적 혜택에 변화가 있어와 과거에 비해 자녀의 경제적 기여도는 낮아진 반면 자녀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게다가 유교적 규범마저 변화하고 있어 부모의 노후에 대한 자녀의 의무나 물질적 지원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4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훗날 부모에게 제공할 물질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항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4%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4.2%에 이르고 있다(장혜경 외, 2004).

손승영(2005)은 심층면접을 통하여 저출산의 원인으로 가장 자주 언급된 요인은 경제적인 이유이며 특히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용과 교육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높고 그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으로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자녀를 남들과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키우거나 남들보다 더 잘 키워야 한다는 사회 압력이 한국 부모들에게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압력이 가계 지출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 비용을 훨씬 높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영주(2005)는 엄청나게 비싼 주택가격과 함께 낳아도 과열되는 교육열에 따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결혼 후 이상적인 수 만큼 자녀를 낳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거 요구에 맞지 않게 엄청나게 비싼 주택가격 때문이라고 하였다.

차경옥(2004)은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비,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라고 지적하면서,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만 절감되면 많은 가정에서 자녀 출산에 적극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취업주부들은 직접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 한명에게 과도한 소비지출을 하고 있으며, 한 명의 자녀에게 과거 2~3명의 양육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양상이 확대된다면 단순히 양육비나 교육비 절감과 같은 경제적 보상으로는 저출산 현상의 지속화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하였다.

차경옥(2004)의 연구결과, 저출산가계의 월평균소득이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월평균소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용 소득 보다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자녀 한명을 낳고도 2~3명 이상의 양육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려는 가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거의 모든

지출 비목에 있어서 저출산가계는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보다 많은 액수를 지출하고 있었다. 특히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에 있어 출산 계획이 있는 가계보다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에서 유의하게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저출산 가계의 경우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녀 한명에 대한 기대 이익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래의 가계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가계들이 추가적인 자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현재의 소득 수준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경제적 기대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출산가계는 자녀 계획이 있는 가계에 비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따르는 기대비용을 더 높게 추정하고 있었다. 즉, 자녀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보다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따르는 기대 비용이 높기 때문에 자녀 출산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가 자녀의 양 보다는 질을 통해 자녀에 대한 기대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으로 자녀의 인적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각 가정마다 20여만원의 출산보조수당을 주는 정책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금액을 모아 육아 및 교육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질 높은 시스템을 마련하여 가계의 자녀 양육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 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Arnold et al(1975)는 자녀에 대한 가치를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심리적 가치로 구분하고 각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경제적 가치는 아이가 어렸을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서 기대되는 물질적 이익과 비용을 의미하며, 어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성숙한 자녀의 늙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포함된다. 사회적 가치는 아이를 가짐으로써 얻게 되리라 기대되는 이익과 불이익을 뜻하는데 기혼 부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의 사회적 승인과 사회적 지위, 아들을 낳음으로써 가계를 계승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심리적 가치에는 행복, 즐거움, 혹은 자녀에 대한 기대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불편 등이 포함된다.

김현진(2004)은 사교육비 지출 결정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매개변인으로 학부모심

리변인과 사회문화풍토변인을 지적하였다.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학부모심리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지출 이유를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① 학교 수업을 받는데 유리할 것으로 학부모가 생각해서, ② 특정 분야에 대한 자녀의 취미나 특기를 살리기 위해, ③ 자녀가 다른 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④ 자녀가 친구들과 사귀게 하려고, ⑤ 자녀가 과외를 하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서, ⑥ 자녀가 과외를 받으면 성적이 향상되기 때문에, ⑦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기 때문에, ⑧ 자녀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문화풍토변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교육비 지출 이유를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지 못하면 이웃이나 친지를 볼 낮이 없어서, ② 인성교육을 잘하는 것 보다 좋은 학교에 진학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③ 성공적인 삶의 기준으로 개인적 만족보다 사회적 평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④ 자녀에 대한 과외비 지출은 자녀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⑤ 교양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특기 하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⑥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일류 대학(학과)을 나와야 하기 때문에 ⑦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강인원·전성일(2003)은 학벌주의가 학부모들의 인식수준과 사교육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선행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학벌주의, 공교육 만족도, 사교육 신뢰도, 사교육비 부담감, 사교육 구매 의도를 다음과 같은 변수로 측정하였다. 학벌주의: 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 ② 학력이 높을수록 승진이 빠르다, ③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 ④ 학력이 높을수록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⑤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정영숙, 1999; 유형선·윤정혜, 1999), 공교육만족도: ① 나는 과외보다 학교 교육을 계속 이용하겠다, ② 나는 과외보다 학교교육만을 받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겠다, ③ 나는 학교교육이 마음에 든다(De Wulf et al, 2002). 사교육 신뢰도: ① 과외는 내 자녀에게 많은 보탬이 된다, ② 과외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해결해 준다, ③ 과외 선생이나 학원은 내가 요구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④ 과외 선생이나 학원은 믿을만 하다(Doney and Cannon, 1997; Plank et al, 1999). 사교육비 부담감: ①

과외비 때문에 자녀의 책 값, 용돈을 제때 주지 못하는 편이다, ② 과외비 때문에 가구, 가전제품 구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편이다, ③ 과외비 때문에 가족의 외식, 여행 등을 포기하는 편이다, ④ 과외비 때문에 가게의 오락비, 기타 잡비 지출을 삭감하고 있다, ⑤ 과외비 때문에 자녀 결혼, 노후 준비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다. ⑥ 과외비 지출로 인한 재정적 문제로 부담감을 느끼는 편이다(김시월·박배진, 1999). 사교육구매의도: ① 나는 과외교습을 선호한다, ② 과외는 내가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③ 나는 내 자녀에게 과외교습을 시킬 것이다(Morgan and Hunt, 1994; Zeithanmal, 1988)

제3절 보육·교육비의 개념적 정의

1. 보육·교육비의 개념

교육학자들 사이에서 교육비는 “학교 교육 활동에 직접 혹은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투입된 경비 중 금전적으로 표시된 경비”(천세영, 2001)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비 분류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1977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서부터였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최창섭, 2000). 한국교육개발원이 채택한 교육비 분류 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비 분류 체계

직접교육비	공교육비	공부담 공교육비	공부담교육비
		사부담 공교육비	사부담교육비
간접교육비	사교육비		
	사부담 간접비용		
	공부담 간접비용		공부담교육비

자료: 천세영, 「교육비 개념 및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2001.

교육비를 직접 교육비와 간접 교육비로 분류하는 것은 교육이 다른 경제재와 경쟁적인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 직접적인 효용과 기회비용의 비교를 통해 투자

와 소비의 선택을 하는 준거로 교육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시각에 근거한다. 여기서 직접 교육비란 교육을 받기 위해 납입금, 교재대, 혹은 정부 수준의 교육 예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 교육비란 교육을 받기 위해 소비한 직접 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유실 소득 (foregone earning) 또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다. 그러므로 간접 교육비는 구체적으로 학교 재학 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유실되는 소득으로 나타난다 (천세영, 2001).

교육비는 경비의 확보, 배분의 과정이 공공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분된다. 공교육비는 공공단체의 합리적인 예산 회계 절차를 거쳐 교육에 투입되는 경비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정부부담, 법인부담, 학생부담(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교육비가 포함된다. 사교육비는 자녀를 교육시킴으로써 공교육비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여기에는 교재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과외수업비, 학교 지정용품비, 단체활동비, 교통비의 7가지 항목이 포함된다(윤정일·박종렬; 1977, 윤정일, 1997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분류방법은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던 학교의 공공회계절차를 거치면 공교육비이며, 그렇지 않으면 사교육비로 간주하는 특징이 있다.²⁾

실제적으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간의 구분 기준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 기준에 의한다. 협의의 공교육은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국·공립학교 교육을 의미하며, 광의의 공교육은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을 의미하여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 교육이 이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교육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과외 수업과 학원 교육 같은 교육을 의미한다(김영철, 1997).

공교육비는 재원에 따라서 공부담 교육비와 사부담 교육비로 구분된다. 학생이 내는 납입금은 비록 부담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그 집행이 학교나 정부의 공공 회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에 한해서만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조세 수입을 통해 획득한 재정과 똑 같은 원칙에 의해 배분·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 공공회계를 거친다는 말은 누가 어떤 돈을 부담하든지 간에 지출할 때는 학교나 공공기관의 공공의지(정책)에 의해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볼 때 학교 납입금은 사적인 영역에서 지출되는 공교육비로서 사부담 공교육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사교육비는 학생들의 교재비, 사설 학원비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유 계획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를 말한다. 물론 납입금도 학생의 선택에 따라 지출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교육재”를 일단 구입하기로 결정을 한 이후 즉 학교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는 의무적인 경비이며 졸업 이전까지는 자유로이 지출을 철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 권한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납입금은 사교육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부담 공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본다.

학계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정의에 따라 교육비를 분류하고 있다. 윤철경(1992)의 연구에서는 공교육비를 공공예산회계절차를 통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사교육비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자유계획에 의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교육비를 부담 주체(재원조달방식)에 따라 교육을 받는 학생이 자신의 교육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을 사부담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학교재단, 기업이나 혹은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공부담이라고 정의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교육비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고 보았다. 첫째, 납입금, 육성회비, 보충수업비처럼 교육을 받는 개인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사용료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학교나 교육청의 예산회계절차에 의해 집행되는 공교육비가 있다. 둘째, 교과서비, 학교에서 단체로 사용하는 부교재비, 수업준비물, 학교지정용품비, 단체활동비, 교통·급식비, 육성회 찬조금 같이 학부모의 자유로운 의사보다는 학교의 요청에 의해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되는 사교육비가 있다. 이는 공교육재정이 충분치 못해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교육비이다. 셋째, 예체능 교육비와 과외수업비,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부교재비, 교사에게 제공하는 촌지와 같이 입시경쟁구조 속에서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사교육비가 있다. 이 역시 공교육체계와 긴밀한 연계를 갖고 지출되고 있기에 교육비의 일부로 간주한다.

심재희·이계열(2005) 역시 한국교육개발원의 정의에 따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공교육비는 국가 공교육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 투자되어 공공회계절차를 거쳐 지출되는 모든 경비로써 중앙 및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교육비,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교육비,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사회 및 민간이 교육에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사교육비는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해 직접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로써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 학교교육 외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적으로 받는 교육을 위해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사교육비에는 교재구입비, 부교재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의류비, 단체활동비, 특기재능과외비, 개인교과목비, 입시학원비, 통신 및 학습지 과외비, 방과후 교육활동비, 독서실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교육비 지출 행위자를 공공 혹은 개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공·사교육비를 구분하고 있는데 반해, OECD에서는 교육비 부담 주체를 정부 혹은 민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공·사교육비를 구분하고 있다. OECD는 공교육비를(중앙, 주, 지방) 정부에서 공·사립 정규교육기관에 제공하는 교육비라고 보고 있으며, 사교육비를 가계, 민간기업체 등이 지불하는 학생 납입금, 교재구입비, 급식비, 기숙사비, 고용주 부담 직업교육비 및 훈련비 등 민간재원에서 부담하는 교육비라고 보고 있다.

최근 들어 1977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온 공·사교육비의 개념을 재검토하고 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영철 등(1997)은 회계 집행 방식에 의한 분류 보다는 그 목적이 공교육으로 간주되는 학교 교육과 관련된 비용과 학교 외 교육과 관련된 비용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공교육비, 후자를 사교육비로 분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학용품 교재대금의 경우 과연 어느 것이 학교 교육(공교육)과 관련된 것이고 어느 것이 학교 외 교육(사교육)과 관련된 것인지를 분간하기 쉽지 않고 또 그러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동 분류체계는 개념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실제 조사하고 공·사교육비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적용하기는 어려운 개념 체계라고 지적하였다(천세영, 2001).

〈표 2-2〉 김영철 등(1997)의 교육비 분류 제안

구분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공부담 교육비		국가, 공공단체부담	-	사회적기회비용
사부담 교육비	회계포함	입학금, 수업료 등	수강료 등	개인적기회비용
	회계불포함	교재대, 학용품비 등	교재대, 학용품비 등	

자료: 천세영, 「교육비 개념 및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2001.

최창섭(2000)은 공사교육비의 개념을 교육비 지출행위자에 의해서 분류하기 보다 OECD 분류체계와 같이 교육비 부담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OECD 회원국으로서 OECD 분류 방식에 따르는 것이 교육 제정의 국제 비교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사교육비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기수·고형일(1998)은 국가가 조세 수입을 통해 조달하는 교육비만이 공교육비가 되고 나머지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은 모두 사교육비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주장 역시 교육비의 분류를 집행 목적이나 회계 체계에 의해 분류하기 보다는 재원에 의해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이다. 더 나아가 사립학교는 본질적으로 공교육의 영역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며 국가교육체계에서 벗어난 사교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윤정일(1997)은 공·사교육비 개념을 교육비 지출 행위자에 의해서 분류하기 보다는 교육비 부담주체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직접 교육비 중 공부담 교육비와 간접 교육비 중에서 공부담 교육비만이 공교육비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교육비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개념 정의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교육비의 범위 역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초기의 연구에

서는 사교육비를 개인 차원에서 지출하는 교육비로 광범위하게 정의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 박명희(1976)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녀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일체의 경비를 사교육비로 정의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 없이 자녀 교육에 드는 모든 교육비를 사교육비로 광범위하게 정의 내렸다. 공은배·천세영(1989)은 사교육비를 학생들의 교재비, 사설학원비 등과 같이 철저히 개인의 자유 계획에 의해 집행되는 경비로 정의하였다. 김인숙·여정성(1996)은 자녀 교육에 지출하는 경제적 비용을 사교육비로 정의하였다. 김시월(1999)은 공교육비를 제외한 학교 교과목 관련, 과외비, 학원비, 예체능·교양을 위한 과외, 학습지, 참고서, 문구류 등을 사교육비로 정의하였다. 김홍주 외(1999)는 사교육비를 학교에 재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어떤 경비는 거의 필수적으로, 어떤 경비는 어느 정도 자유 의사가 반영된) 지출되는 교재 구입비, 교통비, 수학여행비, 급식비 등 개인적인 경비가 있을 수 있고, 전적으로 학생 혹은 학부모의 자유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과외수업을 위해 드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전자를 일반사교육비로 후자를 특수사교육비로 명명하였다. 특수사교육비도 그 목적에 따라 특기·재능 과외비·학원비, 개인 교과목 과외비, 입시 학원비(교과 공부 보충을 위한 학원비 포함), 통신 및 학습지 과외비,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비, 방과후 교육활동비로 구분하였다.

최근의 실태 조사에서는 사교육비의 범위를 구체화함에 있어 일반사교육비에 포함하는 항목들은 제외하고 통상 과외비로 이해되는 항목들을 사교육비로 정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전국 단위의 표본으로 사교육비 규모를 측정함에 있어 사교육비를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가 직접 지불한 경비로 간주하되 학교 수업 준비를 위한 제반 비용은 제외한 개념으로 보았다. 사교육비의 대상은 만 3세 이상 고등학생(재수생 포함)까지의 자녀로 보았으며, 사교육의 형태를 취학단계에 따라 학원교습, 개인 및 그룹과외, 학습지 구독, 방과후 보충학습으로 분류하여 이의 이용에 따르는 비용을 사교육비로 정의하였다(송태희, 1997).

교육부의 “2000 사교육비 실태조사”에서는 교육활동에 투입되기는 하지만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 내지는 학생이 직접 지출하는 경비를 사교육비로 정의하고 입시학원, 개입/그룹과외비, 특기/통신과외비, 취업준비학원비를 사교육비에 포함

하여 사교육비 규모를 측정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2003)의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경감대책연구”에서는 교육부의 2000년 실태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각급 학교(초·중·고)와 학교 교육(정규교육활동, 방과후 특기, 적성교육활동) 이외의 수업을 받는 일체의 과외 교육을 사교육으로 정의하고 개인이 사교육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으로서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예체능 및 특기 발달을 위한 과외비, 취업 준비를 위한 각종 과외비와 이를 위한 교재비를 사교육비로 정의하였다.

한편, 김지경(2004)은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을 정의하는데 있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학원,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방과후교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에서의 교육활동)을 사교육으로 정의하고 이들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사교육비로 정의하였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사교육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유치원에서도 교육이외에 보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보육시설에서도 보육만이 아닌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들 기관에서 교육과 보육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또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용은 학령기 이후의 자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다른 연령층과 연계하여 사교육의 이용정도 및 지출비용의 규모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보육·교육비의 규모를 측정하거나 보육·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통계청의 가계조사 혹은 한국노동패널과 같은 2차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동 조사 자료가 보육·교육비라고 정의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보육·교육기관이라고 정의한 기관에 수업료로 지출한 비용 및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의 부대 비용까지의 개념을 합하여 사교육비용으로 보았다. 각각의 항목을 따로 조사하지 않고 하나의 지출 비용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재량에 따라 지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비용을 사교육비라고 정의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³⁾.

한편, 통계청 가계조사에서는 교육비를 납입금,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구류로 분

3) 한국노동패널 및 가계조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육·교육비의 개념은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한다.

류하여 조사하였으며, 동 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분류기준에 기초하여 각자의 교육비 정의를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손경애·류정순(1998), 이성림(2006), 남기곤(2007)은 보충교육비만을 사교육비로 정의한 반면, 최영순(1999), 양정순·김순미(2003)는 사교육비의 개념을 보충교육비 뿐만 아니라 교재비, 문구류 등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경비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보았다.

박미희·여정성(2000)은 1997년 소비자보호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동 자료의 정의에 따라 사교육비를 문구류, 교재비 등을 제외하고 재능 개발이나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 가계가 지불하는 학원 수강비, 과외비, 학습지 구독료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보았다. 개별적인 조사자료에 근거한 연구로서 나영미·윤정혜(1999)는 사교육비를 일반 사교육비(교재비, 교통비, 수학여행비, 급식비 등 학교에 재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비용)와 특수사교육비(과외비와 같이 학생 혹은 학부모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이 결정되는 비용)가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보았으며, 김현진(2004)은 과외 사교육비를 과외비와 교재비가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보았다.

사교육비에 대한 정의가 각 개별 연구마다 다양한 것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교육비에 대한 개념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균·백승훈(1999)은 공교육비를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각 가계가 수업료를 지불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았다. 박정수(1996)는 학교 교육비를 학교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수업료와 기성회비 뿐만 아니라 졸업앨범대, 수학여행비, 사은회비, 연필, 볼펜, 노트, 물감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제반의 경비로 보았다. 사부담공교육비를 우인상(2000)은 납입금처럼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로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보충수업비, 학생회비, 실험실습비가 포함된 개념으로 보았다. 한편, 최영순(1999)은 공교육비를 납입금과 육성회비만 포함된 개념으로 보았다.

〈표 2-3〉 선행연구에서의 보육·교육비 정의

연구자	사용자료	보육·교육비 정의
손경애·류정순(1998)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1997~1998 상반기 자료)	- 사교육비: 기타교육비 중 보충교육비 ※ 보충교육비: 입시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기타예 능계학원, 태권도학원, 기타체육학원, 사무·전산학원, 독서실 및 독서실 이용료, 기타보충교육비
최영순(1999)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1982~1997)	- 사부담교육비=사부담공교육비 + 사부담사교육비 · 사부담공교육비 = 납입금, 육성회비 · 사부담사교육비 = 보충교육비+교재비+참고서비+문방구비+ 기타교육비 · 광의의 과외비 = 보충교육비+참고서, 일일공부, 학습테이프 등 · 협의의 과외비 = 보충교육비
양정선·김순미(2003)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001)	- 총교육비: 교육 및 이에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 구입비 ·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의 납입금,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방구비 - 사교육비: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 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경비 · 총교육비에서 공교육비라고 할 수 있는 납입금을 제외 한 모든 지출
이성립(2006)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002)	- 사교육비: 입시학원, 예체능계학원, 사무전산학원, 기타 보충교육(과외비등)을 포함한 보충교육비
남기근(2007)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1985~2006)	- 전체 교육비: 납입금, 문구류, 교재비, 보충교육비 ※ 보충교육비를 사교육비로 정의함
이승신(2003)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2000)	- 사교육비: 공교육비를 제외하고 학원, 개인그룹과외, 학 습지, 방과후 교내 보충학습, 방과후 교실, 탁아소, 어린 이집,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등에 지출되는 가계비용의 총합계

〈표 2-3〉 계속

연구자	사용자료	보육·교육비 정의
김지경(2004)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2002)	- 미취학자녀의 사교육: 7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방과후교내보충학습을 제외한 사교육의 종류
이은우(2004)	한국노동패널 5차 자료 (2002)	- 사교육비: 한국노동패널에서의 정의를 그대로 따름
양정호(2005)	한국노동패널 3~5차 자료 (2000~2002)	- 사교육비: 한국노동패널에서의 정의를 그대로 따름
백선희·조성우(2005)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	- 미취학자녀의 보육·교육비: 만 0~5세 자녀를 위해 보육·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 여기서 보육·교육기관은 학원,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어린이집, 유치원이 포함됨
박진영(2006)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2000, 2003)	- 사교육비: 한국노동패널에서의 정의를 그대로 따름
박미희·여정성(2000)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 사교육비: 자녀의 학교 교육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외에 재능 개발이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각 가계가 부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 만3세~고등학생(재수생포함) 대상 ※ 사교육비에는 학원수강비, 과외교습비, 유치원비용, 학습지구독료, 방과후보충학습지 포함
나영미·윤정혜(1999)	서울·인천 거주 인문계 고교 2학년 어머니 770명 조사	- 사교육비: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적으로 받는 교육을 위해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 ※ 일반사교육비(학교에 재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교재구입비, 교통비, 수학여행비, 급식비 등)와 특수사교육비(학생 혹은 학부모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이 결정되는 과외비 등) 모두 포함
김홍균·백승훈(1999)	대우패널자료 (1993·1997)	- 공교육비: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각 가계가 수업료를 지불하는데 지출하는 비용

〈표 2-3〉 계속

연구자	사용자료	보육·교육비 정의
박정수(1996)	대우패널자료 (1993~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비: 학교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수업료, 기성회비, 졸업앨범대, 수학여행비, 사은회비, 연필, 볼펜, 노트, 물감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제반의 경비 - 과외비: 학과성적의 향상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지출, 학원비, 가정교사비, 그룹과외비, 이에 포함되는 교재비가 포함 - 특별활동비: 정서함양이나 취미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음악, 미술교육 등에 사용되는 학원비, 태권도, 수영 등 체력 단련비가 포함
우인상(2000)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교육비: 공공예산 회계절차를 통해 지출되는 경비 · 공부담공교육비: 국가예산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비, 시설비, 장학지원금 등이 포함 · 사부담공교육비: 납입금처럼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회계절차를 통해 관리되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보충수업비, 학생회비, 실험실습비가 포함됨
김현진(2004)	최상근 외(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외 사교육비: 개인과외비, 입시학원비, 특기 재능 학원비, 통신 및 학습지 과외비, 교재비 ※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비는 교육이 실시되는 공간이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교육비에서 제외함

2. 각 종 데이터에서의 정의

가. 통계청 가계조사에서의 정의

2006년 통계청 가계조사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정의를 교육과정에 필요한 상품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교육비에는 직·간접적인 학습활동(학원, 개인교습)과 학생의 교육용구로 주로 사용하는 문구류도 포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교육비에는 납입금,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구류가 포함된다. 납입금은 학교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해 지출로 납부하는 제 경비로 입학금과 수업료만 포함되고 학교운영지원비, 여행경비, 기부금 등은 기타 교육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종류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국공립 대학, 사립대학, 대학원, 평생교육원이 포함된다. 교재비는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 및 교육에 필요한 학습 서적류에 지출한 비용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 기타 학교교재, 유치원초등학교 학습교재, 중·고등학교 참고서, 기타 교재비가 포함된다. 보충교육비는 학원교습 및 개인교습과 같이 학생의 교육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습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에 지출한 비용이다. 여기에는 입시 및 보습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전산학원, 기타학원, 해외연수비, 독서실, 개인교습비, 기타교육비가 포함된다. 문구류는 주로 학생이 교육목적에 사용하는 문구류에 지출한 비용이다. 여기에는 필기회화용구, 종이문구류, 기타문구류가 포함된다.

보육료는 영아 및 아동(유아와 초등학생)의 보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가구내 혹은 가구외에서 보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며 보육비 외 별도의 관련 비용 역시 포함된다. 여기에는 시댁이나 친척 등 친인척에 의한 보육, 베이비시터 등 가구내 보육, 놀이방·어린이집 등 가구외보육, 현장학습비, 소품비, 선물비용 등 보육시설에서의 부가비용이 포함된다. 한편, 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에 포함되며 보육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에서의 정의

통계청 사회 통계 조사에서는 교육비 지출액을 학교 납입금(수업료, 학교운영위원회비, 기성회비 등), 보충 교육비(학원비, 학교보충교육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하숙·자취·기숙사비,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학교납입금은 정규학교에서 받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로서 학교에 납부하는 제 경비(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실험실습비 등)를 말하며 국공립, 시립, 사립 유치원비 등도 포함된다. 보충교육비는 학교 이외 학원비(음악, 미술, 무용, 태권도, 주산, 컴퓨터 학원 등), 학교 보충

교육비, 개인(그룹)과외비, 재수생의 학원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을 말한다. 미취학 어린이의 학원 교습비 역시 보충 교육비에 포함된다. 하숙·자취·기숙사비는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자녀에게 송금한 교육비 이외의 하숙비, 자취비, 기숙사비 등이 포함된다. 기타 비용에는 해외어학연수비, 교과서·참고서·학용품·학습준비물비 등 기타 교육관련 잡비가 포함되며, 용돈 및 교통비는 제외된다. 교육비 대상은 취학전 아동, 재수생, 휴학생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로 하고 있다.

한편, 보육(교육)료는 만 10세 이하 자녀를 보육(교육) 기관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고 있으며, 보육(교육)기관에는 유치원 종일제 및 반일제(연장제),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등) 종일제 및 반일제, 학원(예체능학원, 태권도 학원 등), 방과후 아동교실 또는 공부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표 2-4〉 사회통계조사에서의 보육·교육비 정의

구분	내용	대상
교육비 지출액	학교 납입금	취학전 아동, 재수생, 휴학생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
	보충 교육비	
	하숙·자취·기숙사비	
	기타비용	
보육·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보육(교육)기관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 - 보육(교육)기관에는 유치원 종일제 및 반일제(연장제),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등) 종일제 및 반일제, 학원(예체능학원, 태권도 학원 등), 방과후 아동교실 또는 공부방이 포함됨 	만 10세 이하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지침서」, 2004, 2005.

다. 한국노동패널에서의 보육·교육비 정의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보육과 관련한 부분에서 사교육·보육비를 조사하고 있으며, 소비 부분에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패널조사가 시작된 1차년도(1998년)에는 사교육·보육비용을 “보육시설·교육기관에 드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사교육시설로는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유치원(정규기간만을 담당하는 경우)이, 보육시설에는 탁아소, 어린이방, 놀이방, 유아원, 직장보육시설, 유치원(정규시간 이외 보육을 맡아주는 경우)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정의는 3차년도(2000년)에 “사교육·보육기관 이용을 위해 지출한 수업료(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의 부대 비용 포함)”로 변경되어 가장 최근인 제9차(2006년)년도까지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정의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교육 시설 및 보육 시설에 대한 정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경 혹은 추가되어 왔다(<표 2-5> 참조). 가장 최근 자료인 제9차(2006년) 연도에서는 사교육시설을 학원,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방과후교내보충학습, 방과후교실, 어학연수, 인터넷(온라인)유료강좌, 문화센터 등으로 보고 있다. 보육시설은 동거 혹은 비동거 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 동거 혹은 비동거 하고 있는 타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설놀이방, 직장보육시설, 정규유치원, 시간연장제유치원, 종일제유치원 등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교육비용은 제2차(1999년) 연도부터 학교 등록금, 납입금 등으로 정의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표 2-5〉 한국노동패널에서의 보육·교육비 정의

구분		1차 (1998)	2차 (1999)	3차 (2000)	4차 (2001)	5차 (2002)	6차 (2003)	7차 (2004)	8차 (2005)	9차 (2006)
보육· 교육비 정의	사교육 시설	보습 학원, 예체능학원, 유치원 ^{주1)}	×	학원, 개인· 그룹과 외, 학습지, 방과 후교내보충 학습, 방과후 교실 ^{주2)}	→ ^{주3)}	→	→	학원, 개인· 그룹과 외, 학습지, 방 과후교내보 충학습, 방 과후교실, 어학연수, 인터넷(온 라인) 유료 강좌	학원, 개인· 그룹과 외, 학습지, 방 과후교내보 충학습, 방 과후교실, 어학연수, 인터넷(온 라인) 유료 강좌, 문화 센터 ^{주4)}	→ ^{주5)}
	보육 시설	탁아소, 어린 이방, 놀이방, 유아원, 직장 보육시설, 유치원 ^{주6)}	×	탁아소, 어린 이집, 놀이방, 유아원, 직장 보육시설, 유 치원 ^{주7)}	국공립어 린이집, 민간어린 이집 시설 놀이방 직 장보육시 설, 유치원 ^{주8)}	→	→	동거 혹은 비동거 하 고 있는 가 족과 친지, 동거 혹은 비동거 하고 있는 타인 ^{주9)} 국공립 어 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사설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정규유치원, 시간연장제 유치원, 중 일제유치원 ^{주10)}	→	→
	사적 탁아	어머니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 ^{주11)}	×	→	→	×	×	보육시설로 통합	→	→

〈표 2-5〉 계속

구분		1차 (1998)	2차 (1999)	3차 (2000)	4차 (2001)	5차 (2002)	6차 (2003)	7차 (2004)	8차 (2005)	9차 (2006)
보육· 교육비 정의	사교육· 보육비	보육시설· 교육기관에 드는 비용	×	사 교육· 보 육기관 이 용을 위해 지출한 수 업료 (교재 비, 재료비, 간식비 등 의 부대 비 용 포함)	→	→	→	→	→	→
	사적 탁아 비용	돌보아 주는 것에 대한 비용 ^{주12)}		→	→	×	×	사 교육· 보 육비에 통합	→	→
	공고 육비	×	학교등록 금, 납입금 등	×	학 교 등 록금, 납 입금 등	→	→	→	→	→
대상		0세·초등학교 3학년	×	0세·고등학생 이하(재학생 포함)	→	→	→	대학(원)생 자녀 추가 주 ¹³⁾	→	→
보육· 교육비 부담	사교육 비 부담	×	경제적 부담	→	→	→	→	→	→	→
	사 적 탁 아 비 용 부담	×	×	경제적 부담	→	×	×	사 교육· 보 육비 부담에 통합, 대학 (원)생 자녀 교육비 부 담 주 ¹⁴⁾	→	→

참고) ×: 당해 연도에 해당 항목이 조사되지 않음, →: 전년도와 동일한 용어 정의를 사용함.

주: 1) 보습학원: 영어학원, 속셈학원 등 학과 교육을 보조하는 학원, 예체능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피아노학원 등 아이들의 예체능교육을 담당하는 학원, 유치원: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경우.

2)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을 하는 경우, 방과후교실: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기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3)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만6세 이상으로 학교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을 하는 경우, 방과후 교실: 만6세이상으로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4) 김보리, 프리벨과 같은 영유아 놀이방은 학원에 포함됨, 인터넷 유료강좌에는 EBS TV 등의 강좌가 포함됨.

5) 김보리, 프리벨 등은 집으로 오면 개인·그룹과외, 학원으로 가면 학원, 백화점에서 하면 문화센터임.

6) 유치원: 정규시간 이외의 보육을 맡아주는 경우.

7) 유치원: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을 맡아주는 유치원과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모두 포함함.

8) 국공립어린이집: 국립, 사립, 구립 어린이집을 포함, 사설놀이방: 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설치한 보육시설, 유치원: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을 맡아주는 유치원과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모두 포함함.

- 9) 동거 혹은 비동거하고 있는 타인에는 아이 보는 아줌마, 파출부 등이 포함됨.
- 10) 정규유치원: 4시간, 시간연장제 유치원: 6시간, 종일제유치원: 8시간.
- 11) 동거·비동거 가족·친지, 동거·비동거 타인(아이보는 아줌마, 파출부 등)이 포함됨.
- 12) 아이를 보살펴 주는 것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대가로 명절이나 행사 때 이따금 주는 금액은 제외됨.
- 13) 휴학생 포함.
- 14) 정규 등록금 및 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기타 교육 관련 잡비 등에 대한 부담.

제3장 보육·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거시적 분석

일반적으로 출산율의 변화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상황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밝혀내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주로 보육·교육비를 중심으로 다른 거시적인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출산율 저하와 관련이 될 수 있는 변수들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보육·교육비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보육·교육비의 증대가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육·교육비에 대한 거시적인 변수를 구축하고 이를 다른 거시경제 변수들과 연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육·교육비 이외에 다른 측면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른 요인들을 일종의 통제변수로서 또한 고려한다. 이러한 변수들로서는 경제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GDP성장률, 여성의 가임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성초혼연령, 여성의 육아에 대한 기회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취업율, 여성임금상승률, 그리고 결혼형태의 지속 여부와 관련이 있는 조이혼율 등이 있다.

제1절 연도별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1. 연도별 보육비 지출 현황

1995년부터 2006년까지 0~5세 자녀를 보유한 가구의 보육료 지출 금액의 변화는 <표 3-1>과 같다. 1995년에서 2006년까지 유아 식료품비가 대략 2배 정도로 상승한 것에 비해 보육료 지출 금액은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는

0~5세 자녀를 보유한 가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가구가 실제로 보육료를 지출하는지를 보여준다. 1995년에 9.2%에 불과하던 보육료 지출 가구의 비율은 2006년에 이르러 45.5%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 활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관계가 깊다.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전업주부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자녀의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거나 유아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유모나 보육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3-1〉 0~5세 자녀 보유 가구의 월 평균 보육료 지출

(단위: 원)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보 육 료	7,781	13,164	17,362	20,761	18,338	15,276	20,518	18,788	33,900	57,440	74,126	87,042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표 3-2〉 0~5세 자녀 보유 가구의 보육료 지출 비율

(단위: %)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보육료 지출 비율	9.2	13.8	15.8	15.3	15.8	17.2	17.3	18.1	29.9	40.3	43.5	45.5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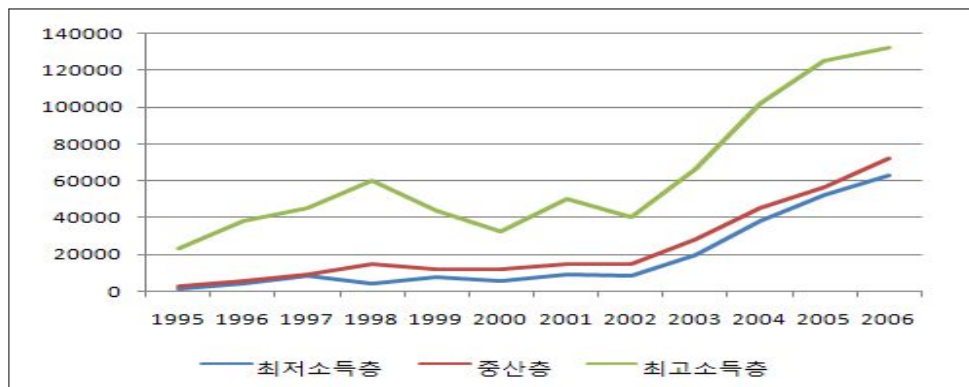
[그림 3-1~2]는 소득 계층별로 보육료 지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준다. Panel A를 살펴보면 2002년부터 모든 소득계층에서 보육료 지출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우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큰 변화 없이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2002년 이후 보육료 지출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고소득층은 중산층과 최저소득층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육료를 지출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소득층의 보육료 지출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2년 이후 다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최고소득층 가구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구에 비해 보육료 지출 수준이 높은 이유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우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보육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프로그램(예를 들면 특기 적성 교육 등)을 신청할 여력이 없는 반면에 고소득층은 보육시설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Panel B는 각 소득계층에서 보육료를 지출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준다. 보육료를 지출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2002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2002년도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보육료 지출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소득층에선 보육료를 지출하는 사람의 비중이 최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비해 높은 것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최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상당수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어 최고소득층에 비해 보육료를 지출하는 사람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각 소득계층별로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나 보육료를 지출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연도별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 소득 계층별 0~5세 자녀 보유 가구의 보육료 소비 행태 변화: Panel A.
월 평균 보육료 지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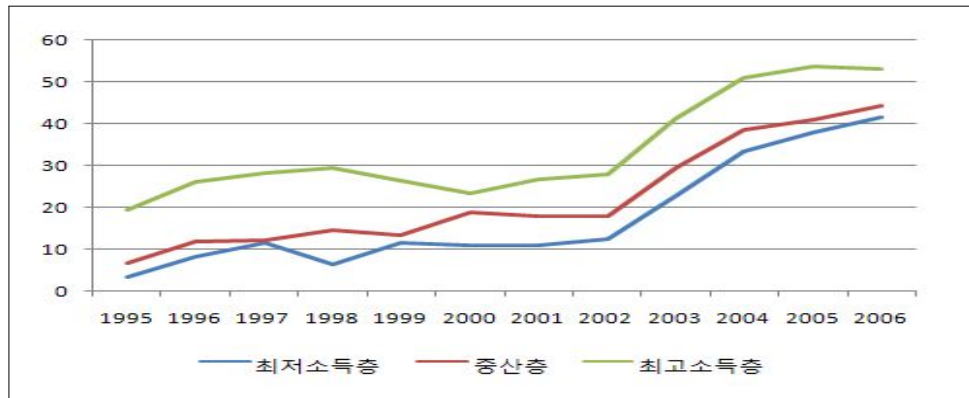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그림 3-2] 소득 계층별 0~5세 자녀 보유 가구의 보육료 소비 행태 변화: Panel B.
보육료 지출 가구의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2. 연도별 교육비 지출 현황

본 장에서 저출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변수는 교육비이다. 그런데 교육비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크게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교육비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에, 사교육비는 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는 소득 수준에 따른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자료이다. 분석 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을 최저소득층,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최고소득층의 5단계로 나누어 표에 나타내었다. 먼저 Panel A는 전체적인 액수를 나타내고, Panel B는 소득 대비 비율을 나타낸다. 월 평균 교육비는 교육 자녀를 보유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득 대비 비율은 집단 내의 전체 교육비를 합한 금액을 교육 자녀를 보유한 가구의 전체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표 3-3〉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2006년 자료): Panel A. 월 평균 교육비 지출 금액
(단위: 원)

소득 계층	최저소득층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최고소득층
전체 교육비	218,336	304,214	395,421	511,127	699,242
납입금 지출	103,372	131,694	128,192	166,085	203,122
보충교육비 지출	100,607	155,456	246,575	319,792	467,338
자녀 1인당 교육비	76,657	135,201	188,986	247,830	355,685
자녀 1인당 납입금	35,145	59,028	64,425	84,836	109,449
자녀 1인당 보충교육비	36,293	68,786	114,946	150,858	231,620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표 3-4〉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2006년 자료): Panel B. 소득 대비 교육비 비율
(단위: %)

소득 계층	최저소득층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최고소득층
전체 교육비	23.77	16.25	14.52	13.61	11.50
납입금 지출	11.25	7.03	4.71	4.42	3.34
보충교육비 지출	10.95	8.30	9.06	8.51	7.69
자녀 1인당 교육비	14.43	8.98	7.80	7.21	6.28
자녀 1인당 납입금	6.62	3.92	2.66	2.47	1.93
자녀 1인당 보충교육비	6.83	4.57	4.74	4.39	4.09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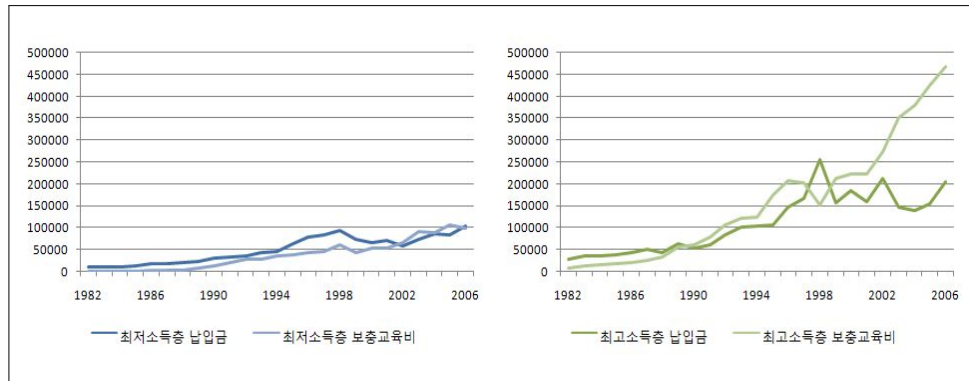
Panel A를 살펴보면, 월 평균 교육비 지출은 집단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나누어 보면, 두 가지 모두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규모가 커지지만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의 격차가 커질수록 공교육비보다는 사교육비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자녀 1인당 교육비 지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Panel B는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규모의 비율을 보여준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의 비율은 더 낮아진다. 교육비 지출 금액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비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저소득 계층

에서 교육비에 대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사교육비의 비중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해왔고, 최근에는 사교육비 지출이 공교육비 지출 규모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그림 3-3~4]는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과 공교육비 지출 규모 및 비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최저소득층의 경우 납입금과 보충교육비 지출은 비슷한 증가 양상을 보여 왔으며 1982년부터 2006년까지 그다지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고소득층의 경우 1990년대 후반까지 납입금과 보충교육비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며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납입금의 지출은 어느 정도 증가 추이를 보이지 않게 된 반면, 보충교육비는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증가한 사교육비는 자녀의 출산을 망설이게 할 정도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모든 소득계층에 넓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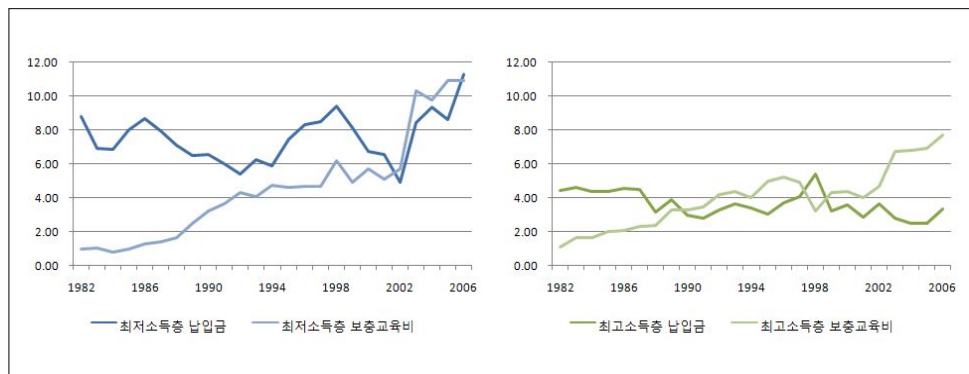
한편, 교육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절대적인 규모는 최저소득층이 최고소득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가 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변화 양상은 교육비 지출 규모 변화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납입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 소득집단에서 모두 경제 위기 직후인 1998년에 높은 비율로 상승하였다. 이후 2002년까지 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 집단에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저소득층에서 2002년 이후 납입금의 비중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충교육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두 집단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충교육비 비중은 2002년을 기점으로 두 집단에서 모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비 지출 행태 비교: Panel A. 월 평균 교육비 지출 금액
(단위: 원)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그림 3-4]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비 지출 행태 비교: Panel B. 소득 대비 교육비 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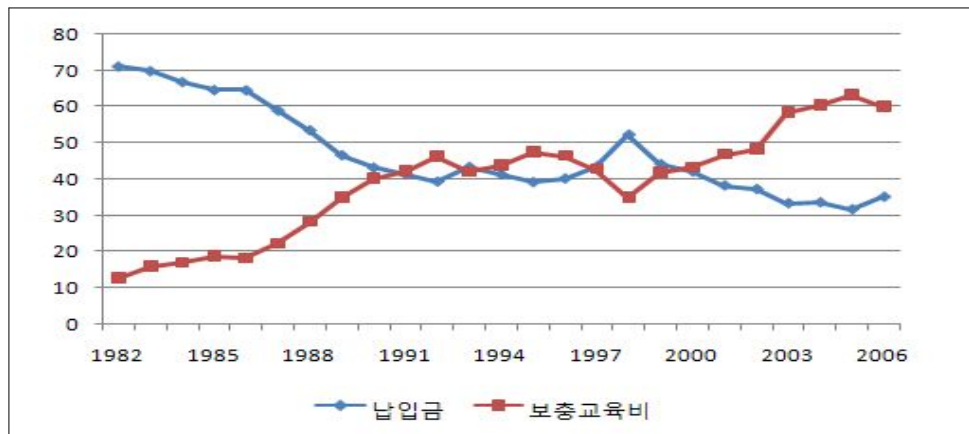
[그림 3-5]는 본 연구가 사용하는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에 속해 있는 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 교육비 중에서 납입금과 보충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납입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에 납입하는 등록금을 뜻하며, 보충교육비는 개인교습, 과외, 학원 및 도서관 등의 사교육에 대한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하여 1인당 교육비에서 차지하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료가 시작되는 1982년 이후 전체 교육비 지출 중에서 납입금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보충교육비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교육비 지출에서 10~30%내외를 차지하던 보충교육비는 2000년대 들어서 거의 60%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5] 자녀 1인당 교육비 지출 중에서 납입금과 보충교육비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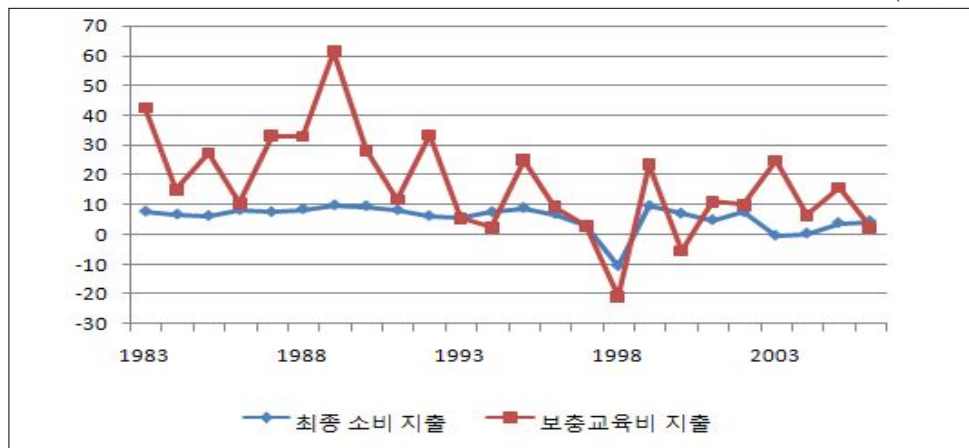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그림 3-6]은 최종 소비 지출과 보충교육비 지출의 실질 증감률을 보여준다. 사교육비의 꾸준한 증가 추세는 1982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2번 정도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간 10%가 훌쩍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 오던 사교육비는 1993~1994년에 상승폭이 매우 낮아졌는데, 그것은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94년에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되어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이어져오던 대학 입학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대학 수험능력 시험으로 입시 제도가 바뀐 것이다. [그림 3-7]은 교육비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던 부분을 보고하고 있다. 1989년에는 사설 학원 설립 및 운

영이 허용되었고, 1980년부터 전면 금지되어 왔던 과외가 1998년에 들어 전격 허용되었다. 2000년에는 1980년에 시행되었던 과외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고, 이듬해 학원 설립 및 과외 교습이 완벽하게 자율화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종 교육비 관련 정책 변화는 실제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3-6] 최종 소비 지출과 보충교육비 지출의 실질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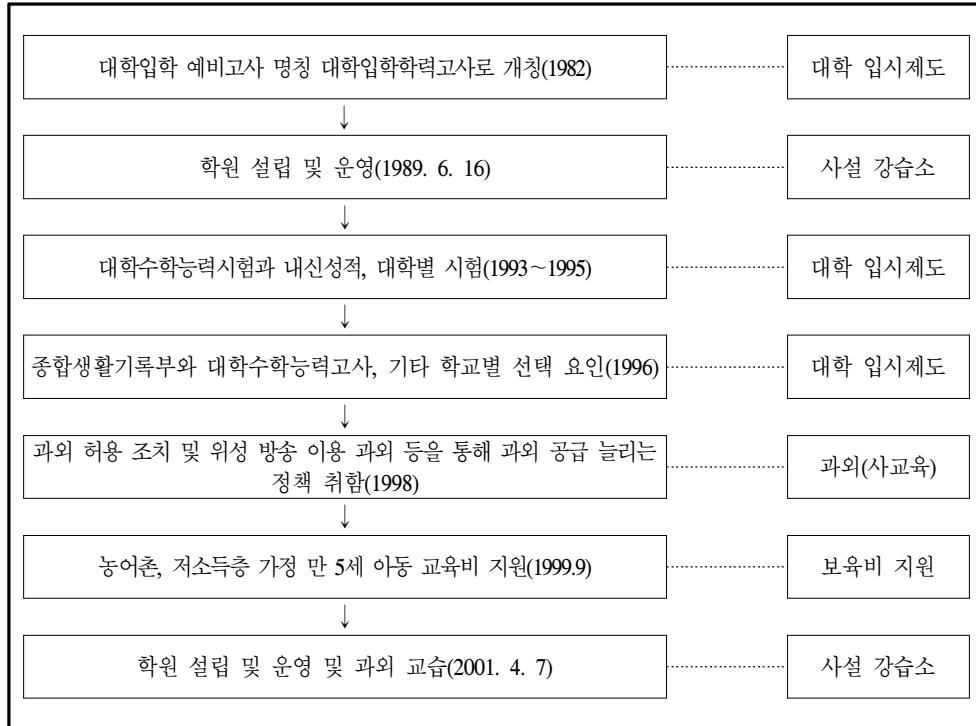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및 통계청 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재구성.

예를 들어, 20개에 달하는 과목을 모두 공부해야만 하는 학력고사에 비해서 시험 과목의 수가 대폭 줄어든 수능능력 시험은 일시적으로는 사교육 시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그치게 되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암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학력고사와는 달리, 암기력 보다는 응용력과 창의력을 시험하는 수능능력 시험의 성격이 공교육에 의존해서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후에 알려지게 되자 과외와 사교육 시장은 다시 과열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제도적 변화와 관련해서는 입시 제도를 포함하여 관련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사교육비 증가의 일반적 추세를 크게 완화시키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 보육·교육비 및 대학 입시제도 관련 주요 정책 변화



다만, 1998년과 2000년에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또 다시 한번 하락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경제 위기와 관련이 깊다. 1998년 최종 소비 지출의 실질 감소율이 10.6%를 기록했는데, 사교육비에 대한 실질 감소율은 2배가 넘는 20.8%에 달했다. 같은 해 공교육비는 오히려 1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부터 정부는 공교육비 축소 방안에 따라 공교육비를 하락시켰는데, 그에 따라 1999년에 사교육비 지출은 다시 원래 수준을 회복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제 불황과 소득의 양극화에 따라 2000년에 사교육비 지출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경기와 관련 없이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⁴⁾

4) 김용성(2006), 유경준(2007)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지수와 양극화 지수는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상승세는 꺾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가구별 특성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2007년에 통계청이 실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인용한다. 이는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가구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초 통계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따른 분류, 아버지의 교육 수준에 따른 분류, 가구 소득에 따른 분류를 참조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표 3-5〉 월 평균 사교육비 지역별 특성 분포

(단위: %)

지역	사교육 받지않음	10만원 미만	10만원 ~ 20만원	20만원 ~ 30만원	30만원 ~ 40만원	40만원 ~ 50만원	50만원 이상
대도시	20.4	10.5	16.9	19.0	13.8	8.0	11.4
서울	19.4	9.7	14.6	16.2	14.3	9.3	16.5
광역시	21.0	11.1	18.4	20.9	13.4	7.2	8.0
대도시 이외	25.5	12.7	18.1	18.7	11.8	6.0	7.5
중소도시	22.5	10.5	16.7	19.8	13.8	7.3	9.4
읍면지역	33.6	19.7	22.6	15.2	5.7	1.9	1.3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먼저 <표 3-5>는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규모의 격차를 보여준다. <표 3-5>를 살펴보면 읍면지역 보다는 도시에서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더 높고, 도시 중에서는 대도시, 특히 서울의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교육 기회에 있어서 지역 간의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통계이다.⁵⁾ <표 3-6>은 아버지의 교육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규모의 격차를 보여준다.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교육에 투자하는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규모의 격차를 보여준다.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5)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실증분석을 하기 전의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6〉 월 평균 사교육비 아버지 교육 수준별 특성 분포

(단위: %)

아버지 교육 수준	사교육 받지않음	10만원 미만	10만원 ~ 20만원	20만원 ~ 30만원	30만원 ~ 40만원	40만원 ~ 50만원	50만원 이상
초졸 이하	63.4	13.3	11.0	6.5	3.3	1.5	1.2
중졸	49.8	15.4	14.6	11.2	4.6	2.5	1.8
고졸	28.3	13.5	19.6	19.6	10.5	4.4	4.2
대졸 이상	12.0	9.4	16.4	20.0	16.4	10.3	15.5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표 3-7〉 월 평균 사교육비 소득별 특성 분포

(단위: %)

가구의 월소득	사교육 받지않음	10만원 미만	10만원 ~ 20만원	20만원 ~ 30만원	30만원 ~ 40만원	40만원 ~ 50만원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63.1	17.0	11.5	5.4	1.8	0.7	0.6
100 ~ 200	40.3	18.1	20.1	14.0	4.9	1.4	1.1
200 ~ 300	23.0	14.0	21.9	21.8	11.5	4.5	3.3
300 ~ 400	15.6	9.9	18.5	23.8	15.9	8.0	8.4
400 ~ 500	10.8	7.0	14.9	21.0	19.1	12.3	14.8
500 ~ 600	9.5	6.7	12.6	17.8	18.8	13.6	21.0
600 ~ 700	7.3	4.9	11.3	17.9	18.5	12.2	27.9
700만원 이상	6.5	4.1	9.4	13.0	15.9	13.6	37.5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3. 과도한 사교육이 끼치는 사회적 문제점

과외 수업이나 학원 수강과 같은 각종 사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으로 충족되지 못한 교육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그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추가적인 교육서비스를 받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교육은 주로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과 관련하여 입시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그 연장선상에서 저연령층의 사교육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학교 교육을 보완하거나,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지 않거나 소홀히 다루어지는 분야의 특기 계발과 취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최상근 외 2003).

과열 과외를 포함하여 과도한 사교육의 범람은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을 비정상화하고,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습 부담을 주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김영철 1997). 또한 학생들이 지나치게 과외 교육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 및 창의력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이 지적되기도 한다. 더욱이 사교육에 주로 의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하여 불신을 보다 크게 가짐에 따라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공교육의 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이 지적되기도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사교육의 팽창은 필연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공교육비 부담 외에 과중한 사교육비를 별도로 부담시켜 가계수지에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교육비의 팽창은 가정 경제와 국민 경제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파생시킬 수 있다.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사교육비가 세원으로 포착되지 않는 경우 지하 경제로 유입되어 건전한 국민 경제를 왜곡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과중한 교육비는 상당 부분이 공교육과 중복되어 지출되거나 비생산적, 소모성 지출이 됨으로써 국가의 가용 교육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이 교육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박정수 1996). 결국 개인적 측면에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인식되는 사교육비 부담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인적자원의 축적을 이루지 못하고 낭비적인 지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낭비적인 사교육비 지출이 공교육을 보완하기 보다는 중복적으로 지출되거나 오히려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축적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2절 출산율의 거시적인 결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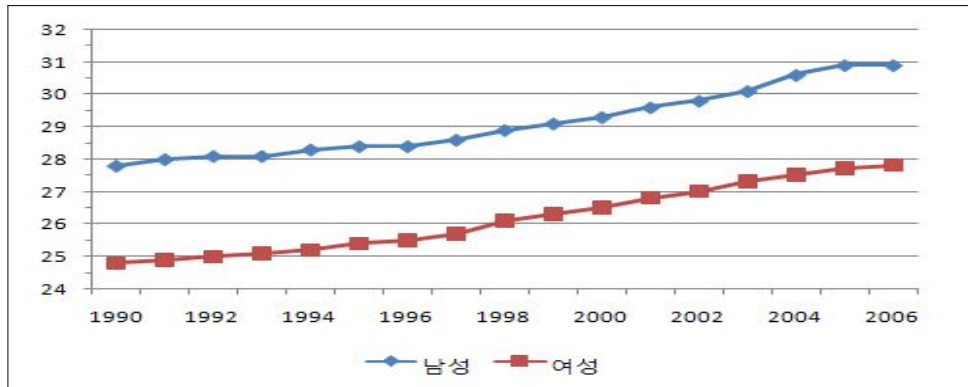
1. 여성 초혼 연령 상승

여성들의 초혼 연령은 출산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조병구·조윤영·김정호, 2007). 여성들의 초혼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인 이후 여성들의 가임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병구 외(2007)는 여성 초혼 연령이 출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을 미시적 자료를 통하여 보이고 있다. 물론 법률적인 혼인관계 이전에도 출산 자체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결혼 이외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적인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실제 초혼을 언제 하는지가 여성들의 가임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3-8]은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을 보여준다.

[그림 3-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자·여자 모두 초혼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여성의 초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가임기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에 따라 여성에게 있어서 생물학적 가임기간이 길어진다면 이러한 요소는 또한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가임기간 자체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산율의 거시적인 결정요인으로서 보육·교육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초혼연령을 고려한다. 따라서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여성 초혼 연령의 상승이 가임기간에 영향을 준다면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부호는 음(-)의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생물학적 가임기간 자체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형태, 두 가지 모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3-8]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

(단위: 세)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2. 여성 취업률 상승과 여성 근로자 임금 상승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 증가도 저출산과 관련된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Lehrer and Nerlove(1986), Brewster and Rindfuss(2000) 등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의 증가는 자녀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율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즉, 여성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일을 포기해야 되는 것에 소요되는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취업률변수도 출산율의 결정과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3-8〉 우리나라의 성별 취업률과 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

(단위: %, 원)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취업률	남자	51.94	53.19	54.33	54.89	55.13	52.00	52.14
	여자	35.26	36.32	37.24	38.06	38.83	35.75	36.61
근로자 평균 임금	남자	867,970	938,982	1,049,646	1,176,994	1,261,941	1,274,784	1,358,343
	여자	490,541	550,615	628,275	723,680	789,063	804,343	866,570

〈표 3-8〉 계속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취업률	남자	53.70	54.35	55.73	55.91	56.41	56.81
	여자	38.26	39.01	39.80	39.07	39.94	40.41
근로자 평균 임금	남자	1,473,789	1,558,940	1,716,024	1,850,106	1,957,976	2,108,732
	여자	954,292	1,015,178	1,112,457	1,206,802	1,286,258	1,395,979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그런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여성 취업자들의 평균 임금과 또한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크고, 여성취업자들의 평균임금이 낮은 시기에는 실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더라도 경제활동에 따른 기회비용이 낮으므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성취업자들의 임금이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성이 노동시장 참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임금의 차이는 점차 좁혀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한 추세와 함께 여성들의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표 3-8>은 우리나라에서의 성별 취업률과 근로자 평균 임금 추이를 보여준 것이다.

3. 이혼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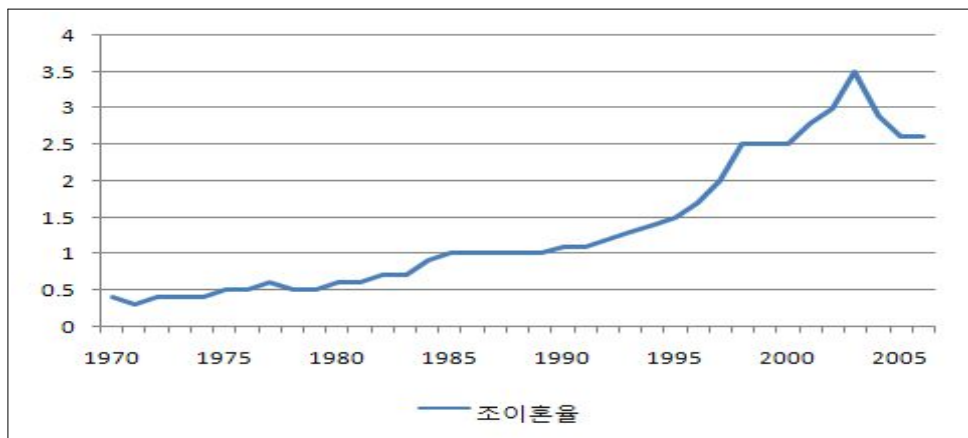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혼율 변수도 출산율과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다. 이혼율이 높아질수록 부부들은 현재의 배우자와 가정의 형태로 유지될 지에 대한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보다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자녀 출산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혼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부담이 되는 구조라면 이혼에 대한 부담은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자녀의 수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림 3-9]는 우리나라의 조이혼율 추이를 보여준다. 1970년대 0.5 내외 정도였던 것이 최근에는 3 내외 정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최근에 2.5 내외 정도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예전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그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조

이혼율이 증가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출산율에 대한 보육·교육비의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이혼율의 변화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도 고려한다.

[그림 3-9] 우리나라의 조이혼율

(단위: 인구1천명당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제3절 실증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1983~2006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실증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실제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한편, 통계청 가계조사에서 보육료 항목은 1995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시계열 자료의 길이가 짧아 시계열 통계 분석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보육료 지출은 시계열 통계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자료와 변수들에 대한 설명

시계열 분석에서는 GDP나 교육비, 임금과 같은 변수들을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변수로 바꾸어주었다. 분석에 쓰이는 출산율 변수로는 합계출산율과 조출산율 변수를 모두 이용한다. GDP,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조이혼율, 여성 초혼 평균 연령, 여성 취업률, 출산율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자료를 참조했으며, 교육비와 관련된 변수들은 통계청 가계조사의 가구별 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하였다.⁶⁾ 여성 취업률은 전체 여성 취업자의 수를 해당 연도의 여성 인구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인구 조사가 5년마다 이루어지는 관계로 조사 간격 사이에 해당하는 연도의 인구는 보간법(補間法,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며, 조출산율은 국가 전체 인구 천명당 신생아의 수를 나타낸다.

〈표 3-9〉 주요 변수들의 요약 통계(시계열 분석)

변수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합계출산율	24	1.5171	0.2434	1.08	2.08
조출산율	24	14.2458	2.8270	9.0	19.5
실질 GDP 성장률	24	6.8164	3.7636	-6.8858	11.0444
여성 초혼 연령	24	25.5971	1.2420	24.2	27.8
조이혼율	24	1.7833	0.8442	0.7	3.5
여성 취업률	24	35.5265	3.9108	27.83	40.94
여성 임금 상승률	24	0.0995	0.0813	-0.0370	0.3407
교육비 변화율	24	0.0887	0.0827	-0.0863	0.3047
납입금 변화율	24	0.0598	0.1102	-0.1273	0.2817
보충교육비 변화율	24	0.1706	0.1721	-0.2077	0.6138

본 장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육비 변수는 자녀 1인당 교육비 지출을 나타낸다. 연도별 교육비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구별 자료를 가공하여 연도별로 산출하

6) 여성 초혼 평균 연령의 경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1989년 이전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관계로 1982년부터 1989년까지의 데이터는 보외법(補外法, Extrapolation)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였다. 우선 가구별 데이터에서 동일 가구의 데이터끼리 모아서 각 가구의 교육 자녀 수와 월평균 교육비를 조사한 뒤, 교육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모아서 평균 교육비 지출과 자녀 1인당 교육비 지출을 계산하였다. 교육비 변수는 유치원과 학교에 지불하는 납입금과 그 외의 학원이나 개인 교습, 도서관 등에 지출하는 보충교육비로 나누어서 분석을 시도한다. 이는 납입금을 공교육비, 보충교육비를 사교육비의 대체 변수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교육비 외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로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질 GDP 성장률, 여성 초혼 평균 연령,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여성 취업률, 조이혼율 등을 사용하였다. <표 3-9>는 본 장의 실증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요약 통계를 보여준다.

<표 3-10> 주요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시계열 분석)

구분	실질 GDP 성장률	여성 초혼 연령	조이혼율	여성 취업률	여성 임금 상승률	교육비 변화율
실질 GDP 성장률	1					
여성 초혼 연령	-0.5014	1				
조이혼율	-0.5590	0.9461	1			
여성 취업률	-0.4174	0.8944	0.8314	1		
여성 임금 상승률	0.5901	-0.6661	-0.6628	-0.8099	1	
교육비 변화율	0.2163	-0.4492	-0.5256	-0.3237	0.3406	1

그리고 기초통계량 이외에 <표 3-10>는 분석에 사용되는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표 3-10>에 따르면, 여성 초혼 평균 연령과 여성 취업률, 조이혼율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 변수가 시점에 따라 일정한 추세를 가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변화율을 변수로 사용한 평균 임금 상승률이나 실질 GDP 성장률은 다른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GDP, 임금, 교육비와 같이 금액으로 산정되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실질 변화율을 측정하여 그 값을 변수로 사용하였다.⁷⁾

7) 실질변화율을 측정하여 그 값을 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시계열상의 불안정성(non-stationarity) 문제도 벗어나도록 한다.

〈표 3-11〉 교육비 변화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	교육비 변화율	납입금 변화율	보충교육비 변화율
교육비 변화율	1		
납입금 변화율	0.6167	1	
보충교육비 변화율	0.6840	-0.0594	1

그리고 <표 3-11>은 교육비 변화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즉, 전체 교육비의 변화율, 공교육비의 변화율, 그리고 사교육비의 변화율 간의 관계이다. 납입금 변화율과 교육비의 변화율은 0.6167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보충교육비 변화율과 교육비의 변화율은 0.6840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변화율은 전체교육비의 변화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주목할 점은 납입금 변화율과 보충교육비 변화율 상호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0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는 공교육비 지출의 변화와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가 가지는 관계가 매우 독립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표 3-12>는 연도별 자녀 1인당 명목 납입금과 명목 보충교육비를 나타내는데, 1980년대 초반에 납입금의 20% 수준에 머물러 있던 보충교육비는 1990년대 초반에 납입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납입금의 2배에 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⁸⁾

〈표 3-12〉 연도별 자녀 1인당 명목 교육비 지출

(단위: 원)

연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자녀 1인당 교육비	8,793	10,542	12,130	14,618	17,533	20,244	22,741	31,399	38,513
자녀 1인당 납입금	6,256	7,368	8,110	9,448	11,325	11,942	12,177	14,644	16,632
자녀 1인당 보충교육비	1,111	1,682	2,050	2,736	3,191	4,492	6,420	10,964	15,531

8) 여기서 납입금은 대학 납입금을 포함한 값이므로, 대학 미만 자녀에 대한 납입금과 보충교육비의 차이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2〉 계속

(단위: 원)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자녀 1인당 교육비	45,372	59,559	73,604	77,779	96,878	113,594	132,418	135,928	140,429
자녀 1인당 납입금	18,761	23,432	31,939	32,147	37,940	45,673	57,680	71,154	62,033
자녀 1인당 보충교육비	19,208	27,581	30,966	34,175	45,886	52,743	56,708	47,559	58,708

〈표 3-12〉 계속

(단위: 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자녀 1인당 교육비	129,217	137,303	150,418	159,555	168,588	186,155	200,901
자녀 1인당 납입금	54,518	52,582	56,126	53,280	56,662	58,983	70,583
자녀 1인당 보충교육비	55,937	64,302	72,811	93,343	102,061	117,893	120,522

2. 통계 분석 결과

<표 3-13~14>는 표본기간(1983~2006년) 내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한 통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종속변수로는 조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어느 변수를 사용하던지 실증분석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Panel A는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고, Panel B는 조출산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질 GDP 성장률, 여성 초혼 평균 연령, 여성 취업률, 이혼율, 여성 근로자 평균 실질 임금 상승률 등의 변수들 중에서는 여성 초혼 연령, 이혼율, 여성 취업률과 같은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반면에 경제 성장률과 여성 임금 상승률과 같은 경제적인 변수들은 출산율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 이들 변수는 상관관계가 높은 관계로 한꺼번에 독립 변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3-13〉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시계열 분석): Panel A.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상수항	5.6627 ^{***} (6.88)	2.0337 ^{***} (13.79)	2.9385 ^{***} (4.80)	5.5062 ^{***} (6.61)	2.0251 ^{***} (11.93)	2.8912 ^{***} (4.82)
여성 초혼 연령	-0.1618 ^{***} (-5.33)			-0.1569 ^{***} (-5.13)		
조이혼율		-0.2585 ^{***} (-5.46)			-0.2557 ^{***} (-4.93)	
여성 취업률			-0.0422 ^{**} (-2.72)			-0.0420 ^{**} (-2.76)
여성 임금 상승률	0.5538 (1.17)	0.6798 (1.50)	0.0407 (0.05)	0.6195 (1.29)	0.7574 (1.57)	0.0001 (0.00)
실질 GDP 성장률	-0.0058 (-0.66)	-0.0117 (-1.32)	0.0069 (0.59)	-0.0009 (-0.09)	-0.0121 (-1.11)	0.0151 (1.18)
교육비 변화율	-0.2096 (-0.59)	-0.4889 (-1.32)	0.2836 (0.62)			
납입금 변화율				0.1318 (0.49)	-0.2169 (-0.71)	0.4966 (1.47)
보충교육비 변화율				-0.2074 (-1.10)	-0.1852 (-0.96)	-0.0952 (-0.39)
표본수	24	24	24	24	24	24
F	16.79 ^{***}	17.45 ^{***}	7.24 ^{***}	13.76 ^{***}	12.96 ^{***}	6.44 ^{***}
R ²	0.7795	0.7860	0.6037	0.7926	0.7826	0.6415

† p<0.1, * p<0.05, ** p<0.01, *** p<0.001

〈표 3-14〉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시계열 분석): Panel B. 조출산율

조출산율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상수항	69.0363 ^{***} (8.39)	20.9541 ^{***} (13.09)	34.0035 ^{***} (4.92)	67.5279 ^{***} (8.29)	20.9811 ^{***} (11.48)	33.4887 ^{***} (4.99)
여성 초혼 연령	-2.1279 ^{***} (-7.01)			-2.0820 ^{***} (-6.96)		
조이혼율		-3.2718 ^{***} (-6.37)			-3.2732 ^{***} (-5.86)	
여성 취업률			-0.5743 ^{***} (-3.28)			-0.5733 ^{**} (-3.38)
여성 임금 상승률	1.9772 (0.42)	4.1648 (0.85)	-5.5863 (-0.59)	2.8892 (0.61)	5.1495 (0.99)	-5.9971 (-0.64)
실질 GDP 성장률	-0.0451 (-0.51)	-0.1157 (-1.20)	0.1237 (0.94)	0.0139 (0.14)	-0.1242 (-1.05)	0.2280 (1.60)
교육비 변화율	-2.3913 (-0.67)	-5.6291 (-1.40)	4.0404 (0.79)			
납입금 변화율				1.4451 (0.55)	-2.8186 (-0.86)	6.2608 (1.66)
보충교육비 변화율				-2.6794 (-1.45)	-2.3176 (-1.12)	-1.2119 (-0.44)
표본수	24	24	24	24	24	24
F	24.31 ^{***}	20.68 ^{***}	7.94 ^{***}	20.85 ^{***}	15.67 ^{***}	7.23 ^{***}
R ²	0.8365	0.8132	0.6258	0.8528	0.8132	0.6677

† p<0.1, * p<0.05, ** p<0.01, *** p<0.001

그런데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육비 변화율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비 전체를 독립변수로 택한 경우와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나누어 분석한 경우, 모두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력을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 규모의 차이가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자료에 포함된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을 5등분하여 그에 따라 교육비를 따로 산정하였다.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부터 가장 높은 집단까지 차례로 1~5번의 번호를 붙였다. 따라서 1번 집단은 저소득층에 속하고, 3번은 중산층, 5번은 고소득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의 분석을 다시 시도하였는데, <표 3-15~16>은 납입금 지출, <표 3-17~18>은 보충교육비 지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5> 소득 수준에 따른 납입금 변화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Panel A.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수항	5.6780*** (7.17)	5.4910*** (7.03)	5.3924*** (6.69)	5.4149*** (6.88)	5.4110*** (6.79)
여성 초혼 연령	-0.1625*** (-5.54)	-0.1559*** (-5.37)	-0.1527*** (-5.14)	-0.1535*** (-5.27)	-0.1534*** (-5.22)
여성 임금 상승률	0.5127 (1.10)	0.5288 (1.11)	0.4976 (1.04)	0.5441 (1.15)	0.5261 (1.11)
실질 GDP 성장률	-0.0067 (-0.76)	-0.0056 (-0.63)	-0.0032 (-0.32)	-0.0045 (-0.50)	-0.0038 (-0.40)
납입금 변화율 1	-0.1214 (-0.89)				
납입금 변화율 2		0.0209 (0.21)			
납입금 변화율 3			0.0857 (0.49)		
납입금 변화율 4				0.0971 (0.59)	
납입금 변화율 5					0.0703 (0.49)
표본수	24	24	24	24	24
F	17.28***	16.46***	16.68***	16.80***	16.68***
R ²	0.7844	0.7760	0.7783	0.7796	0.7783

† p<0.1, * p<0.05, ** p<0.01, *** p<0.001

〈표 3-16〉 소득 수준에 따른 납입금 변화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Panel B. 조출산율

조출산율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수항	68.6431*** (8.59)	67.0443*** (8.57)	65.8715*** (8.18)	66.3458*** (8.41)	66.4972*** (8.31)
여성 초혼 연령	-2.1150*** (-7.14)	-2.0589*** (-7.09)	-2.0208*** (-6.81)	-2.0368*** (-6.97)	-2.0417*** (-6.91)
여성 임금 상승률	1.5742 (0.33)	1.6723 (0.35)	1.3096 (0.27)	1.8491 (0.39)	1.6898 (0.36)
실질 GDP 성장률	-0.0516 (-0.58)	-0.0427 (-0.48)	-0.0137 (-0.14)	-0.0318 (-0.35)	-0.0291 (-0.30)
납입금 변화율 1	-1.0005 (-0.72)				
납입금 변화율 2		0.3243 (0.33)			
납입금 변화율 3			1.0421 (0.60)		
납입금 변화율 4				0.9486 (0.58)	
납입금 변화율 5					0.5350 (0.37)
표본수	24	24	24	24	24
F	24.42***	23.80***	24.17***	24.13***	23.84***
R ²	0.8371	0.8336	0.8358	0.8356	0.8339

† p<0.1, * p<0.05, ** p<0.01, *** p<0.001

그런데 소득 수준에 따라 분류된 납입금에 대한 분석은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에 대한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공교육비로서의 납입금 변화율 자체는 어떤 소득 집단에 대해서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표 3-17~18>은 다소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분류된 납입금에 대한 분석에서는 납입금의 변화율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교육비로서의 보충교육비에 대한 분석에서는 출산율에 대한 유의한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속하는 가구들이 출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사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은 공교육비 보다는 사교육비에 대한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공교육비의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에 비해 사교육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경제가 발전하기 이전에는 거의 모든 계층에 있어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

에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 정도로 살림을 넉넉하게 꾸려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정에서도 자녀의 교육에 소득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교육비에 대한 투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982년과 2006년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4.80배 성장한 반면, 실질 사교육비는 21.91배 상승하였다. 최근의 상황을 보더라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실질 GDP는 31.18%의 성장률을, 실질 사교육비 지출은 92.33%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표 3-17〉 소득 수준에 따른 보충교육비 변화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Panel A.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수항	6.0941*** (7.83)	5.8700*** (7.96)	6.2157*** (9.22)	5.5656*** (7.15)	5.5050*** (7.03)
여성 초혼 연령	-0.1779*** (-6.16)	-0.1700*** (-6.20)	-0.1827*** (-7.29)	-0.1586*** (-5.48)	-0.1564*** (-5.37)
여성 임금 상승률	0.3306 (0.74)	0.4819 (1.11)	0.3517 (0.90)	0.6390 (1.29)	0.5182 (1.03)
실질 GDP 성장률	-0.0042 (-0.52)	-0.0017 (-0.20)	0.0022 (0.29)	-0.0044 (-0.49)	-0.0058 (-0.64)
보충교육비 변화율 1	-0.1132* (-1.93)				
보충교육비 변화율 2		-0.1871* (-1.96)			
보충교육비 변화율 3			-0.3851*** (-3.13)		
보충교육비 변화율 4				-0.1206 (-0.68)	
보충교육비 변화율 5					0.0128 (0.10)
표본수	24	24	24	24	24
F	20.54***	20.68***	27.34***	16.92***	16.42***
R ²	0.8122	0.8132	0.8520	0.7808	0.7756

† p<0.1, * p<0.05, ** p<0.01, *** p<0.001

〈표 3-18〉 소득 수준에 따른 보충교육비 변화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Panel B.
조출산율

조출산율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수항	73.7226 ^{***} (9.64)	71.1487 ^{***} (9.77)	74.8408 ^{***} (11.49)	68.0231 ^{***} (8.79)	67.0481 ^{***} (8.54)
여성 초혼 연령	-2.3022 ^{***} (-8.12)	-2.2117 ^{***} (-8.17)	-2.3469 ^{***} (-9.70)	-2.0948 ^{***} (-7.28)	-2.0586 ^{***} (-7.06)
여성 임금 상승률	-0.4891 (-0.11)	1.1925 (0.28)	-0.2007 (-0.05)	3.1006 (0.63)	2.0454 (0.41)
실질 GDP 성장률	-0.0275 (-0.34)	-0.0007 (-0.01)	0.0405 (0.55)	-0.0273 (-0.31)	-0.0395 (-0.44)
보충교육비 변화율 1	-1.9073 ^{**} (-2.16)				
보충교육비 변화율 2		-2.0070 ^{**} (-2.13)			
보충교육비 변화율 3			-4.1057 ^{***} (-3.47)		
보충교육비 변화율 4				-1.5481 (-0.88)	
보충교육비 변화율 5					-0.2489 (-0.19)
표본수	24	24	24	24	24
F	30.61 ^{***}	30.39 ^{***}	41.65 ^{***}	24.79 ^{***}	23.69 ^{***}
R ²	0.8657	0.8648	0.8976	0.8392	0.8330

† p<0.1, * p<0.05, ** p<0.01, *** p<0.001

본 분석 결과 자녀 교육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은 공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 보다는 사교육비 지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경제가 성장하기 이전에는 공교육비조차도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상승한 공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크게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교육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가정의 빈곤에 관계없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¹⁰⁾ 그러나 사교육비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규모가 엄청나게 상승해버렸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정들은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10) 저소득층에 대한 공교육비 지원의 한 예를 들면, 2008년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지역 건강 보험료 납부액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여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감면해주는 “2008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및 감면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거시분석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시적인 평균치를 살펴 보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관찰되지만 일반적인 교육비의 증대가 출산율의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은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은 자녀 출산을 망설이게 할 정도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표본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집단에서 사교육비의 급격한 상승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감안하면 공교육비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다는 측면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교육비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 느끼는 사교육에 대한 부담일 수 있다는 것을 거시적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는 주로 거시적인 자료를 사용한 것이므로 보다 미시적인 연구가 뒷받침이 될 때 그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정책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사교육은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해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교육비에 소비하라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게끔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한 혜택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거시 분석 방법론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교육비를 나타내는 변수로써 자녀 1인당 교육비 지출의 변화율을 사용하였지만 이와는 별개로 교육비가 가계의 소비에 있어서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구의 전체 소비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의 자료가 시계열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각각의 독립변수들은 정상성(Stationarity)이 유지되어야 한다. <표 3-19>은 교육비를 나타내어주는 시계열 변수들의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각 변수들의 GDP 디플레이터를 고려한 실질값을 살펴보면, 단위근의 존재를 의미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비정상적(Nonstationary) 시계열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변수의 변화율을 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시계열 자료가 정상적(Stationary)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비를 가구의 소비지출로 나누어 준 비율을 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도 시계열 자료가 정상성을 유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비를 나타내어주는 변수로써 교육비 지출의 실질 변화율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교육비의 단기적인 변화율보다는 중장기적인 변화율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독립 변수에 쓰인 변화율 변수를 1년 변화율 대신에 2년 변화율로 대체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교육비의 변화율 변수를 2년 변화율로 대체한 경우에도 분석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¹¹⁾. 다만 일부의 모형에서는 보충교육비의 변화율이 출산율에 대해 다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사교육비의 상승이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교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였다.

11) 본 분석결과는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연구 책임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받아 볼 수 있다.

〈표 3-19〉 주요 보육·교육비 변수들에 대한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 결과

변수	실질값 (Level)	실질 변화율	소비지출에 대한 비율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1차 차분	-0.3130 [*] (-1.90)	-1.3051 ^{***} (-3.70)	-0.3337 [*] (-1.81)
시차 (Lag)	0.2301 (0.99)	0.1904 (0.80)	0.0807 (0.34)
추세 (Trend)	21.1235 [*] (1.89)	-0.0079 ^{**} (-2.24)	0.0008 (1.50)
절편 (Drift)	102.2589 ^{**} (2.35)	0.2123 ^{***} (3.03)	0.0390 [*] (1.89)
Dickey-Fuller 검정 통계량	-1.898	-3.702 ^{**}	-1.808
MacKinnon p-value	0.6556	0.0222	0.7007
표본수	22	22	22

† p<0.1, * p<0.05, ** p<0.01, *** p<0.001

제4장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미시적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앞장에서는 보육·교육비의 규모 및 연도별 증가 추이를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고, 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거시분석에서는 보육·교육비의 연도별 추이가 출산율에 미치는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보육·교육비 부담에 따른 개별 가구의 출산 행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전화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가구가 느끼고 있는 보육·교육비 부담과 보육·교육비 절감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화 조사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5~39세 기혼 여성 1,500명으로 하였다. 연령대를 25~39세로 한정된 이유는 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출산율이 높은 연령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인 혼인 상태 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을 기혼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연령별·지역별 조사 대상 샘플 수는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나타난 비율에 따라 <표 4-1>과 같이 할당하였다. 조사 대상 샘플은 전국의 전화번호부 자료를 이용하여 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하였다.

〈표 4-1〉 미시 분석을 위한 전화 조사 대상 샘플수

Age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합계
25~29세	114(0.076)	127(0.085)	18(0.012)	259(0.173)
30~34세	263(0.175)	278(0.186)	36(0.024)	577(0.385)
35~39세	305(0.203)	317(0.211)	42(0.028)	664(0.442)
합계	682(0.455)	722(0.481)	96(0.064)	1,500(1.000)

전화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의 수준, 소득 계층별 부담 수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으로부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출 수준으로의 절감을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지출할 보육·교육비에 대해서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향후에 보육비, 유치원비,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선정하여 각 집단에 대하여 전국 평균 수준의 보육·교육비 지출 비용을 알려 주고 그에 대한 부담감 및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비용을 조사하였다.

출산 행태에 관해서는 현재의 출산 의향,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및 부담 정도에 따른 출산 의향, 보육·교육비가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절감될 경우 출산 의향,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보육·교육비가 절감해도 여전히 자녀를 낳을 의향이 없는 이유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자녀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가치관, 사회적 체면의식, 학벌의식에 따른 보육·교육비 지출 및 출산 의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심층 분석을 통해서는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이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절감될 때 자녀 출산 의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지출할 보육·교육비용이 적정한 수준으로 절감될 때 여성들의 출산 의향이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만을 대상으로도 수행하여 보육·교육비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출산 의향을 변화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본다. 또한 자녀를 1명 가지고 있는 여성과 자녀를 2명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도 분석을 수행하여 1자녀에서 2자녀로의 출산 의향과 2자녀에서 3자녀로의 출산 의향에 보육·교육비 절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정의를 통계청 가계 조사의 정의를 따르기로 하였다. 따라서 보육비는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출로 놀이방, 어린이집, 베이비시터, 보육 도우미 아줌마에게 지출한 비용 뿐만 아니라 시댁이나 친정 등 친척에게 맡길 때 지출한 비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보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현장 학습비, 소품비, 선물비용 등 부가 비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시설이나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나 남편이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보육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교육비는 교육 기관 납입금, 보충교육비(사교육비), 교재비를 합한 개념으로 보았으며, 교육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 포함되며 의료비, 의복비, 식품비 등 양육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교육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¹²⁾.

자녀가 있는 경우,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정도, 걱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육·교육비 수준을 질문하였다. 이러한 지출 현황은 자녀의 보육·교육 단계별로 보육비, 유치원 교육비,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대학교 교육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보육·교육비용은 지난 3개월간 자녀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해 지출한 월평균 비용을 응답하게 하였다¹³⁾.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정도는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 대하여 “매우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보통이다,” “부담스럽지 않다,” “매우 부담스럽지 않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걱정수준은 자녀의 보육·교육비가 1인당 월평

12) 전화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교육비를 납입금, 보충교육비, 교재비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납입금, 보충교육비, 교재비를 모두 합한 교육비 전체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13) 조사를 학기초인 3월 17일~28일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계절적인 추가 수요로 인해 연간 평균 비용보다 높은 비용이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균 어느 정도가 되면 적당한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현재에는 지출하고 있지 않으나 가까운 미래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조사하고자 현재 취학 단계로부터 두 단계 이상까지에 대해서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을 알려 주고 그에 대한 부담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육·교육비용을 질문하였다¹⁴⁾. 예를 들어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국 평균 교육 비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부담감 및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비용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를 출산하면 가까운 미래에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비용 및 유치원 비용의 전국 평균 비용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부담감 및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육·교육비용 수준을 질문하였다. 향후에 지출할 보육·교육비에 대한 질문 대상자는 <표 4-3>과 같다.

<표 4-2> 전화 조사에 사용한 보육·교육비 전국 평균 비용

구분	전국 평균 비용	2007년 가격
보육비	156,000원(2002년)	180,000원
유치원 교육비	158,000원(2004년)	170,000원
초등학교 교육비	186,000원(2004년)	200,000원
중학교 교육비	239,000원(2004년)	260,000원
고등학교 교육비	348,000원(2004년)	370,000원
대학이상 교육비	573,000원(2004년)	620,000원

주: 십만원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여 절삭함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2004, 김지경 외,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2004.

14) 교육비 전국 평균 비용은 2004년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비용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07년도 가격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보육비 전국 평균 비용은 2002년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김지경 외(2004)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같은 방법을 통해 2007년 가격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표 4-3〉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비용 질문 대상자

구분	향후 예상 비용					
	보육비	유치원비	초등학교 교육비	중학교 교육비	고등학교 교육비	대학교 교육비
자녀없는 사람(104명)	◎	◎				
미취학+보육서비스/유치원 미이용(371명)	◎	◎	◎			
미취학+보육서비스/유치원 이용(729명)			◎	◎		
초등학교 자녀 있는 사람(740명)				◎	◎	
중학교 자녀 있는 사람(167명)					◎	◎
고등학교 자녀 있는 사람(46명)						◎
질문 응답자 계	475명	475명	1,100명	1,469명	907명	213명

출산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을 질문하고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는 경우 몇 명을 낳을 것인지 질문하였다. 한편, 보육·교육비 절감에 따른 출산 의향을 파악하고자 본인이 걱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으로 보육·교육 비용이 절감될 때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이 어떠한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러한 자녀 출산 의향은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가 감소될 경우와 향후에 지출할 보육·교육비가 감소될 경우 모두 질문하였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과 자녀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파악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심리적 가치, 사회적 체면의식, 학벌의식을 측정하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기타 자녀의 특성에 대하여 자녀수, 자녀 성별, 자녀 연령 등을 질문하였으며 부모의 특성으로서 연령, 학력, 혼인상태, 혼인 지속 기간, 취업 여부, 직업, 월 평균 가구 소득을 질문하였다. 설문을 통해 측정할 주요한 변수를 정리하면 <표 4-4>와 같다. 조사는 2008년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하였으며, 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로 수행하였다.

〈표 4-4〉 미시분석을 위한 주요 측정 변수

구분	변수	
보육·교육비 지출	가구당 보육·교육비 지출액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액	
보육·교육비 부담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 정도(5점 척도)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담 정도(5점 척도)	
출산 의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보육·교육비 수준	
	현재 출산 의향	
	기대 자녀 수	
	보육·교육비 절감에 따른 출산 의향 변화	
자녀 가치관	보육·교육비 절감에도 불구하고 출산 의향에 변화가 없는 이유	
	경제적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식이 크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 - 내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는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사회적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어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 - 자식을 키워봐야 어른이 될 수 있다.
	심리적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룰 수 있다.
	사회적 체면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지 못하면 이웃이나 친지를 볼 낮이 없다. - 내 자식이 다른 집 자식보다 공부를 못하면 창피하다.
	학벌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이 높을수록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결혼을 잘 할 수 있다. - 학력이 높으면 살기 편하다.
자녀 특성	자녀수	
	자녀 성별	
	자녀 연령	
	취학 유무	
	보육 서비스 이용 여부	
가족 특성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부모의 혼인 상태	
	부모의 혼인 지속 기간	
	부모의 취업 여부	
	부모의 직업	
	월 평균 가구 소득	

제2절 기술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부표 1-1> 참조)

전체 조사대상자 1,500명 중 682명(45.5%)이 대도시, 722명(48.1%)이 중소도시, 96

명(6.4%)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는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비율을 기준으로 샘플을 지역별로 할당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여성의 연령은 25~29세가 259명(17.3%), 30~34세가 577명(38.5%), 35~39세가 664명(44.3%)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남편 즉 자녀 아버지의 연령은 여성의 연령대보다 조금 높아 24~29세 73명(4.9%), 30~34세 381명(25.5%), 35~39세 638명(42.7%), 40대 이상 403명(26.9%)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고등학교 졸업 556명(37.1%), 대학교 졸업이상 926명(61.7%)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도 역시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졸업 423명(28.3%), 대학교 졸업 이상이 1,059명(70.8%)으로 여성보다 학력 수준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취업 여성은 585명(39%), 비취업 여성은 915명(6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경우 많은 경우가 사무종사자(53.3%) 혹은 자영업자(18.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경우도 역시 사무종사자(46.7%)와 자영업자(22.9%)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샘플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의 평균은 약 3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응답자를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최저소득층 22.0%(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14.0%(201만원~290만원이하), 중산층 27.8%(291만원~360만원이하), 고소득층 16.2%(361만원~490만원), 최고소득층 20.0%(491만원이상)으로 나누었다.

응답자 중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 104명(6.9%), 1명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425명(28.3%), 2명 824명(54.9%), 3명 이상 147명(9.8%)으로 나타나 절반 정도의 여성들이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또한 향후 추가 출산 의향에 대해 출산 의향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여성이 1,137명(75.8%),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이 363명(24.2%)으로 나타났다. 추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여성들이 1명의 자녀만을 더 낳으려는 의향을 보였다. 1명만을 더 낳으려는 여성은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중 74.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명은 21.8%, 3명 이상은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가)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가구당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은 보육비 350,000원, 유치원비 360,000원, 초등학교 교육비 430,000원, 중학교 교육비 500,000원, 고등학교 교육비 550,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은 보육비 310,000원, 유치원비 320,000원, 초등학교 교육비 320,000원, 중학교 교육비 420,000원, 고등학교 교육비 500,000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보육비에 비해 유치원비 지출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후의 교육 단계에 대해서는 교육 단계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보육·교육비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학력이 높은 수록,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지출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소득층은 최저소득층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부표 2-1>).

한편, 양육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액이 많아 적은 수의 자녀 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또 한 자녀 1인당 높은 비용의 교육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적은 수의 자녀를 낳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5〉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평균

구분	표본수	지출 평균	
보육비	402명	가구당 비용	353,905원
		자녀 1인당 비용	307,600원
유치원비	386명	가구당 비용	359,964원
		자녀 1인당 비용	322,887원
초등학교 교육비	740명	가구당 비용	432,649원
		자녀 1인당 비용	324,574원
중학교 교육비	167명	가구당 비용	496,455원
		자녀 1인당 비용	417,096원
고등학교 교육비	46명	가구당 비용	548,913원
		자녀 1인당 비용	497,283원

15) 만원이하 반올림하여 절삭함.

〈표 4-6〉 양육 자녀 수 별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구분	양육자녀수			계
	1명	2명	3명 이상	
자녀 1인당 보육비 지출	431,500원 (132명)	257,807원 (231명)	179,899원 (38명)	307,600원 (402명)
자녀 1인당 유치원비 지출	369,914원 (58명)	323,222원 (275명)	269,686원 (53명)	322,887원 (386명)
자녀 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	450,693원 (101명)	310,687원 (517명)	278,257원 (120명)	324,574원 (740명)
자녀 1인당 중학교 교육비 지출	581,818원 (11명)	440,631원 (103명)	334,035원 (51명)	417,096원 (167명)
자녀 1인당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525,000원 (6명)	588,043원 (23명)	364,706원 (17명)	497,283원 (46명)

나)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해 높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담감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비에 대해서는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치원비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높은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는 약 75%, 중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는 약 80%, 고등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는 약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

〈표 4-7〉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 정도

(단위: 명, %)

구분	표본수	부담스럽다	보통이다	부담스럽지 않다
보육비	402	277(68.9)	87(21.6)	38(9.5)
유치원비	386	310(80.3)	45(11.7)	31(8.0)
초등학교 교육비	740	562(75.9)	136(18.4)	42(5.7)
중학교 교육비	167	135(80.8)	26(15.6)	6(3.6)
고등학교 교육비	46	42(91.3)	3(6.5)	1(2.2)

이러한 보육·교육비 부담정도는 소득 계층별로 별다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해서도 보육·교육비 부담 정도에 대한 소득 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육·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고소득층 모두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사교육 시설이 많은 도시의 경우 농촌에 비해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 정도(소득계층별)

(단위: 명, %)

구분		부담정도			표본수	χ^2
		부담스럽다	보통이다	부담스럽지 않다		
보육비 지출	최저소득층	66(71.0)	19(20.4)	8(8.6)	93(100)	6.056
	저소득층	44(65.7)	17(25.4)	6(9.0)	67(100)	
	중산층	80(75.5)	16(15.1)	10(9.4)	106(100)	
	고소득층	40(67.8)	14(23.7)	5(8.5)	59(100)	
	최고소득층	39(60.9)	19(29.7)	6(9.4)	64(100)	
유치원비 지출	최저소득층	71(80.7)	10(11.4)	7(8.0)	88	11.752
	저소득층	32(84.2)	3(7.9)	3(7.9)	38	
	중산층	100(85.5)	10(8.5)	7(6.0)	117	
	고소득층	44(81.5)	4(7.4)	6(11.1)	54	
	최고소득층	55(69.6)	17(21.5)	7(8.9)	79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최저소득층	114(77.6)	21(14.3)	12(8.2)	147	6.494
	저소득층	70(78.7)	13(14.6)	6(6.7)	89	
	중산층	164(77.7)	39(18.5)	8(3.8)	211	
	고소득층	87(75.7)	21(18.3)	7(6.1)	115	
	최고소득층	109(73.6)	32(21.6)	7(4.7)	148	
중학교 교육비 지출	최저소득층	32(94.1)	2(5.9)	0(0.0)	34	10.932
	저소득층	14(77.8)	4(22.2)	0(0.0)	18	
	중산층	35(71.4)	11(22.4)	3(6.1)	49	
	고소득층	28(90.3)	2(6.5)	2(3.2)	31	
	최고소득층	25(78.1)	5(15.6)	1(6.3)	32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최저소득층	11(100.0)	0(0.0)	0(0.0)	11	7.951
	저소득층	5(100.0)	0(0.0)	0(0.0)	5	
	중산층	13(86.7)	2(13.3)	0(0.0)	15	
	고소득층	6(100.0)	0(0.0)	0(0.0)	6	
	최고소득층	6(75.0)	1(12.5)	1(12.5)	8	

† p<0.1, *p<0.05, **<0.01, ***<0.001

다) 보육·교육비 적정비용

현재 보육·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 중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육·교육비의 평균 액수는 보육비 160,000원, 유치원비 158,000원, 초등학교 교육비 177,000원, 중학교 교육비 221,000원, 고등학교 교육비 26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정비용은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보다 평균적으로 보육비 155,000원, 유치원비 171,000원, 초등학교 교육비 164,000원, 중학교 교육비 203,000원, 고등학교 교육비 260,000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환산하면 응답자 여성들이 보육·교육비 지출이 현재 지출하고 있는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약 40~50% 감소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한편,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적정 비용을 더 높게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 최고소득층에 속한 사람들은 최저소득층에 속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적정 비용을 대략 2배 정도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정비용과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의 차이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서의 희망 감소율은 현재 지출 수준이 저소득층은 낮고 고소득층은 높은 이유로 인하여 소득계층간에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부표 2-2>).

〈표 4-9〉 보육·교육비 적정비용, 지출비용과의 차이, 희망 감소율

구분	표본수	구분	
보육비	335명	적정비용평균	159,585원
		지출비용과의 차이 평균	155,326원
		희망감소율 평균	46.0%
유치원비	353명	적정비용평균	158,417원
		지출비용과의 차이 평균	171,380원
		희망감소율 평균	49.7%
초등학교 교육비	627명	적정비용평균	177,071원
		지출비용과의 차이 평균	164,542원
		희망감소율 평균	44.3%
중학교 교육비	150명	적정비용평균	221,678원
		지출비용과의 차이 평균	203,940원
		희망감소율 평균	42.3%
고등학교 교육비	42명	적정비용평균	264,167원
		지출비용과의 차이 평균	260,238원
		희망감소율 평균	47.5%

한편, 전체 조사 대상자를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보다 높게 지출하는 사람(평균 이상)과 전국 평균보다 낮게 지출하는 사람(평균 이하)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부표 2-3>).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국 평균 보다 낮게 지출하는 사람 보다 2~4배 정도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교육 단계가 높아질 수록 평균 이상 지출하고 있는 사람과 평균 이하를 지출하고 있는 사람간의 차이는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보육비의 경우 전국 평균 이상을 지출하는 사람이 전국 평균 이하로 지출하는 사람보다 4~5배 더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유치원비의 경우 3~4배, 초등학교 교육비는 3배, 중고등학교 교육비는 2~3배 더 높게 지출하고 있었다.

부담 정도는 평균 이상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 이하로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부담 정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상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의 80~90%가 보육·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평균 이하로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 단계에 대해서는 40~50%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고등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로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도 8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수준에서 감소되기 희망하는 비율도 역시 평균 이상으로 지출하고 있는 사람이 높았다. 평균 이상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지출 수준에서 약 40~50% 절감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평균 이하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30~40% 절감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3.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비용

가) 보육·교육비 전국 평균 지출 수준에 대한 부담 정도

향후 보육·교육비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응답한 보육·교육비 전국 평균 지출에 대한 부담정도는 다음과 같다.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 대해 보육비, 유치원비, 초등학교 교육비, 중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는 약 50% 정도의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비와 대학교 교육비에 대해

서는 이보다 높은 62%와 75%의 사람들이 각각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지출할 보육·교육비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지출 비용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수준은 현재 자신이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며, 향후 지출할 비용에 대한 부담 수준은 자녀의 향후 교육 단계에 대한 전국 평균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이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의 경우 전국 평균 수준으로 제시한 향후 지출 비용에 대해 부담 정도가 낮다고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향후에 지출할 비용에 대한 부담은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부담보다 체감도가 낮다. 이러한 이유도 향후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부담 정도보다 낮게 나타난 원인이라고 파악된다.

〈표 4-10〉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 정도

(단위: 명, %)

구분	표본수	부담스럽다	보통이다	부담스럽지 않다
보육비	475	252(53.1)	150(31.6)	73(15.4)
유치원비	475	257(54.1)	151(31.8)	67(14.1)
초등학교 교육비	1,031	542(52.6)	340(33.0)	149(14.5)
중학교 교육비	1,179	590(50.3)	400(34.1)	183(15.6)
고등학교 교육비	798	497(62.4)	203(25.5)	96(12.1)
대학교 교육비	184	137(74.9)	30(16.4)	16(8.7)

현재 본인이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 정도는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여 소득계층별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 대한 부담정도는 소득 수준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보육비, 유치원비, 초등학교 교육비, 중학교 교육비에 대해 최하위 소득 계층의 약 70%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최상위 소득 계층에서는 약 30% 정도만의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교 평균 교육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최하위 소득 계층 사람들이(각각 약 80%와 90%)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던 반면에, 최상위 소득계층에서는 각각 38%와 56%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담 정도는 소득 계층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4-11〉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 정도(소득계층별)

(단위: 명, %)

구분		부담정도			표본수	χ^2
		부담스럽다	보통이다	부담스럽지 않다		
보육비 지출	최저소득층	85(70.8)	24(20.0)	11(9.2)	120	41.702***
	저소득층	50(63.3)	23(29.1)	6(7.6)	79	
	중산층	52(44.4)	39(33.3)	26(22.2)	117	
	고소득층	29(42.0)	30(43.5)	10(14.5)	69	
	최고소득층	27(34.2)	33(41.8)	19(24.1)	79	
유치원비 지출	최저소득층	84(70.0)	26(21.7)	10(8.3)	120	39.208***
	저소득층	50(63.3)	23(29.1)	6(7.6)	79	
	중산층	56(47.9)	38(32.5)	23(19.7)	117	
	고소득층	33(47.8)	28(40.6)	8(11.6)	69	
	최고소득층	25(31.6)	34(43.0)	20(25.3)	79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최저소득층	174(71.9)	53(21.9)	15(6.2)	242	117.306** *
	저소득층	97(64.7)	45(30.0)	8(5.3)	150	
	중산층	140(51.3)	97(35.5)	36(13.2)	273	
	고소득층	61(40.7)	57(38.0)	32(21.3)	150	
	최고소득층	53(27.9)	82(43.2)	55(28.9)	190	
중학교 교육비 지출	최저소득층	180(71.7)	56(22.3)	15(6.0)	251	137.479** *
	저소득층	93(61.2)	48(31.6)	11(7.2)	152	
	중산층	165(49.8)	128(38.7)	38(11.5)	331	
	고소득층	64(36.6)	68(38.9)	43(24.6)	175	
	최고소득층	66(29.3)	89(39.6)	70(31.1)	225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최저소득층	131(82.4)	23(14.5)	5(3.1)	159	96.294***
	저소득층	70(76.9)	17(18.7)	4(4.4)	91	
	중산층	155(68.6)	48(21.2)	23(10.2)	226	
	고소득층	61(47.3)	44(34.1)	24(18.6)	129	
	최고소득층	61(38.1)	62(38.8)	37(23.1)	160	
대학교 교육비 지출	최저소득층	34(89.5)	3(7.9)	1(2.6)	38	17.912*
	저소득층	16(80.0)	4(20.0)	0(0.0)	20	
	중산층	41(78.8)	8(15.4)	3(5.8)	52	
	고소득층	22(66.7)	7(21.2)	4(12.1)	33	
	최고소득층	20(55.6)	8(22.2)	8(22.2)	36	

† p<0.1, *p<0.05, **<0.01, ***<0.001

나) 향후 보육·교육비 적정비용

향후 지출할 보육·교육비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한 액수는 평균적으로 보육비 114,000원, 유치원비 112,000원, 초등학교 교육비 140,000원, 중학교 교육비 177,000원, 고등학교 교육비 233,000원, 대학교 교육비 40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수준에서 보육비 66,000원, 유치원비 58,000원, 초등학교 교육비 60,000원, 중학교 교육비 83,000원, 고등학교 교육비 137,000원, 대학교 교육비 402,000원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절감 수준을 비율로 환산하면 전국 평균비용에서 약 30~35% 절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비와 유치원비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 지출 비용에서 약 35% 절감된 수준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는 약 30% 절감된 수준을,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는 약 35% 절감된 수준을 희망하고 있었다.

〈표 4-12〉 향후 보육·교육비 적정비용, 전국 평균 비용과의 차이, 희망 감소율

구분	표본수	구분	
보육비	475명	적정비용	114,049원
		평균비용과의 차이	65,951원
		희망감소율	36.6%
유치원비	475명	적정비용	111,938원
		평균비용과의 차이	58,062원
		희망감소율	34.2%
초등학교 교육비	1,031명	적정비용	140,351원
		평균비용과의 차이	59,649원
		희망감소율	29.8%
중학교 교육비	1,179	적정비용	177,036
		평균비용과의 차이	82,964원
		희망감소율	31.9%
고등학교 교육비	798명	적정비용	233,291원
		평균비용과의 차이	136,709원
		희망감소율	36.9%
대학교 교육비	184명	적정비용	402,472원
		평균비용과의 차이	217,528원
		희망감소율	35.1%

전국 평균 비용으로부터 희망하는 절감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소득층의 경우, 전국 평균비용으로부터 약 30%의 감소를 희망하고 있었던 반면, 최저소득층은 약 40%의 감소를 희망하고 있었다. 더구나 초등학교 교육비의 경우 최고 소득층이 평균 비용에서 약 18% 절감을 원한 반면 최하 소득층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약 40% 절감 수준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간의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부표 2-4>).

4. 현재 자녀 출산 의향

가) 전체 여성

전체 응답자의 약 2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7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은 소득 계층별로 별다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약간 낮은 출산 의향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 의향을 보였다. 한편, 지역별, 어머니의 취업여부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자녀 출산 의향은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수,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없는 여성 중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자녀 1명 있는 경우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은 약 4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비율은 9.2%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적어도 1명의 자녀는 반드시 낳으려는 경향이 강하며 2명의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여성들이 계획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은 희박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 의향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자녀출산 의향(전체 여성)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주)}	계
전체		363(24.2)	1,137(75.8)	1,500(100)
소득수준	최저소득층	77(24.1)	243(75.9)	320
	저소득층	57(27.9)	147(72.1)	204
	중산층	87(21.5)	317(78.5)	404
	고소득층	53(22.6)	182(77.4)	235
	최고소득층	79(27.1)	212(72.9)	291
지역	대도시	170(24.9)	512(75.1)	682
	중소도시	170(23.5)	552(76.5)	722
	농촌	23(24.0)	73(76.0)	96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중	143(24.4)	442(75.6)	585
	비취업중	220(24.0)	695(76.0)	915
어머니 학력	중졸	0(0)	18(100.0)	18
	고졸	111(20.0)	445(80.0)	556
	대졸	230(26.6)	634(73.4)	864
	대학원졸	22(35.5)	40(64.5)	62
양육 자녀수	없음	93(89.4)	11(10.6)	104
	1명	185(43.5)	240(56.5)	425
	2명	76(9.2)	748(90.8)	824
	3명 이상	9(6.1)	138(93.9)	147
어머니 연령	25~29세	144(55.6)	115(44.4)	259
	30~34세	158(27.4)	419(72.6)	577
	35~39세	61(9.2)	603(90.8)	664

주: “없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임.

현재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 1명을 낳겠다고 응답한 여성이 전체의 7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명을 낳겠다고 응답한 여성은 21.8%, 3명 이상을 낳겠다고 응답한 여성은 4.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 자녀 수는 소득 수준, 지역, 어머니의 취업여부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대 자녀 수는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수,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 약 40% 정도가 1명의 자녀를, 약 50% 정도가 2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현재 기대자녀 수(전체 여성)

(단위: 명, %)

구분		자녀수				계
		1명	2명	3명	4명 이상	
전체		269(74.1)	79(21.8)	13(3.6)	2(0.6)	363
소득수준	최저소득층	60(77.9)	14(18.2)	3(3.9)	-	77
	저소득층	43(75.4)	12(21.1)	2(3.5)	-	57
	중산층	59(67.8)	22(25.3)	5(5.7)	1(1.1)	87
	고소득층	36(67.9)	15(28.3)	1(1.9)	1(1.9)	53
	최고소득층	62(78.5)	15(19.0)	2(2.5)	-	79
지역	대도시	119(70.0)	44(25.9)	6(3.5)	1(0.6)	170
	중소도시	132(77.6)	32(18.8)	5(2.9)	1(0.6)	170
	농촌	18(78.3)	3(13.0)	2(8.7)	-	23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중	105(73.4)	34(23.8)	3(2.1)	1(0.7)	143
	비취업중	164(74.5)	45(20.5)	10(4.5)	1(0.5)	220
어머니 학력	고졸	89(80.2)	15(13.5)	6(5.4)	1(0.9)	111
	대졸	165(71.7)	57(24.8)	7(3.0)	1(0.4)	230
	대학원졸	15(68.2)	7(31.8)	-	-	22
양육 자녀수	없음	39(41.9)	48(51.6)	5(5.4)	1(1.1)	93
	1명	157(84.9)	25(13.5)	3(1.6)	-	185
	2명	66(86.8)	6(7.9)	3(3.9)	1(1.3)	76
	3명 이상	7(77.8)	-	2(22.2)	-	9
어머니 연령	25~29세	93(64.6)	45(31.3)	6(4.2)	-	144
	30~34세	122(77.2)	28(17.7)	7(4.4)	1(0.6)	158
	35~39세	54(88.5)	6(9.8)	-	1(1.6)	61

나) 양육 자녀 수에 따른 출산 의향

현재 1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 의향을 분석해 본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361만원에서 490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여성이 다른 소득 계층 여성보다 1명 이상의 추가적인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1명 이상의 추가적인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이 낮았다. 역시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1명 이상의 추가적인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이 낮았다. 반면에,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1명 이상의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이 높았으며, 학력이 높은 여성이 1명 이상의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고소득층 여성, 취업 여성, 연령이 높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2명 이상의 추가적인 자녀를 낳으려는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약 85%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1명의 자녀만을 더 낳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자녀를 1명 양육하고 있는 여성과 자녀를 2명 양육하고 있는 여성 모두에게서 관찰되었다. 역시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1명의 자녀만을 계획하고 있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1명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경우 1명만의 자녀를 더 낳으려는 경향은 최고소득층과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최고소득층과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의 경우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비용을 높게 지출하고 있어서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지려는 경향이 다른 비교 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2명 있으면서 자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경우 추가적으로 1명의 자녀만을 더 낳으려는 경향은 취업여성들의 경우가 비취업여성보다 더 높았다. 일과 양육의 양립 문제로 인하여 취업 여성들은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표 4-15〉 자녀출산 의향(양육자녀 1명인 경우)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계
전체		185(43.5)	240(56.5)	425
소득수준	최저소득층	38(43.2)	50(56.8)	88
	저소득층	37(53.6)	32(46.4)	69
	중산층	44(44.9)	54(55.1)	98
	고소득층	25(35.7)	45(64.3)	70
	최고소득층	37(42.5)	50(57.5)	87
지역	대도시	86(41.3)	122(58.7)	208
	중소도시	84(44.9)	103(55.1)	187
	농촌	15(50.0)	15(50.0)	30

〈표 4-15〉 계속

구분		있다	없다	계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중	63(36.2)	111(63.8)	174
	비취업중	122(48.6)	129(51.4)	251
어머니 학력	중졸	0(0.0)	5(100.0)	5
	고졸	49(37.7)	81(62.3)	130
	대졸	121(46.0)	142(54.0)	263
	대학원졸	15(55.6)	12(44.4)	27
어머니 연령	25~29세	73(65.8)	38(34.2)	111
	30~34세	84(45.2)	102(54.8)	186
	35~39세	28(21.9)	100(78.1)	128

주: “없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임.

〈표 4-16〉 자녀출산 의향(양육자녀 2명인 경우)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계
전체		76(9.2)	748(90.8)	824
소득수준	최저소득층	27(15.3)	149(84.7)	176
	저소득층	10(9.5)	95(90.5)	105
	중산층	17(7.1)	222(92.9)	239
	고소득층	53.9()	124(96.1)	129
	최고소득층	15(10.0)	135(90.0)	150
지역	대도시	27(7.7)	325(92.3)	352
	중소도시	46(10.9)	376(89.1)	422
	농촌	3(6.0)	47(94.0)	50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중	24(7.9)	280(92.1)	304
	비취업중	52(10.0)	468(90.0)	520
어머니 학력	중졸	0(0.0)	11(100.0)	11
	고졸	41(12.4)	289(87.6)	330
	대졸	34(7.5)	421(92.5)	455
	대학원졸	1(3.6)	27(96.4)	28
어머니 연령	25~29세	20(23.3)	66(76.7)	86
	30~34세	35(10.9)	385(89.1)	320
	35~39세	21(5.0)	397(95.0)	418

주: “없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임.

〈표 4-17〉 현재 기대자녀 수(자녀양육 1명인 경우)

(단위: 명, %)

구분		기대 자녀수			계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157 (84.9)	25 (13.5)	3 (1.6)	185
소득수준	최저소득층	32 (84.2)	5 (13.2)	1 (2.6)	38
	저소득층	31 (83.8)	6 (16.2)	0 (0.0)	37
	중산층	36 (81.8)	6 (13.6)	2 (4.5)	44
	고소득층	21 (84.0)	4 (16.0)	0 (0.0)	25
	최고소득층	33 (89.2)	4 (10.8)	0 (0.0)	37
지역	대도시	74 (86.0)	10 (11.6)	2 (2.3)	86
	중소도시	70 (83.3)	13 (15.5)	1 (1.2)	84
	농촌	13 (86.7)	2 (13.3)	0 (0.0)	15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중	51 (81.0)	11 (17.5)	1 (1.6)	63
	비취업중	106 (86.9)	14 (11.5)	2 (1.6)	122
어머니 학력	중졸	0 (0.0)	0 (0.0)	0 (0.0)	0
	고졸	40 (81.6)	7 (14.3)	2 (4.1)	49
	대졸	104 (86.0)	16 (13.2)	1 (0.8)	121
	대학원졸	13 (86.7)	2 (13.3)	0 (0.0)	15
어머니 연령	25~29세	56 (76.7)	17 (23.3)	0 (0.0)	73
	30~34세	75 (89.3)	6 (7.1)	3 (3.6)	84
	35~39세	26 (92.9)	2 (7.1)	0 (0.0)	28

〈표 4-18〉 현재 기대자녀 수(자녀양육 2명인 경우)

(단위: 명, %)

구분		기대 자녀수			계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66 (86.8)	6 (7.9)	4 (5.3)	76
소득수준	최저소득층	23 (85.2)	3 (11.1)	1 (3.7)	27
	저소득층	10 (100.0)	0 (0.0)	0 (0.0)	10
	중산층	13 (76.5)	2 (11.8)	2 (11.8)	17
	고소득층	5 (100.0)	0 (0.0)	0 (0.0)	5
	최고소득층	13 (86.7)	1 (6.7)	1 (6.7)	15

〈표 4-18〉 계속

구분		기대 자녀수			계
		1명	2명	3명 이상	
지역	대도시	22 (81.5)	3 (11.1)	2 (7.4)	27
	중소도시	42 (91.3)	3 (6.5)	1 (2.2)	46
	농촌	2 (66.7)	0 (0.0)	1 (33.3)	3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중	23 (95.8)	0 (0.0)	1 (4.2)	24
	비취업중	43 (82.7)	6 (11.5)	3 (5.8)	52
어머니 학력	중졸	0 (0.0)	0 (0.0)	0 (0.0)	0
	고졸	38 (92.7)	0 (0.0)	3 (7.3)	41
	대졸	27 (79.4)	6 (17.6)	1 (2.9)	34
	대학원졸	1 (100.0)	0 (0.0)	0 (0.0)	1
어머니 연령	25~29세	18 (90.0)	1 (5.0)	1 (5.0)	20
	30~34세	31 (88.6)	2 (5.7)	2 (5.7)	35
	35~39세	17 (81.0)	3 (14.3)	1 (4.8)	21

다)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

보육·교육비를 전국 평균 비용보다 높게 지출하는 그룹과 전국 평균 비용보다 낮게 지출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출산 의향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 사이에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과 출산 의향이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와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4-19〉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전체 여성)

(단위: 명, %)

구분	지출수준	출산 의향			χ^2
		있다	없다	계	
보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27(23.1)	90(76.9)	117(100)	0.231
	전국평균이상	72(25.4)	212(74.6)	284(100)	
유치원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7(10.8)	58(89.2)	65(100)	0.881
	전국평균이상	49(15.3)	272(84.7)	321(100)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15(9.3)	147(90.7)	162(100)	0.199
	전국평균이상	47(8.2)	529(91.8)	576(100)	

〈표 4-19〉 계속

구분	지출수준	출산 의향			χ^2
		있다	없다	계	
중학교 교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2(4.4)	43(95.6)	45(100)	0.006
	전국평균이상	5(4.2)	115(95.8)	120(100)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1(6.7)	14(93.3)	15(100)	1.000
	전국평균이상	2(6.5)	29(93.5)	31(100)	

† p<0.1, *p<0.05, **<0.01, ***<0.001

〈표 4-20〉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양육자녀 1명)

(단위: 명, %)

구분	지출수준	출산 의향			χ^2
		있다	없다	계	
보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15(50.0)	15(50.0)	30	0.143
	전국평균이상	55(53.9)	47(46.1)	102	
유치원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1(33.3)	2(66.7)	3	0.084
	전국평균이상	23(41.8)	32(58.2)	55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2(18.2)	9(81.8)	11	0.016
	전국평균이상	15(16.7)	75(83.3)	90	
중학교 교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0(0.0)	1(100.0)	1	-
	전국평균이상	0(0.0)	10(100.0)	10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0(0.0)	3(100.0)	3	-
	전국평균이상	0(0.0)	3(100.0)	3	

† p<0.1, *p<0.05, **<0.01, ***<0.001

〈표 4-21〉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양육자녀 2명)

(단위: 명, %)

구분	지출수준	출산 의향			χ^2
		있다	없다	계	
보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12(17.4)	57(82.6)	69	3.100
	전국평균이상	15(9.3)	147(90.7)	162	
유치원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4(7.8)	47(92.2)	51	0.190
	전국평균이상	22(9.8)	202(90.2)	224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12(11.0)	97(89.0)	109	2.072
	전국평균이상	28(6.9)	380(93.1)	408	
중학교 교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1(4.8)	20(95.2)	21	0.055
	전국평균이상	3(3.7)	79(96.3)	82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0(0.0)	5(100.0)	5	0.608
	전국평균이상	2(11.1)	16(88.9)	18	

† p<0.1, *p<0.05, **<0.01, ***<0.001

이러한 사실은 보육·교육비를 평균 이상으로 지출하는 집단이든 평균 이하로 지출하는 집단이든 출산 의향에는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출산 의향은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라 별다른 차별성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육·교육비를 높게 지출하는 집단이든 낮게 지출하는 집단이든 자녀 출산 의향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보육·교육비 부담이 각 가정에 더욱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보육·교육비 지출이 크어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는 하나쯤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에 자녀에 대한 높은 비용으로 말미암아 자녀는 출산하되 하나의 자녀만을 낳게 되는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다.

라) 보육·교육비 부담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

출산 의향은 현재 보육·교육비 부담 수준별로도 별다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를 1명 양육하고 있는 여성과 자녀를 2명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카이스퀘어 검증결과에서도 보육·교육비 부담 수준별로 자녀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보육·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집단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집단과 비슷한 정도의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역시 보육·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가정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하여 적은 수의 자녀 출산을 유도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표 4-22〉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에 따른 출산 의향(전체 여성)

(단위: 명, %)

구분	부담수준	출산 의향			χ^2
		있다	없다	계	
보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67(24.2)	210(75.8)	277	0.701
	보통이다	24(27.6)	63(72.4)	87	
	부담스럽지 않다	8(21.1)	30(78.9)	38	
유치원비 지출	부담스럽다	42(13.5)	268(86.5)	310	1.390
	보통이다	9(20.0)	36(80.0)	45	
	부담스럽지 않다	5(16.1)	26(83.9)	31	

〈표 4-22〉 계속

구분	부담수준	출산 의향			χ^2
		있다	없다	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49(8.7)	513(91.3)	562	0.815
	보통이다	11(8.1)	125(91.9)	136	
	부담스럽지 않다	2(4.8)	40(95.2)	42	
중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7(5.2)	128(94.8)	135	1.732
	보통이다	0(0.0)	26(100.0)	26	
	부담스럽지 않다	0(0.0)	6(100.0)	6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3(7.1)	39(92.9)	42	0.306
	보통이다	0(0.0)	3(100.0)	3	
	부담스럽지 않다	0(0.0)	1(100.0)	1	

† p<0.1, *p<0.05, **<0.01, ***<0.001

〈표 4-23〉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에 따른 출산 의향(양육자녀 1명)

(단위: 명, %)

구분	부담수준	출산 의향			χ^2
		있다	없다	계	
보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46(54.1)	39(45.9)	85	0.183
	보통이다	18(50.0)	18(50.0)	36	
	부담스럽지 않다	6(54.5)	5(45.5)	11	
유치원비 지출	부담스럽다	17(39.5)	26(60.5)	43	0.966
	보통이다	5(55.6)	4(44.4)	9	
	부담스럽지 않다	2(33.3)	4(66.7)	6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11(15.1)	62(84.9)	73	0.594
	보통이다	5(21.7)	18(78.3)	23	
	부담스럽지 않다	1(20.0)	4(80.0)	5	
중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	7(100.0)	7	-
	보통이다	-	4(100.0)	4	
	부담스럽지 않다	-	-	-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	6(100.0)	6	-
	보통이다	-	-	-	
	부담스럽지 않다	-	-	-	

† p<0.1, *p<0.05, **<0.01, ***<0.001

〈표 4-24〉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에 따른 출산 의향(양육자녀 2명)

(단위: 명, %)

구분	부담수준	출산 의향			χ^2
		있다	없다	계	
보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19(11.2)	150(88.8)	169	0.473
	보통이다	6(14.6)	35(85.4)	41	
	부담스럽지 않다	2(9.5)	19(90.5)	21	
유치원비 지출	부담스럽다	21(9.3)	204(90.7)	225	0.670
	보통이다	4(12.5)	28(87.5)	32	
	부담스럽지 않다	1(5.6)	17(94.4)	18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33(8.4)	362(91.6)	395	1.162
	보통이다	6(6.3)	89(93.7)	95	
	부담스럽지 않다	1(3.6)	27(96.4)	28	
중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4(4.7)	81(95.3)	85	0.930
	보통이다	0(0.0)	15(100.0)	15	
	부담스럽지 않다	0(0.0)	4(100.0)	4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2(8.7)	21(91.3)	23	-
	보통이다	-	-	-	
	부담스럽지 않다	-	-	-	

† p<0.1, *p<0.05, **<0.01, ***<0.001

한편, 가구당 보육비와 가구당 유치원비는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는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사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⁶⁾ 이러한 보육·교육비 지출과 자녀 출산 의향간의 관계는 소득 수준이나 양육 자녀 수 등 두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교차 분석만으로는 정확한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육·교육비 지출과 자녀 출산 의향간의 관계는 다음 절에서의 심층 분석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16) 중학교 교육비와 고등학교 교육비의 경우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빈도가 극히 낮아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의 평균 지출 비용은 의미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25〉 자녀 출산 의향별 보육·교육비 지출 평균

(단위: 원, 명)

구분	구분	자녀출산의향		계
		있다	없다	
가구당 비용	가구당 보육비 지출 평균	421,475(9)	331,755(302)	353,905(401)
	가구당 유치원비 지출 평균	371,875(56)	357,942(330)	359,964(386)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평균	362,032(62)	439,126(676)	432,649(738)
	가구당 중학교 교육비 지출 평균	564,286(7)	493,449(158)	496,455(165)
	가구당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평균	700,000(3)	538,372(43)	548,913(46)
자녀 1인당 비용	자녀 1인당 보육비 지출 평균	389,551(99)	280,736(302)	307,600(401)
	자녀 1인당 유치원비 지출 평균	338,304(56)	320,271(330)	322,887(386)
	자녀 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평균	307,032(62)	326,183(676)	324,574(738)
	자녀 1인당 중학교 교육비 지출 평균	485,714(7)	414,056(158)	417,096(165)
	자녀 1인당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평균	700,000(3)	483,104(43)	497,283(46)

5. 보육·교육비 절감에 따른 출산 의향 변화

가)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1) 전체 여성의 출산 의향 변화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소한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보육비 44.1%, 유치원비 32.7%, 초등학교 교육비 25.8%, 중학교 교육비 19.8%, 고등학교 교육비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교육 기관으로 갈수록 출산 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상위 교육 기관으로 갈수록 교육비가 높아지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위 교육기관에 대해 응답한 사람이 연령이 높고 자녀 수가 1명 이상인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자녀 출산 의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들이 희망하는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서의 감소 비율은 전반적으로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비용으로 감소하면 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희망하는 비용 감소율은 적정비용으로 감소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여성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가 본

인이 생각하는 적정수준으로 절감하면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약 15~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육비 28%, 유치원비 23.6%, 초등학교 교육비 19.3% 중학교 교육비 17.5%, 고등학교 교육비 23.3%). 이러한 비율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보육·교육비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을 파악한 비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 비율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비슷하게 약 50% 절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보육·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의향(전체여성)

(단위: %, 명, 원)

구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지출비용과 적정비용간의 차이 평균
보육비	있다	178(44.1)	49.1	193,508
	없다	226(55.9)	43.2	127,415
	계	404(100)	46.0	165,697
유치원비	있다	130(32.7)	50.0	176,691
	없다	267(67.2)	49.5	168,588
	계	397(100)	49.7	171,380
초등학교 교육비	있다	191(25.8)	49.3	176,276
	없다	549(74.2)	42.5	160,058
	계	740(100)	44.3	164,542
중학교 교육비	있다	33(19.8)	46.8	257,969
	없다	134(80.2)	41.1	189,412
	계	167(100)	42.3	203,940
고등학교 교육비	있다	11(23.9)	60.9	316,666
	없다	35(76.1)	43.3	242,604
	계	46(100)	47.5	260,238

〈표 4-27〉 보육·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의향(출산의향 없는 여성)

(단위: 명, %, 원)

구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지출비용과 적정비용간의 차이 평균
보육비 지출	있다	84(28.2)	54.9	190,367
	없다	214(71.8)	43.4	118,287
	계	298(100)	47.0	140,021
유치원비 지출	있다	78(23.6)	51.1	178,040
	없다	252(76.4)	49.9	169,735
	계	330(100)	50.2	171,791

〈표 4-27〉 계속

구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지출비용과 적정비용간의 차이 평균
초등학교	있다	131(19.3)	51.6	183,927
	없다	547(80.7)	42.5	160,431
교육비지출	계	678(100)	44.4	165,294
중학교	있다	28(17.5)	47.9	257,593
	없다	132(82.5)	41.1	189,658
교육비지출	계	160(100)	42.4	202,396
고등학교	있다	10(23.3)	62.9	318,519
	없다	33(76.7)	44.2	242,111
교육비지출	계	43(100)	48.6	259,744

(2) 양육 자녀 수에 따른 출산 의향 변화

자녀가 1명만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용 감소에 따른 출산 의향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 보다 높았다. 보육비 지출 여성의 경우 전체 여성 보다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이 자녀 출산 의향이 67% 더 높았으며, 유치원비 지출 여성은 87%,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은 52% 더 높았다¹⁷⁾. 전체 여성은 자녀를 1명 가지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녀를 2명 혹은 그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보육·교육비 비용 절감 효과를 논외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자녀를 2명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1명만 가지고 있을 때 자녀 출산 의향이 더 높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자녀 1명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출산 의향이 자녀 2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포함된 전체 여성 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희망하는 비용 감소율은 전체 여성과 비슷하게 약 50%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가 1명만 있으면서 더 이상 자녀 출산을 희망하지 않는 여성은 자녀를 1명 가지고 있는 전체 여성과 비교하여 보육·교육비 지출 감소 시 자녀 출산 희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희망하는 비용 감소율은 전체 여성이 희망하고 있는 비율인 50%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할 의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

17) 중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와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자녀 1명만 있는 여성의 수가 극히 적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육·교육비 절감 정책이 더 적극적인 규모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자녀를 2명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녀 1명을 가지고 있는 여성과 비교하여 적정 비용 절감 시 자녀 출산 의향이 약 절반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육비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 1명을 가지고 있을 때와 비교하여 자녀 2명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작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즉, 여성들이 자녀를 2명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미 적정 자녀 수에 도달한 경우가 많아 자녀에 소요되는 보육·교육비가 절감 되어도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녀를 2명 가지고 있는 여성이 희망하는 비용 감소율도 전체 여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약 50% 절감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더 이상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여성의 경우 보육·교육비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은 자녀 2명을 가지고 있는 전체 여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육비 절감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이들이 희망하는 비용 감소 비율은 자녀를 2명 양육하고 있는 전체 여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약 50% 정도의 절감을 희망하고 있었다.

〈표 4-28〉 보육·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의향(전체여성, 양육자녀1명)
(단위: 명, %)

구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지출비용과 적정비용간의 차이 평균
보육비	있다	97(73.5)	47.9
	없다	35(26.5)	36.6
	계	132(100)	45.3
유치원비	있다	37(61.7)	47.5
	없다	23(38.3)	45.4
	계	60(100)	46.7

〈표 4-28〉 계속

구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지출비용과 적정비용간의 차이 평균
초등학교 교육비	있다	40(39.6)	52.8
	없다	61(60.4)	48.6
	계	101(100)	50.4
중학교 교육비	있다	1(9.1)	60.0
	없다	10(90.9)	38.4
	계	11(100)	40.5
고등학교 교육비	있다	3(50)	50.0
	없다	3(50)	30.0
	계	6(100)	40.0

〈표 4-29〉 보육 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출산의향 없는 여성, 양육자녀 1명
(단위: 명, %, 원)

구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출산 의향	비용감소 평균	지출비용과 적정비용간의 차이 평균
보육비 지출	있다	29(46.8)	56.5
	없다	33(53.2)	36.6
	계	62(100)	46.4
유치원비 지출	있다	17(50.0)	48.6
	없다	17(50.0)	48.6
	계	34(100)	48.6
초등학교 교육비지출	있다	23(27.4)	60.3
	없다	61(72.6)	48.7
	계	84(100)	52.2
중학교 교육비지출	있다	1(9.1)	60.0
	없다	10(90.9)	38.4
	계	11(100)	40.5
고등학교 교육비지출	있다	3(50.0)	50.0
	없다	3(50.0)	30.0
	계	6(100)	40.0

〈표 4-30〉 보육·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의향(전체여성, 양육자녀 2명)
(단위: 명, %, 원)

구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지출비용과 적정비용간의 차이 평균
보육비	있다	76(32.9)	50.1	153,000
	없다	155(67.1)	43.2	115,091
	계	231(100)	45.5	127,854
유치원비	있다	83(30.2)	51.0	169,152
	없다	192(69.8)	50.0	176,018
	계	275(100)	50.3	173,839
초등학교 교육비	있다	138(26.6)	47.9	161,349
	없다	380(73.4)	41.7	150,039
	계	518(100)	43.5	153,249
중학교 교육비	있다	25(24.0)	47.6	287,000
	없다	79(76.0)	39.7	185,915
	계	104(100)	41.8	212,240
고등학교 교육비	있다	7(30.4)	59.8	316,667
	없다	16(69.4)	54.6	337,500
	계	23(100)	56.0	331,818

〈표 4-31〉 보육·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의향(출산의향 없는 여성, 양육자녀 2명)

(단위: 명, %, 원)

구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지출비용과 적정비용간의 차이 평균
보육비 지출	있다	51(25.0)	53.2	159,265
	없다	153(75.0)	43.2	111,723
	계	204(100)	45.9	124,737
유치원비 지출	있다	60(24.1)	51.2	172,333
	없다	189(75.9)	50.2	177,220
	계	249(100)	50.4	175,982
초등학교 교육비지출	있다	99(20.7)	48.9	168,247
	없다	379(79.3)	41.7	150,354
	계	(100)	43.3	154,277
중학교 교육비지출	있다	22(22.0)	47.4	278,409
	없다	78(78.0)	39.6	185,714
	계	100(100)	41.5	207,880
고등학교 교육비지출	있다	6(28.6)	63.2	320,000
	없다	15(71.4)	55.5	330,000
	계	21(100)	57.4	327,500

나) 향후 보육·교육비 지출

(1) 전체 여성

향후 지출할 보육·교육비가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소할 때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보육비, 유치원비, 초등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의 약 50~60%, 중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의 약 30~40%, 대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의 약 2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보육·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람이 응답한 비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보육·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보다 보육·교육비 절감에 따른 출산 의향이 높은 이유는 아직 해당 교육 단계에 대한 지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실제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사람보다 적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희망하는 전국 평균 비용에서의 보육·교육비 감소비율은 3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희망 감소율은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고 응답한 여성과 여전히 자녀를 출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성 사이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향후 지출할 보육·교육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절감할 때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 보다 낮았다. 보육비, 유치원비, 초등학교 교육비의 경우 약 30%,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비의 경우 약 20%의 여성들이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은 없지만 향후 지출할 보육·교육비가 절감되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응답한 향후 보육·교육비 희망 감소율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비슷하여 약 3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보육·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전체 여성
(단위: 명, %)

구분	향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보육비	있다	272(57.4)	37.8
	없다	202(42.6)	35.2
	계	474(100)	36.7
유치원비	있다	272(57.4)	36.5
	없다	202(42.6)	31.2
	계	474(100)	34.2
초등학교 교육비	있다	527(51.2)	29.4
	없다	503(48.8)	30.4
	계	1,030(100)	29.9
중학교 교육비	있다	438(37.2)	31.1
	없다	741(62.8)	32.4
	계	1,179(100)	31.9
고등학교 교육비	있다	232(29.1)	38.5
	없다	566(70.9)	36.3
	계	798(100)	36.9
대학교 교육비	있다	44(23.9)	40.0
	없다	140(76.1)	33.5
	계	184(100)	35.1

〈표 4-33〉 보육·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출산 의향 없는 여성)
(단위: 명, %)

구분	향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보육비 예상 지출	있다	86(30.8)	38.4%
	없다	193(69.2)	35.4%
	계	279(100)	36.2%
유치원비 예상지출	있다	86(30.8)	37.0%
	없다	193(69.2)	31.1%
	계	279(100)	32.7%
초등학교 교육비 예상지출	있다	219(31.2)	31.2%
	없다	484(68.8)	30.5%
	계	703(100)	28.7%
중학교 교육비 예상지출	있다	266(26.7)	31.2%
	없다	729(73.3)	32.5%
	계	995(100)	27.8%
고등학교 교육비 예상지출	있다	171(23.3)	38.0%
	없다	562(76.7)	36.3%
	계	733(100)	25.8%
대학교 교육비 예상지출	있다	39(22.0)	40.0%
	없다	138(78.0)	33.5%
	계	177(100)	22.9%

(2) 양육 자녀 수에 따른 출산 의향

자녀 1명만을 갖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향후 보육·교육비 절감에 따른 자녀 출산 의향은 전체 여성과 비교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현재 지출 비용 절감에 따른 출산 의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 여성은 자녀를 2명 이상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어 자녀를 1명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 비해 이미 적정 자녀 수에 도달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향후 보육·교육비 절감에도 불구하고 이미 적정 자녀 수에 도달한 여성들이 많이 포함된 전체 여성들의 출산 의향이 자녀 1명만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 1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희망하는 향후 보육·교육비 희망 감소율은 전체 여성의 응답과 유사한 것으로 약 30~40%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자녀를 1명만 갖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경우, 향후 보육·교육비 절감에 따른 자녀 출산 의향은 자녀 1명을 갖고 있는 전체 여성과 비교하여 약 40% 정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희망하는 전국 평균 비용에서의 감소율은 전체 여성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이 약 3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향후 보육·교육비 절감에 따른 자녀 출산 의향은 자녀 1명 있는 여성과 비교하여 약 절반 정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출 비용 절감에 따른 출산 의향에서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자녀가 이미 2명 있는 경우에는 보육·교육비 절감에도 불구하고 자녀 출산 의향이 현격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2명 있는 여성들이 희망하는 전국 평균 비용에서의 감소 비율은 전체 여성과 비슷하게 약 3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가 2명 있으면서 추가적인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경우, 향후 보육·교육비 절감에 따른 출산 의향은 자녀가 2명 있는 전체 여성과 비교하여 그다지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자녀가 1명 있는 전체 여성과 자녀가 1명 있으면서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 사이에 보육·교육비 절감에 따른 출산 의향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과 대조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이미 2명 있는 여성의 경

우 더 이상 추가적인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이 희망하는 전국 평균 비용에서의 감소 비율은 자녀가 1명 있는 여성과 비슷한 수준인 약 30~40%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보육·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 (전체여성, 양육 자녀 1명)

(단위: 명, %)

구분	향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보육비	있다	91(73.4)	39.3
	없다	33(26.6)	32.2
	계	124(100)	37.1
유치원비	있다	91(73.4)	37.4
	없다	33(26.6)	35.3
	계	124(100)	36.5
초등학교 교육비	있다	222(72.5)	26.6
	없다	84(27.5)	27.3
	계	306(100)	26.7
중학교 교육비	있다	177(62.5)	28.2
	없다	106(37.5)	36.1
	계	283(100)	31.1
고등학교 교육비	있다	46(41.1)	39.5
	없다	66(58.9)	40.4
	계	112(100)	40.0
대학교 교육비	있다	4(23.5)	35.5
	없다	13(76.5)	33.6
	계	17(100)	34.1

주: 보육비 예상 지출과 유치원비 예상 지출의 경우, 자녀 1명을 가지고 있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을 포함하여 분석함.

〈표 4-35〉 보육·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출산의향 없는 여성, 양육자녀 1명)

(단위: 명, %)

구분	적정비용 감소시		비용 감소율 평균
보육비 예상 지출			
	있다	24(41.4)	38.4
	없다	34(58.6)	35.4
	계	58(100)	34.0
유치원비 예상지출			
	있다	24(41.4)	40.0
	없다	34(58.6)	31.1
	계	58(100)	37.6
초등비 예상지출			
	있다	64(46.4)	28.5
	없다	74(53.6)	28.6
	계	138(100)	28.4
중학교교육비 예상지출			
	있다	75(42.9)	28.5
	없다	100(175)	37.0
	계	175(100)	33.3
고등학교교육비 예상지출			
	있다	29(30.5)	38.3
	없다	66(69.5)	40.4
	계	95(100)	39.7
대학교교육비 예상지출			
	있다	4(23.5)	35.5
	없다	13(76.5)	33.6
	계	17(100)	34.1

주: 보육비 예상 지출과 유치원비 예상 지출의 경우, 자녀 1명을 가지고 있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을 포함하여 분석함.

〈표 4-36〉 보육·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전체 여성, 양육자녀 2명)

(단위: 명, %)

구분	향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보육비	있다	77(37.2)	43.1
	없다	130(62.8)	34.8
	계	207(100)	37.9
유치원비	있다	77(37.2)	41.5
	없다	130(62.8)	30.1
	계	207(100)	34.4
초등학교 교육비	있다	190(36.6)	35.1
	없다	329(63.4)	31.4
	계	519(100)	32.8
중학교 교육비	있다	237(31.3)	33.3
	없다	520(68.7)	30.9
	계	757(100)	31.7
고등학교 교육비	있다	166(29.9)	37.6
	없다	389(70.1)	35.0
	계	555(100)	35.7
대학교 교육비	있다	31(27.7)	37.2
	없다	81(72.3)	31.2
	계	112(100)	32.9

〈표 4-37〉 보육·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출산 의향 없는 여성, 양육자녀 2명)

(단위: 명, %)

구분	향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보육비 예상 지출	있다	59(31.6)	39.7
	없다	128(68.4)	34.5
	계	187(100)	36.1
유치원비 예상지출	있다	59(31.6)	36.5
	없다	128(68.4)	29.9
	계	187(100)	32.0
초등비 예상지출	있다	137(29.8)	34.1
	없다	323(70.2)	31.1
	계	460(100)	32.0
중학교교육비 예상지출	있다	174(25.3)	32.2
	없다	515(74.7)	31.0
	계	689(100)	31.3

〈표 4-37〉 계속

구분	향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고등학교교육비 예상지출	있다	126(24.6)	37.3
	없다	387(75.4)	35.1
	계	513(100)	35.6
대학교교육비 예상지출	있다	28(25.9)	37.3
	없다	80(74.1)	31.3
	계	108(100)	33.0

다) 보육·교육비가 적정비용으로 절감해도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¹⁸⁾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절감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경제적인 이유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이 “자녀 교육 비용이 높아서” 인 것으로 나타났다(보육비 22.9%, 유치원비 22.1%, 초등학교 교육비 19.4%, 중학교 교육비 20.1%, 고등학교 교육비 14.7%). 이러한 결과는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비용으로 보육·교육비가 절감해도 자녀를 추가적으로 출산하는 데는 여전히 보육·교육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한편,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와 “나이가 많아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비용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절감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이유도 역시 비슷하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자녀 교육 비용이 높아서”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보육비 20.3%, 유치원비 20.3%, 초등학교 교육비 18.6%, 중학교 교육비 16.6%, 고등학교 교육비 13.5%, 대학교 교육비 13.4%). 이러한 결과 역시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비용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절감해도 역시 추가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데는 보육·교육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18) 통계표는 부록 <부표 3-1~6> 참조.

6. 자녀 가치관에 따른 보육·교육비 지출 및 출산 의향¹⁹⁾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체면의식(“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지 못하면 이웃이나 친지를 볼 낯이 없다,” “내 자식이 다른 집 자식보다 공부를 못하면 창피하다”)과 학벌의식(“학력이 높을수록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결혼을 잘 할 수 있다,” “학력이 높으면 살기 편하다”)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보다 전반적으로 자녀 1인당 지출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심리적 가치에 대한 질문인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에 한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보다 평균적인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연령이 높은 부부일수록 부부 관계를 공고히 하는 매개체로서 자녀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자녀의 교육비용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룰 수 있다”에 대해서는 미취학 자녀를 가진 여성에 한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사람이 부정적인 답변을 보인 사람에 비해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은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감이 커서 이러한 기대감이 큰 부모일수록 자녀의 보육·교육 비용에 더 큰 투자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인 기대감은 감소되어 자식이 더 이상 부모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질문인 “적어도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이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선호사상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여성일수록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 투자가 높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한편, “자식을 키워봐야 어른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중학교 재학 자녀를 가진 여성에

19) 통계표는 부록의 <부표 4-1~3> 참조.

한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사람이 더 높은 보육·교육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녀의 경제적 가치를 부정하는 응답이 거의 80~90% 가깝게 나와 부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과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의 지출 비용 차이를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한편, 자녀 출산 의향에 따라 자녀 가치관 응답 경향을 비교해 본 결과, “적어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 질문을 제외하고 출산 의향에 따라 별다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사람(23.2%) 중에서 보다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33.6%)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 출산 의향에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선호 사상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제3절 심층 분석 결과

1.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가지 모형을 구축하였다. 첫번째 모형은 현재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출이 현재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우선 보육·교육비를 지출하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후,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과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녀 1명 있는 여성과 자녀 2명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한 이유는 1자녀에서 2자녀로, 그리고 2자녀에서 3자녀로의 출산 이행 의사에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분석해 보기 위함이다. 또한 보육·교육 단계별로 보육·교육비 지출 정도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육비를 지출하는 여성, 유치원비를 지출하는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를 지출하는 여성 각각의 세 그룹으로 나

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²⁰⁾.

첫 번째 모형은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소득수준, 양육자녀수, 남아자녀유무, 어머니연령, 어머니학력, 어머니취업여부, 거주지역 변수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동 모형에서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은 지난 3개월간 자녀의 보육 혹은 교육을 위해 지출한 월평균 비용(만원)으로서 가구당 지출한 전체 보육·교육 비용과 자녀 1인당 지출한 비용을 번갈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는 두 자녀에게 지출한 비용을 합한 비용이며, 자녀 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는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를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2명으로 나눈 비용이다.

소득수준변수는 다섯가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을 “최저소득층” 변수에 1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0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1만원에서 290만원 이하인 사람들을 “저소득층” 변수에 1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을 0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291만원에서 360만원 이하의 사람들은 “중산층” 변수에 1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을 0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월평균 소득이 361만원에서 490만원 이하의 사람들은 “고소득층” 변수에 1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을 0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월평균 소득이 491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최고소득층” 변수에 1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0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최고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다른 소득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출산 의향을 파악하고자 “최고

20) 중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 167명 중에서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은 7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 43명 중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은 3명으로 6.5%에 지나지 않았다. 샘플수와 자녀 출산 의향 변수의 변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육비 지출과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기로 한다.

소득층” 변수를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양육자녀수”는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 수로서 연속 변수로 처리하였다.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 중 남자 아이가 있으면 “남아자녀있음”에 1 값을, 남아자녀가 없으면 0 값을 갖도록 하였다. “어머니연령”은 조사대상 여성의 연령으로 연속변수를 사용하였다. 어머니 학력변수로 응답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이면 “어머니고졸이하” 변수에 1 값을, 나머지 여성은 0 값을 갖도록 하였다. 응답 여성이 대학교 졸업 이상이면 “어머니대졸이상” 변수에 1 값을, 나머지 여성은 0 값을 갖도록 하였다. 고졸 이하 여성과 비교하여 대졸이상 여성의 출산 의향을 파악하고자 “어머니고졸이하” 변수를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어머니취업”은 현재 응답자 여성이 취업상태이면 1 값을, 비취업상태이면 0 값을 갖도록 하였다. 지역변수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도시” 변수에 1 값을 갖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여성은 0 값을 갖도록 하였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은 “중소도시” 변수에 1 값을 갖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여성은 0 값을 갖도록 하였다.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은 “농촌” 변수에 1 값을 갖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여성은 0 값을 갖도록 하였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비교하여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 의향을 파악하고자 “농촌” 변수를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두 번째 모형은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수준으로 절감될 때 자녀 출산 의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분석은 전체 여성과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두 번째 모형의 주된 분석 목적은 보육·교육비 지출이 감소되면 출산 의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을 통제하고 지출 감소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비용 변수를 통제변수로서 사용하였다. 또한 첫 번째 모형과 마찬가지로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양육자녀수, 남아자녀유무, 어머니연령, 어머니학력, 어머니취업여부, 거주지역 변수를 통제 변수로서 사용하였다. “보육·교육비 지출 감소” 변수는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서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출 수준으로의 감소 비율이다. 나머지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모형에서 사용한 정의와 동일하다.

세 번째 모형은 향후에 지출할 보육·교육비 수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절감할 때 자녀 출산 의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향후 지출할 보육·교육비는 현재 자녀의 교육단계에서 2단계 높은 교육단계로까지 보았다(<표 4-3> 참조). 이러한 분석 역시 전체 여성과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세 번째 모형의 주된 분석 목적은 향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교육비가 감소되는 경우 여성의 출산 의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파악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모형과 마찬가지로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양육자녀수, 남아자녀유무, 어머니연령, 어머니학력, 어머니취업여부, 거주지역 변수를 통제 변수로서 사용하였다.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감소” 변수는 2007년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서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비용으로의 감소 비율이다. 나머지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모형에서 사용한 정의와 동일하다.

동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설명은 아래 표와 같다. 모형에 사용한 변수들의 통계치는 <부표 5>에 수록되어 있다. 동 모형에서 종속 변수는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지는 형태이다. 따라서 비선형모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4-38> 로짓 모형에 사용한 변수 설명

첫 번째 모형	종속변수	현재 자녀 출산 의향	자녀 출산 의향 있음=1, 없음=0
	주요독립변수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월평균 보육·교육비 (만원), 연속 변수
두 번째 모형	종속변수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 시 자녀 출산 의향	자녀 출산 의향 있음=1, 없음=0
	주요독립변수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수준에서 적정 수준으로의 절감 비율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 적정 수준)/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100, 연속변수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월평균 보육·교육비 (만원), 연속 변수
세 번째 모형	종속변수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자녀 출산 의향 있음=1, 없음=0
	주요독립변수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의 절감 비율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 적정 수준)/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100, 연속변수

〈표 4-38〉 계속

공통 독립변 수	소득수준	최저소득층=1 혹은 0 저소득층=1 혹은 0 중산층=1 혹은 0 고소득층=1 혹은 0 최고소득층=1 혹은 0(준거집단)
	양육자녀수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 수, 연속변수
	남아자녀유무	남아자녀 있음=1, 없음=0
	어머니연령	응답자 여성의 연령, 연속변수
	어머니학력	어머니대졸이상=1 혹은 0 어머니 고졸이상=1 혹은 0(준거집단)
	어머니취업	어머니 취업=1, 어머니 비취업=0
	거주지역	대도시 거주=1 혹은 0 중소도시 거주=1 혹은 0 농촌 거주=1 혹은 0(준거집단)

2.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추정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번째 모형에서 중학교 교육비 지출 모형과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모형, 그리고 세 번째 모형에서 대학교 교육비 지출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이러한 모형들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가) 첫 번째 모형 추정 결과

첫 번째 모형에서 보육·교육비 지출은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비를 지출하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자녀를 1명 가지고 있는 여성, 자녀를 2명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모두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비를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중학교 교육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도 역시 해당 보육·교육비 지출이 자녀 출산 의향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비 지출 변수를 가구당 전체 비용으로 한 경우와 자녀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한 경우 모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교육비 지출 변수 대신 양육 자녀수와 어머니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인 변수들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어머니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 의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최고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출산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육·교육비 지출이 자녀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부모가 자녀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현재 지출하고 있는 교육 비용 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출할 교육 비용까지도 모두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출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육 비용 뿐만 아니라 결혼 비용 등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지불해야 하는 총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상 자녀를 하나 정도는 반드시 낳으려는 경향도 보육·교육비 지출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 이유라고 판단된다.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자녀가 2명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추가적인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은 여성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인 변수가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자녀 출산에서 2자녀 출산으로의 이행 혹은 2자녀에서 3자녀 출산으로의 이행은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두 번째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은 “자녀는 두 명 있어야 한다,” 혹은 “자녀에게 형제 자매가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성으로 하여금 보다 건강한 출산이 가능한 연령인 어린 나이에 출산하고자 하는 의향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초혼 연령의 상승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 의향이 낮다는 사실은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인하여 기혼 여성의 연령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높은 연령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표 4-39〉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전체 여성

구분	가구당 지출	자녀1인당 지출
가구당 보육·교육비지출	-0.002 (0.003) [0.998]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지출		-0.003 (0.003) [0.997]
최저소득층	-0.340 (0.264) [0.712]	-0.358 (0.263) [0.699]
저소득층	-0.226 (0.279) [0.798]	-0.244 (0.279) [0.783]
중산층	-0.326 (0.242) [0.722]	-0.342 (0.243) [0.710]
고소득층	-0.657* (0.284) [0.518]	-0.671* (0.284) [0.511]
양육자녀수	-1.541*** (0.165) [0.214]	-1.591*** (0.158) [0.204]
남아자녀있음	-0.099 (0.169) [0.905]	-0.095 (0.169) [0.909]
어머니연령	-0.200*** (0.025) [0.818]	-0.199*** (0.025) [0.819]
어머니대졸이상	-0.082 (0.171) [0.922]	-0.085 (0.171) [0.918]
어머니취업	-0.116 (0.180) [0.891]	-0.097 (0.181) [0.907]
대도시	-0.136 (0.320) [0.873]	-0.132 (0.321) [0.877]
중소도시	0.009 (0.316) [1.009]	0.006 (0.317) [1.006]
-2 Log L	1,031.264	1,030.631
Model chi-square	299.752***	300.385***
df	12	12
N	1,349	1,349

† p<0.1, *p<0.05, **<0.01, ***<0.001

주: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안은 standard error, []안은 odds ratio임.

〈표 4-40〉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양육 자녀 수

구분	양육자녀1명	양육자녀2명
가구당 보육·교육비지출		0.000 (0.004) [1.000]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0.004 (0.004) [0.996]	
최저소득층	-0.563 (0.368) [0.569]	-0.029 (0.411) [0.972]
저소득층	-0.116 (0.377) [0.891]	-0.318 (0.465) [0.728]
중산층	-0.227 (0.338) [0.797]	-0.513 (0.392) [0.598]
고소득층	-0.396 (0.368) [0.673]	-1.034 [†] (0.540) [0.356]
남아자녀있음	-0.087 (0.219) [0.916]	-0.101 (0.302) [0.904]
어머니연령	-0.227*** (0.035) [0.797]	-0.174*** (0.040) [0.840]
어머니대졸이상	0.248 (0.246) [1.281]	-0.424 (0.265) [0.655]
어머니취업	-0.278 (0.250) [0.757]	-0.061 (0.291) [1.063]
대도시	-0.182 (0.436) [0.834]	0.598 (0.654) [1.819]
중소도시	-0.291 (0.438) [0.748]	0.888 (0.639) [2.430]
-2 Log L	494.664	451.728
Model chi-square	70.406***	41.138***
df	11	11
N	412	798

[†] p<0.1, *p<0.05, **<0.01, ***<0.001

주: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안은 standard error, []안은 odds ratio임.

〈표 4-41〉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보육비, 유치원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가구당 보육비지출	0.004 (0.005) [1.004]					
자녀 1인당 보육비지출		0.002 (0.005) [1.002]				
가구당 유치원비지출			-0.004 (0.007) [0.996]			
자녀 1인당 유치원비지출				-0.005 (0.009) [0.995]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지출					-0.007 (0.006) [0.993]	
자녀 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0.006 (0.008) [0.994]
최저소득층	-0.243 (0.487) [0.784]	-0.299 (0.484) [0.741]	-1.576** (0.551) [0.207]	-1.577** (0.550) [0.207]	0.247 (0.466) [1.280]	0.296 (0.470) [1.344]
저소득층	-0.439 (0.506) [0.645]	-0.481 (0.502) [0.618]	-1.042† (0.605) [0.353]	-1.047† (0.606) [0.351]	-0.164 (0.540) [0.849]	-0.135 (0.543) [0.874]
중산층	-0.294 (0.432) [0.745]	-0.341 (0.432) [0.711]	-1.222** (0.461) [0.295]	-1.227** (0.462) [0.293]	-0.249 (0.438) [0.779]	-0.229 (0.439) [0.795]
고소득층	-0.349 (0.475) [0.706]	-0.374 (0.475) [0.688]	-2.563** (0.841) [0.077]	-2.558** (0.840) [0.077]	-0.797 (0.565) [0.451]	-0.784 (0.564) [0.456]
양육자녀수	-1.884*** (0.297) [0.152]	-1.872*** (0.301) [0.154]	-1.378*** (0.342) [0.252]	-1.403*** (0.343) [0.246]	-0.850** (0.278) [0.427]	-0.904** (0.286) [0.405]
남아자녀있음	-0.127 (0.302) [0.881]	-0.129 (0.302) [0.879]	0.035 (0.373) [1.035]	0.045 (0.373) [1.046]	-0.357 (0.322) [0.700]	-0.357 (0.321) [0.700]
어머니연령	-0.163** (0.048) [0.850]	-0.166** (0.048) [0.847]	-0.198** (0.059) [0.820]	-0.195** (0.059) [0.823]	-0.200*** (0.054) [0.819]	-0.203*** (0.054) [0.816]
어머니대졸이상	0.010 (0.328) [1.010]	0.011 (0.328) [1.012]	-1.051** (0.369) [0.350]	-1.048** (0.369) [0.351]	-0.010 (0.311) [0.990]	-0.002 (0.312) [0.998]

〈표 4-41〉 계속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어머니취업	-0.383 (0.317) [0.682]	-0.346 (0.315) [0.708]	0.107 (0.376) [1.113]	0.103 (0.376) [1.109]	0.110 (0.305) [1.116]	0.094 (0.305) [1.099]
대도시	0.727 (0.646) [2.070]	0.748 (0.644) [2.112]	-0.776 (0.678) [0.460]	-0.774 (0.678) [0.461]	-0.508 (0.564) [0.602]	-0.522 (0.565) [0.593]
중소도시	0.862 (0.641) [2.368]	0.862 (0.639) [2.369]	-0.433 (0.657) [0.648]	-0.434 (0.657) [0.648]	-0.092 (0.537) [0.912]	-0.096 (0.538) [0.908]
-2 Log L	336.368	336.991	242.907	242.873	357.955	358.595
Model chi-square	102.188***	101.564***	59.293***	59.326***	43.732***	42.750***
df	12	12	12	12	12	12
N	388	388	376	376	710	708

† p<0.1, *p<0.05, **<0.01, ***<0.001

주: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안은 standard error, []안은 odds ratio임.

나) 두 번째 모형 추정 결과

두 번째 모형 추정 결과,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고등학교 교육비 절감은 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서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고등학교 교육비 절감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승산비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는바, 보육·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육·교육비 절감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다. 특히 이러한 보육·교육비 절감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더 큰 유효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2〉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전체 여성)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보육비지출감소	0.012** (0.005) [1.012]				
가구당 보육비지출	0.009 (0.006) [1.009]				
유치원비 지출감소		0.002 (0.005) [1.002]			
가구당 유치원비지출		-0.005 (0.006) [0.995]			
초등학교 교육비지출감소			0.011** (0.004) [1.011]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지출			-0.012** (0.004) [0.988]		
중학교 교육비지출감소				0.002 (0.010) [1.002]	
가구당 중학교 교육비지출				0.016 [†] (0.008) [1.016]	
고등학교 교육비지출감소					0.059 [†] (0.032) [1.061]
가구당 고등학교 교육비지출					0.010 (0.028) [1.010]
최저소득층	0.158 (0.484) [1.171]	-0.880 (0.421) [0.415]	0.181** (0.338) [1.198]	1.370 (0.851) [3.936]	-1.391 (2.023) [0.249]
저소득층	0.532 (0.498) [1.702]	-0.527 (0.471) [0.591]	-0.210 (0.375) [0.811]	0.229 (1.097) [1.258]	-1.799 (2.262) [0.165]
중산층	0.389 (0.429) [1.476]	-0.485 (0.357) [0.616]	-0.151 (0.290) [0.860]	1.112 (0.801) [3.040]	0.940 (1.853) [2.560]
고소득층	0.231 (0.465) [1.260]	-1.253 [†] (0.463) [0.286]	-0.395** (0.339) [0.674]	0.395 (0.812) [1.484]	0.251 (1.771) [1.285]

〈표 4-42〉 계속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양육자녀수	-1.668*** (0.279) [0.189]	-1.246*** (0.267) [0.288]	-0.689*** (0.189) [0.502]	-0.388 (0.375) [0.678]	-2.124 (1.308) [0.119]
남아자녀 있음	0.149 (0.300) [1.161]	-0.353 (0.279) [0.702]	-0.302 (0.237) [0.739]	0.719 (0.684) [2.053]	-0.701 (2.053) [0.496]
어머니연령	-0.110* (0.043) [0.895]	-0.086 (0.044) [0.917]	-0.158* (0.039) [0.854]	0.099 (0.167) [1.104]	-0.026 (0.713) [0.975]
어머니 대졸이상	-0.437 (0.297) [0.646]	-0.526 (0.272) [0.591]	-0.193† (0.210) [0.824]	-0.341 (0.540) [0.711]	-1.194 (1.723) [0.303]
어머니 취업	0.325 (0.282) [1.384]	0.200 (0.288) [1.222]	-0.100 (0.206) [0.904]	-0.390 (0.459) [0.677]	2.450 (1.923) [11.592]
대도시	0.334 (0.533) [1.397]	0.229 (0.566) [1.257]	0.199 (0.408) [1.221]	-0.036 (0.487) [0.964]	-0.858 (1.278) [0.424]
중소도시	0.538 (0.519) [1.712]	0.286 (0.562) [1.331]	0.093 (0.400) [1.097]		
-2 Log L	361.769	387.766	639.704	138.624	28.755
Model chi-square	86.946***	55.069***	71.892***	13.295	16.799
df	13	13	13	12	12
N	324	343	606	148	41

† p<0.1, *p<0.05, **<0.01, ***<0.001

주: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안은 standard error, []안은 odds ratio임.

〈표 4-43〉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자녀 출산 의향 없는 여성)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보육비지출감소	0.018** (0.006) [1.018]				
가구당 보육비지출	0.011 (0.007) [1.011]				

〈표 4-43〉 계속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감소		0.002 (0.006) [1.002]			
가구당 유치원비지출		-0.008 (0.007) [0.992]			
초등학교 교육비지출감소			0.013** (0.005) [1.013]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지출			-0.012** (0.005) [0.988]		
중학교 교육비지출감소				0.003 (0.010) [1.003]	
가구당 중학교 교육비지출				0.013 (0.009) [1.013]	
고등학교 교육비지출감소					0.161† (0.088) [1.175]
가구당 고등학교 교육비지출					0.036 (0.050) [1.037]
최저소득층	0.499 (0.624) [1.647]	-0.604 (0.500) [0.546]	0.115 (0.393) [1.122]	0.698 (0.901) [2.010]	-6.183 (4.221) [0.002]
저소득층	0.987 (0.636) [2.684]	-0.400 (0.566) [0.670]	-0.313 (0.445) [0.731]	-0.161 (1.122) [0.851]	-5.890 (4.442) [0.003]
중산층	0.917 (0.562) [2.503]	-0.299 (0.430) [0.741]	-0.029 (0.333) [0.972]	0.558 (0.852) [1.748]	-2.072 (3.003) [0.126]
고소득층	0.749 (0.607) [2.114]	-0.724 (0.509) [0.485]	-0.210 (0.379) [0.810]	0.265 (0.822) [1.303]	-0.959 (2.856) [0.383]
양육자녀수	-0.964** (0.003) [0.381]	-1.413*** (0.341) [0.243]	-0.614** (0.214) [0.541]	-0.505 (0.409) [0.604]	-4.230† (2.451) [0.015]
남아자녀있음	0.328 (0.369) [1.388]	-0.161 (0.330) [0.851]	-0.157 (0.276) [0.855]	0.497 (0.696) [1.643]	-5.935 (4.201) [0.003]

〈4-43〉 계속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어머니연령	-0.030 (0.052) [0.970]	-0.061 (0.051) [0.941]	-0.138** (0.046) [0.872]	0.046 (0.175) [1.047]	-0.746 (0.974) [0.474]
어머니대졸이상	-0.310 (0.336) [0.733]	-0.360 (0.315) [0.697]	-0.238† (0.238) [0.788]	-0.631 (0.607) [0.532]	-3.141 (3.719) [0.043]
어머니 취업	0.496 (0.324) [1.641]	0.303 (0.331) [1.361]	-0.137 (0.236) [0.872]	-0.737 (0.514) [0.479]	8.893† (4.853) [7283.251]
대도시	-0.025 (0.598) [0.975]	0.652 (0.707) [1.919]	0.533 (0.500) [1.704]	-0.039 (0.523) [0.961]	-2.535 (2.493) [0.079]
중소도시	0.280 (0.580) [1.323]	0.581 (0.708) [1.788]	0.237 (0.495) [1.267]		
-2 Log L	263.187	301.064	512.280	123.416	19.060
Model chi-square	34.934**	32.844**	46.838***	11.379	22.544*
df	13	13	13	12	12
N	240	294	551	141	38

† p<0.1, *p<0.05, **<0.01, ***<0.001

주: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안은 standard error, []안은 odds ratio임.

다) 세번째 모형 추정 결과

향후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에 따른 자녀 출산 의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여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출할 보육비와 유치원비의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단계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비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출할 비용의 절감이 자녀를 출산 하도록 의향을 변경시키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에 지출할 보육·교육비의 절감이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의향을 바꿀 만큼 강력한 효과를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향후 보육료나 유치원비 지출에 대한 절감은 자녀 출산 의향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나, 이 보다 높은 비용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단계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 비용의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분석 모형에서 독립 변수인 예상지출감소는 전국 평균 비용으로부터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출 비용으로의 절감이다.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단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실제로 지출할 비용이 전국의 평균 비용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전국 평균 비용으로 부터의 절감은 여성 본인에게 현실적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절감 수준일 수 있다. 이렇게 현실감이 부족한 비용의 절감은 자녀를 출산 하도록 의향을 갖도록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육비 절감이 보다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수준으로의 비용 절감이어야 여성들이 출산 의향을 갖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표 4-44〉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전체 여성)

구분	향후 보육비 지출 여성	향후 유치원비 지출 여성	향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보육비 예상지출감소	0.008* (0.004) [1.008]					
유치원비 예상지출감소		0.008* (0.004) [1.008]				
초등학교 교육비예상지출감소			0.001 (0.003) [1.001]			
중학교 교육비예상지출감소				-0.000 (0.002) [1.000]		
고등학교 교육비예상지출감소					0.003 (0.003) [1.003]	
대학교 교육비예상지출감소						0.015* (0.009) [1.015]
최저소득층	0.113 (0.389) [1.120]	0.068 (0.392) [1.070]	-0.049 (0.251) [0.953]	-0.067 (0.228) [0.935]	-0.063 (0.278) [0.939]	0.116 (0.655) [1.124]

〈표 4-44〉 계속

구분	향후 보육비 지출 여성	향후 유치원비 지출 여성	향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저소득층	-0.267 (0.419) [0.765]	-0.307 (0.420) [0.736]	-0.222 (0.267) [0.801]	-0.174 (0.245) [0.841]	-0.125 (0.309) [0.882]	-0.339 (0.785) [0.712]
중산층	-0.055 (0.384) [0.946]	-0.077 (0.386) [0.926]	-0.307 (0.229) [0.736]	-0.305 (0.201) [0.737]	-0.307 (0.246) [0.736]	-0.002 (0.594) [0.998]
고소득층	-0.336 (0.423) [0.714]	-0.344 (0.422) [0.709]	-0.305 (0.258) [0.737]	-0.392 † (0.230) [0.676]	-0.426 (0.282) [0.653]	0.294 (0.606) [1.342]
양육자녀수	-1.408*** (0.187) [0.245]	-1.410*** (0.188) [0.244]	-1.252*** (0.129) [0.286]	-0.982*** (0.129) [0.375]	-0.570*** (0.156) [0.565]	-0.505† (0.300) [0.604]
남아자녀있음	-0.415 (0.254) [0.660]	-0.372 (0.255) [0.689]	-0.262 (0.165) [0.770]	-0.278† (0.155) [0.758]	-0.331† (0.201) [0.718]	0.730 (0.555) [2.075]
어머니연령	-0.033 (0.038) [0.967]	-0.032 (0.038) [0.968]	-0.081** (0.024) [0.922]	-0.136*** (0.022) [0.873]	-0.138*** (0.033) [0.871]	0.072 (0.148) [1.075]
어머니대졸이상	-0.234 (0.260) [0.791]	-0.296 (0.260) [0.744]	-0.274† (0.165) [0.760]	-0.184 (0.145) [0.832]	-0.240 (0.181) [0.787]	-0.415 (0.449) [0.660]
어머니 취업	-0.213 (0.332) [0.808]	-0.243 (0.333) [0.784]	0.111 (0.167) [1.118]	0.082 (0.145) [1.085]	-0.113 (0.176) [0.893]	-0.548 (0.405) [0.578]
대도시	-0.070 (0.477) [0.933]	0.004 (0.480) [1.004]	0.067 (0.307) [1.069]	0.249 (0.286) [1.283]	0.475 (0.378) [1.609]	1.109 (1.116) [3.031]
중소도시	0.079 (0.475) [1.082]	0.162† (0.478) [1.176]	0.164 (0.304) [1.178]	0.293 (0.283) [1.341]	0.451 (0.373) [1.570]	1.497 (1.096) [4.470]
-2 Log L	478.354	478.043	1,115.055	1,305.918	852.083	177.313
Model chi-square	144.784***	145.095***	247.883***	162.684***	54.886***	14.460
df	12	12	12	12	12	12
N	456	456	984	1,107	749	173

† p<0.1, * p<0.05, ** p<0.01, *** p<0.001

주: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안은 standard error, []안은 odds ratio임.

〈표 4-45〉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자녀 출산 의향 없는 여성)

구분	향후 보육비 지출 여성	향후 유치원비 지출 여성	향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보육비 예상지출감소	0.004 (0.005) [1.004]					
유치원비 예상지출감소		0.007 (0.005) [1.007]				
초등학교 교육비예상지출감소			0.001 (0.003) [1.001]			
중학교 교육비예상지출감소				-0.001 (0.003) [0.999]		
고등학교 교육비예상지출감소					0.003 (0.004) [1.003]	
대학교 교육비예상지출감소						0.016* (0.009) [1.016]
최저소득층	0.054 (0.459) [1.056]	-0.045 (0.463) [0.956]	0.132 (0.292) [1.141]	-0.040 (0.259) [0.960]	-0.215 (0.310) [0.806]	-0.413 (0.701) [0.662]
저소득층	-0.567 (0.524) [0.567]	-0.668 (0.529) [0.513]	-0.176 (0.322) [0.838]	-0.209 (0.283) [0.812]	-0.152 (0.337) [0.859]	-0.581 (0.798) [0.559]
중산층	-0.173 (0.453) [0.842]	-0.248 (0.456) [0.781]	-0.204 (0.272) [0.815]	-0.250 (0.231) [0.779]	-0.338 (0.270) [0.713]	-0.473 (0.634) [0.623]
고소득층	-0.647 (0.545) [0.524]	-0.832 (0.564) [0.435]	-0.197 (0.310) [0.821]	-0.234 (0.259) [0.792]	-0.331 (0.301) [0.719]	0.221 (0.614) [1.247]
양육자녀수	-0.534* (0.289) [0.586]	-0.536* (0.240) [0.282]	-0.680*** (0.154) [0.507]	-0.685*** (0.146) [0.504]	-0.448* (0.169) [0.639]	-0.561* (0.317) [0.571]
남아자녀있음	-0.359 (0.316) [0.698]	-0.283 (0.321) [0.754]	-0.228 (0.197) [0.796]	-0.249 (0.178) [0.779]	-0.235 (0.223) [0.790]	0.529 (0.567) [1.698]
어머니연령	-0.009 (0.045) [0.991]	-0.007 (0.046) [0.993]	-0.034 (0.028) [0.966]	-0.100*** (0.025) [0.904]	-0.118* (0.037) [0.888]	0.030 (0.154) [1.031]
어머니대졸이상	0.051 (0.320) [1.052]	-0.030 (0.322) [1.030]	-0.149 (0.194) [0.861]	-0.214 (0.164) [0.808]	-0.311 (0.198) [0.732]	-0.657 (0.495) [0.519]
어머니 취업	-0.432 (0.428) [0.649]	-0.541 (0.436) [0.582]	0.107 (0.195) [1.113]	0.076 (0.164) [1.079]	-0.107 (0.194) [0.899]	-0.839* (0.442) [0.432]
대도시	0.942 (0.812) [2.566]	1.028 (0.821) [2.795]	0.311 (0.383) [1.365]	0.474 (0.345) [1.606]	0.890* (0.470) [2.435]	0.862 (1.123) [2.369]

〈4-45〉 계속

구분	향후 보육비 지출 여성	향후 유치원비 지출 여성	향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소도시	1.348 [†] (0.807) [3.849]	1.464 [†] (0.814) [4.324]	0.505 (0.379) [1.658]	0.497 (0.342) [1.644]	0.749 (0.466) [2.115]	1.293 (1.104) [3.644]
-2 Log L	313.202	309.024	796.264	1,034.790	727.109	160.299
Model chi-square	19.983 [†]	21.795 [*]	42.382 ^{***}	59.027 ^{***}	31.995 [*]	15.841
df	12	12	12	12	12	12
N	270	269	671	932	690	166

[†] p<0.1, * p<0.05, ** p<0.01, *** p<0.001

주: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안은 standard error, []안은 odds ratio임.

3. 시뮬레이션을 통한 보육·교육비 절감 효과 분석

본 절에서는 두 번째 모형에서 자녀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인 추정 모형을 이용하여 보육비와 초등학교 교육비 절감 수준에 따라 여성의 출산 의향이 어느 정도 변화 하는가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전체 여성과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가) 보육비 절감의 효과

보육비 지출 절감이 여성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자녀 1인당 보육비 지출을 조사 대상자의 평균 지출 수준인 월평균 3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소득수준은 중산층에 해당하고, 남자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3세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전업 주부이며 대도시에 거주한다고 보았다.

기본시나리오에 해당되는 여성의 경우,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비 지출 비용이 20% 절감될 때 약 5%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자녀 출산 의향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보육비 지출이 현재 수준에서 50%와 80%로 절감될 경우에는 각각 약 12%와 20%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자녀 출산 의향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육비 지출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약 25%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자녀 출산 의향을 가질 것으로 분석되었다²¹⁾.

한편 이러한 보육료 절감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 대해 더 큰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료가 각각 20%, 50%, 80% 절감될 경우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약 9%, 22%, 35%가 출산할 것으로 의향이 변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비 지출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약 45%가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의향이 변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본 시나리오하에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2명 있다고 가정한 경우, 보육료 절감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육료 절감의 효과는 전체 여성에 대해서 자녀를 1명 가진 여성과 자녀를 2명 가진 여성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 대해서는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에 2명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육료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육료 절감 효과는 큰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현재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연령에 따라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현재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모두 소득이 높은 계층이 소득이 낮은 계층보다 보육료 절감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종류의 소득 계층 중 보육료 절감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고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육료 절감의 효과가 저소득층에서 낮게 나타난 이유는 아마도 대부분의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저소득층의 경우 현재 거의 무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어 추가적인 보육료 절감은 출산 의향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1) 보육비 지출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다는 가정은 정부가 무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 4-46〉 보육비 절감에 따른 자녀 출산 의향 변화 시뮬레이션

구분	기본시나리오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시나리오6	시나리오7	시나리오8
자녀1인당 보육비지출	3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0원	0원	50만원	100만원
최저소득층					◎			
저소득층						◎		
중산층	◎	◎	◎	◎				
고소득층							◎	
최고소득층								◎
자녀수	1명	2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남아자녀 있음	◎	◎	◎	◎	◎	◎	◎	◎
어머니연령	33세	33세	25세	40세	33세	33세	33세	33세
어머니대졸	◎	◎	◎	◎			◎	◎
어머니 고졸					◎	◎		
어머니취업					◎	◎		
대도시	◎	◎	◎	◎			◎	◎
중소도시					◎	◎		
보육비 20% 절감	4.97% (8.87%)	5.16% (6.39%)	3.00% (9.00%)	5.98% (8.56%)	3.93% (8.97%)	3.09% (8.21%)	4.92% (8.92%)	4.44% (8.67%)
보육비 50% 절감	12.42% (22.17%)	12.91% (15.97%)	7.50% (22.50%)	14.95% (21.39%)	9.82% (22.41%)	7.72% (20.53%)	12.30% (22.30%)	11.11% (21.67%)
보육비 80% 절감	19.87% (35.48%)	20.65% (25.55%)	12.00% (36.00%)	23.92% (34.23%)	15.71% (35.86%)	12.35% (32.85%)	19.69% (35.68%)	17.77% (34.68%)
보육비100% 절감(무상보육)	24.84% (44.35%)	25.81% (31.93%)	15.00% (45.00%)	29.90% (42.78%)	19.64% (44.83%)	15.44% (41.06%)	24.01% (44.60%)	22.21% (43.34%)

주: ()안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출산의향 변화율임.

나) 초등학교 교육비 절감 효과

초등학교 교육비 절감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보육료 절감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과 어느 정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기본 시나리오는 보육료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설정하였다. 자녀 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를 응답자 여성들의 평균 지출 수준인 월 32만원을 지출한다고 보았으며, 소득수준은 중산층에 해당하고 남자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6세이며, 대학을 졸업하였고 전업 주부이며 대도시에 거주한다고 보았다.

기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비 절감으로 인하여 교육비가 20% 절감될 경우 약 5%에 해당하는 여성이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비가 각각 50%와 80%로 절감될 경우에는 약 13%와 21%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교 교육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약 27%의 여성들이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²²⁾.

초등학교 교육비 절감 효과는 보육료 절감과 마찬가지로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이 전체 여성 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초등학교 교육비가 각각 20%, 50%, 80% 절감될 경우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약 6%, 15%, 24%가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의향이 변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약 30%가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의향이 변경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모두 자녀를 2명 가지고 있을 때와 비교하여 자녀를 1명 가지고 있을 때 교육비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연령이 어릴수록 교육비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료 절감과는 달리 초등학교 교육비 절감은 소득이 높은 계층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더 큰 효과를 가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보육료의 경우 대부분의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고 있어 보육료 절감이 저소득층 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줄 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육비는 특히 사교육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초등학교 교육비의 절감은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출산 의향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만큼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2) 본 연구에서는 교육비가 공교육비, 사교육비, 교재비를 모두 합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교육비의 절감은 공교육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와 교재비를 합한 총교육비의 절감이다. 즉, 초등학교 교육비의 무상제공(100% 절감)은 사교육비 및 교재비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자녀에게 지출되는 교육비가 무상인 것을 의미한다.

〈표 4-47〉 초등학교 교육비 절감에 따른 자녀 출산 의향 변화 시뮬레이션

구분	기본시나리오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시나리오6	시나리오7
자녀1인당 교육비지출	32만원	32만원	32만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최저소득층				◎			
저소득층					◎		
중산층	◎	◎	◎				
고소득층						◎	
최고소득층							◎
자녀수	1명	2명	1명	1명	1명	1명	1명
남아자녀 있음	◎	◎	◎	◎	◎	◎	◎
어머니연령	36세	36세	40세	36세	36세	36세	36세
어머니대졸	◎	◎	◎			◎	◎
어머니 고졸				◎	◎		
어머니취업				◎	◎		
대도시	◎	◎	◎			◎	◎
중소도시				◎	◎		
교육비20% 절감	5.33% (6.03%)	4.24% (4.71%)	4.36% (4.86%)	5.38% (6.39%)	5.47% (5.63%)	4.69% (5.23%)	4.29% (4.28%)
교육비 50% 절감	13.33% (15.07%)	10.61% (11.77%)	10.90% (12.15%)	13.46% (15.94%)	13.66% (14.08%)	11.72% (13.08%)	10.73% (10.70%)
교육비 80% 절감	21.34% (24.11%)	16.98% (18.84%)	17.44% (19.45%)	21.54% (25.50%)	21.86% (22.52%)	18.74% (20.92%)	17.17% (17.11%)
교육비100% 절감(무상교육)	26.67% (30.14%)	21.22% (23.55%)	21.80% (24.31%)	26.92% (31.87%)	27.33% (28.15%)	23.43% (26.15%)	21.47% (21.39%)

주: ()안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출산의향 변화율임.

4. 자녀 가치관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자녀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심리적 가치, 사회적 체면의식, 학벌의식에 대한 응답에 기초하여 요인분석을 통하여 내재되어 있는 주요 요인(Principal component)을 파악하고 추정된 주요 요인과 보육·교육비 지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자녀의 가치관에 대한 10가지 질문 문항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Eigen value 값이 가장 높은 첫 번째 요인이 전체 응답 변이의 약 2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component 값을 보면 사회적 체면 의식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지 못하면 이웃이나 친지를 볼 낫이 없다,” “내 자식이 다른 집 자식보다 공부를 못하면 창피하다)과 학벌의식(“학력이 높을수록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결혼을 잘 할 수 있다,” “학력이 높으면 살기 편하다”)의 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첫 번째 요인에 사회적 체면의식과 학벌의식의 요소가 강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표 4-48〉 자녀 가치관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전체 가치관 변수)

Total Variance Explained						
Component	Initial Eigenvalues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2.198	21.979	21.979	2.198	21.979	21.979
2	1.430	14.303	36.282	1.430	14.303	36.282
3	1.382	13.823	50.105	1.382	13.823	50.105
4	0.948	9.480	59.585			
5	0.858	8.577	68.163			
6	0.811	8.106	76.268			
7	0.741	7.408	83.676			
8	0.600	6.002	89.678			
9	0.530	5.298	94.976			
10	0.502	5.024	100.000			

〈표 4-48〉 계속

Component Matrix(a)	Component		
	1	2	3
자녀가 크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	0.260	-0.177	0.545
내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는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0.014	0.521	-0.331
적어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	0.347	-0.033	0.613
자식을 키워봐야 어른이 될수 있다.	0.335	0.688	0.201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0.326	0.691	0.128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룰수 있다.	0.518	-0.045	0.253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지 못하면 이웃이나 친지를 볼 낫이 없다.	0.656	-0.315	-0.019
내 자식이 다른집 자식보다 공부를 못하면 창피하다.	0.618	-0.265	0.008
학력이 높을 수록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결혼을 잘 할 수 있다.	0.596	0.063	-0.497
학력이 높으면 살기 편하다.	0.596	0.003	-0.480

이러한 결과에 따라 사회적 체면의식의 두가지 변수와 학벌의식의 두가지 변수를 사용하여 요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첫 번째 요인이 전체 변이의 48%를 설명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체면의식과 학벌의식 네가지 변수를 사용하여 요인 분석을 수행하고 첫 번째 요인을 “학벌체면의식”이라고 명하기로 하였다.

〈표 4-49〉 자녀 가치관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사회적체면의식, 학벌의식 변수)

Component	Total Variance Explained					
	Initial Eigenvalues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1.918	47.940	47.940	1.918	47.940	47.940
2	1.042	26.046	73.986	1.042	26.046	73.986
3	0.536	13.407	87.393			
4	0.504	12.607	100.000			

〈표 4-49〉 계속

Component Matrix(a)		
구분	Component	
	1	2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지 못하면 이웃이나 친지를 볼 맛이 없다.	0.703	0.474
내 자식이 다른집 자식보다 공부를 못하면 창피하다.	0.656	0.563
학력이 높을 수록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결혼을 잘 할 수 있다.	0.715	-0.479
학력이 높으면 살기 편하다.	0.694	-0.519

학벌체면의식 요인을 추정된 값과 보육·교육비 지출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분석 결과 학벌체면의식과 교육비 지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학벌체면의식과 보육비 지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벌체면의식이 높은 사람이 전체가구당 교육비는 물론이고 자녀 1인당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보육비 지출과 학벌의식 사이에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보육비가 자녀를 보살피는데 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학벌의식과는 큰 상관없이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벌의식과 체면의식이 자녀에 대한 교육에 과도한 지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앞서 이론적인 고찰

부분에서 선별가설이론이 지적하듯이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자녀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이 아니라, 학벌이 “신호”나 “표시”의 역할을 하도록 부모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표 4-50〉 학벌체면의식과 보육·교육비간의 상관관계

		Correlations				
구분		학벌 체면 의식	가구당 전체 교육비 지출	자녀 1인당 전체 교육비 지출	가구당 보육비 지출	자녀 1인당 보육비 지출
학벌체면의식	Pearson Correlation	1	0.097**	0.081**	0.019	0.032
	Sig. (2-tailed)		0.000	0.002	0.474	0.527
	N	1,499	1,395	1,395	1,498	401

† p<0.1, *p<0.05, **<0.01, ***<0.001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소득층의 경우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높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더욱이 소득이 낮은 계층은 거의 대부분이 전국 평균 수준의 보육·교육비 수준에 대해서도 비용 지출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어 보육·교육비 부담에 대한 계층 간 차별성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이러한 각 가정의 보육·교육비 지출이 어느 정도 절감될 경우 여성들의 자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더욱 유효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보육·교육비 절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본 연구 결과, 현재의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부모들은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만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지출할 교육비까지 고려한다. 또한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 비용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에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만을 가지고서는 여성들의 자녀 출산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원인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자녀를 반드시 하나쯤은 낳아야 한다”는 사고도 자녀 보육·교육 비용이 출산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갖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과 그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를 낳으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녀 출산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개별 가정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자녀를 낳되 한 명만 낳게 되는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학벌의식이나 사회적 체면이 자녀 교육비 지출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순수한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목적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학벌과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질 때 우수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벌의식과 체면의식이 우리 사회에 만무하고 있는 이상 미래 사회의 건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교육비 절감이 유효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육·교육비 절감이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육·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전국 평균 비용 수준에서의 보육·교육비 절감은 출산 의향에 그다지 큰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상당수의 부모들이 전국 평균 비용보다 높은 수준의 보육·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전국 평균 비용에서의 절감은 많은 부모들에게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부모들이 느끼고 있는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출산 의향에 유효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보육료 절감의 효과는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 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출산 의향이 낮고 1명 이상의 추가적인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도 낮았다. 현재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00% 수준에 해당하는 가구에까지만 지원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액도 정부지원단가의 20%(두자녀 이상인 경우

70%)가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수준은 저소득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출산률이 낮은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출산률 회복을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계층 및 지원 수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초등학교 교육비 지원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 바, 출산률 회복을 위한 차원에서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 정책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초등학교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공교육비 보다는 사교육비에서 야기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초등학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 영리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을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자녀 연령이 어리거나 혹은 여성의 연령이 낮은 계층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가임기 초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비와 초등학교 교육비 절감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육료 절감이 초등학교 교육비 절감보다 출산 의향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 예산의 제약성을 고려해 본다면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초등학교 교육비에 대한 지원보다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비용 효과적인 정책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

보육·교육비 지원을 통해 출산율 회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출산율이 높은 연령대의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부담감을 절감시켜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듯이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보육·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은 보육 서비스와 초등학교 교육에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은 우선 현재 저소득계층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을 보다 많은 계층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보육은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정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육료가 20% 절감될 경우 약 5%의 여성들이 자녀 출산 의향을 가질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료가 50% 절감될 경우 약 12%의 여성들이 출산 의향을 가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정부의 보육료 지원 수준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보육료가 100% 지원될 경우 즉 정부가 무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에 대해서 약 1/4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정부가 출산율 회복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 여성들의 자녀 출산 의향이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낮고 보육료 절감의 효과가 이들 계층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보육료 지원 계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이상 가구의 출산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을 지양하고 보다 보편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현재 보육료 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육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만을 제공 받고 있으며 종일반 그리고 특기 적성 교육 등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부담은 저소득층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 보육료 지원으로도 보육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종일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 시설 서비스를 보다 필요로 하는 여성은 자녀를 하루 종일 시설에 맡겨야 하는 취업 여성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보다 현실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보육료 지원을 통해 여성이 근로 시간 동안 자녀를 온전히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현재 보육료 지원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녀 보육에 대한 욕구가 부모마다 다양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자녀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 양육 수당의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비 지원 정책은 초등학교 공교육비가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초등학생에게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에 대한 사교육은 주로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목 뿐 만 아니라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에 대한 사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서 특별히 사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도 자녀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초등학생 영어 수업이나 특기 적성 수업들이 마련되어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사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부모들의 점점 더 높아만 가는 사교육에 대한 욕구를 국가가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사교육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일정 수준 정도 공교육이 충족시켜 준다 해도 사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은 훨씬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는 각 학교마다 실시하고 있는 특기 적성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현재 민간 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교육이 공교육으로도 충실하게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자녀가구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는바 이러한 특기 적성 교육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기 적성 교육에 대한 지원 방식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육비 절감 효과가 자녀의 교육 단계가 낮을수록 효과가 있지만 역시 중학교 교육 이상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공교육 기능의 정상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교육의 역할이 공교육안으로 흡수되어 공교육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몇몇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자체 교육으로만으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교육 기능이 정상화되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육을 따로 받아야 할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며 이에 부모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감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입시에 필요한 교육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제공하며 좋은 대학교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는 학생들의 노력과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지 고급 사교육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때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교육 기능이 정상화될 때 교육비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은 줄어든 것이며 이러한 교육비 부담의 절감이 출산을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자료와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보육·교육비 절감이 출산에 미칠 영향력과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때에는 분석에 사용한 자료와 연구 방법론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재의 출산율은 과거의 경제적인 상황 및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10개월 동안의 임신기간을 거쳐 출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거시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차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출산 의향은 현재의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출할 보육·교육비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자녀에게 소요될 총 비용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현재에 지출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자녀에 지출할 총비용을 고려하여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육비 절감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출산 의향이 반드시 출산 행위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육·교육비 지원이 출산 행위와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전화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학기 초인 3월 하순으로 계절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모들의 보육·교육비 지출이 다른 시점 보다 더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다른 시점보다 과대하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절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고 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강인원·전성일, 「학벌주의가 학부모들의 인식수준과 사교육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3.
- 고형일·김기수 외, 「2002학년도 이후의 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1998.
- 공은배·천세영, 「한국교육투자정책의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1989.
- 김시월·박배진,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10호, 76-79, 1999.
- 김시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연구」, 『소비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101-121, 1999.
- 김영주, 「대도시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과 주거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2호, 2005.
- 김영철, 「과외와 사교육비」,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35, 1997.
- _____,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1-22, 1997.
- _____, 「과외와 사교육비」, 『교육재정·경제연구』, 제6권 제3호(특집호), 1-35, 1997.
- 김용성, 「소득분배 양극화에 대한 연구」, KDI 정책연구시리즈 2006-06, 한국교육개발원, 2006.
- 김인숙·윤정성,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제3호, 137-149, 1996.
- 김지경,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제15권 제3호, 2004.
- 김지경 외, 「제5차(2002)년도 한국가정과 개인의 경제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4.
- 김현진,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22권 제1호, 2004.
- 김홍균·백승훈, 「사교육비 지출요인에 대한 분석」, 『공공교육』, 제14권, 1999.

- 김홍주·한유경·김현철, 「한국학생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변동추세」, 『교육학 연구』, 제37권 제4호, 1999.
- 나영미·윤정혜, 「가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이 사교육비 지출여부와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서울과 인천의 일반계 고등학생의 과외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1999.
- 남기곤, 「사교육비 규모의 시계열 추이 분석」, 『교육재정연구』, 제16권 제1호, 2007.
- 문숙재·김순미·김성희,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제2호, 171-184, 1996.
- 박명희, 「사교육비 현황과 가계」, 『대한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549-563, 1976.
- 박미희·여정성,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12호, 189-206, 2000.
- 박정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교육비」, 『교육재정·경제연구』, 제5권 제2호, 515-538, 1996.
- 박진영, 「자산계층별 사교육비 지출과 재무성과 관련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6호, 2006.
- 백선희·조성우, 「미취학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과 결정 요인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41권 6월, 2005.
- 손경애·류정순, 「IMF 체제 이후의 사교육비 지출규모 분석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16권 제4호, 211-235, 1998.
- 손승영,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제17권 제2호, 285-316, 2005.
- 송태희,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제6권 제3호(특집호), 289-316, 1997.
- _____,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7.
- 심재희·이계열, 「한국의 지역별 교육비 스톡 추계」, 『산업경제연구』, 제18권 제3호, 2005.
- 양정선·김순미,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5호, 2003.
- 양정호,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 -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형모형

-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5.
- 우인상, 「초·중·등 공교육비 지출규모의 변화추이와 결정 요인 분석」, 『교육행정연구』, 제18권 제2호, 2000.
- 유형선·윤정혜,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제4호, 1999.
- 유경준,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정책연구시리즈 2007-01」, 한국개발연구원, 2007.
- 윤정일, 「입시 및 재정정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7.
- 윤철경, 「초·중등교육 사부담 교육비의 변화추이와 변화요인에 관한 분석」,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이성림, 「도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출전략」, 『소비자학연구』, 제17권 제2호, 115-132, 2006.
- 이승신, 「가계의 재무구조가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 소득계층별 접근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제41권 11호, 2003.
- 이용복·이소희,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9권 제2호, 95-113, 2004.
- 이은우, 「사교육비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1-31, 2004.
- 이정우, 『교육과 소득분배』, 서울 비봉출판사, 1995.
- 장혜경·이미정·김경미·김영란,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 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004.
- 정영숙,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7권 제1호, 1-13, 1996a.
- 정영숙, 「사교육비 지출이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 연구』, 제20권 제4호, 61-73, 1999.
- 조병구·조운영·김정호,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7.
- 차경욱, 「저출산가정의 가계경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 제36차 추계학술대회』, 43-56, 2005.

- 천세영, 「교육비 개념 및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0권 제2호, 2001.
- 최상근 외, 「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 최영순, 「한국가계의 사교육비: 1982-1997」, 『교육재정경제연구』, 제8권 제1호, 393-413, 1999.
- 최창섭, 「과외와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근심거리」,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39집, 2000.
- 통계청,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 2007.
- _____, 「2004 사회통계조사」, 2005.
- _____, 「사회통계조사지침서」, 2004, 2005.
- _____, 「가계조사」, 각 년도.
-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2003.

- Arnold, F., Bulatao, R. A., Buripakdi, C., Chung, B. J., Fawcett, J. T., Iritani, T., Lee, S. J., and Wu, T. S., “*Value of children vol. 5*”,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1975.
- Becker, G.,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Universities-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onference Series 11 (NBER, Princeton, NJ), 209-231, 1960.
- Becker, G., “A theory of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493-517, 1965.
- Becker, G. S. & Tomes, N.,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1-47, 1986.
- Becker, G. S.,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 Becker, G. S.,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for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4.
- Becker, G. S. and H. G. Lewis,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o, 2, 279-288, 1973.

- Becker, G,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capital behavio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 Brewster, K. L. and R. R. Rindfuss,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als Review of Sociology*, No, 26, 271-296, 2000.
- Bryant, W. K,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Y, 1990.
- De Wulf, Kristof, Gaby Odekerken-Schroder, and Dawn Iacobucci, "Investment in Consumer Relationships: A Cross-Country and Cross-Industry Exploration", *Journal of Marketing*, vol. 65(October), 2002.
- DiMaggio, P,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of US.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189-201, 1982.
- Doney, Patricia M. and Joseph P. Cannon, "An Examination of the Nature of Trust in Buyer-Seller Relationship", *Journal of Marketing*, vol, 61(April), 1997.
- Easterlin, R. A, "Relative Economic Status and the American Fertility Swing", in *Family Economic Behavior* edited by H. B. Sheldon, Philadelphia: Lippincott, 1973.
- Houthakker, H, "Compensated change in quantities and quantities consumed",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 155-161, 1952.
- Lang, K. & David, K, "Human capital vs. sorting. The effect of compulsory attendance law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1(August), 609-624, 1986.
- Layard, R. & Psacharopoulos, G, "The screening hypothesis and the returns to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5), 958-998, 1974.
- Lehrer, E. and M. Nerlove, "Female Labour Force Behavior and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No, 12, 182-204, 1986.
- Liu, Pal-Wai & Wong, Yue-chim, "Educational screening by certificates : An empirical test", *Economic Inquiry*, 20(January), 72-83, 1982.
- Mehta, M,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lann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asia and the*

- east. Calcutta*, The MacMillian Company of India, Limited, 1976.
- Mincer, J. & Polachek, S, Family investment in human capital: Earning of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576-588, 1975.
- Mincer, J,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6, 281-302, 1958.
- Mincer, J, "Market prices, opportunity costs and income effects", in C. Christ et al., eds., *Measurement in economics: studies in mathematical economics in honor of Yehuda Grunfeld*(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 1963
- Morgan, Robert M. and Shelby D. Hunt, "The Commitment-Trust Theory of Relationship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vol, 58(July), 1994.
- Plank, Richard E., David A. Reid and Ellen Bolman Pullins, "Perceived Trust in Business-to-Business Sales: A New Measure", *Journal of Personal Selling and Sales Management*, vol, 19(Summer), 1999.
- Riley, J. G, "Testing the educational screening hypothe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5-2), S227-252, 1979.
- Schultz, T. W,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1(1), 1-17. 1961.
- Stiglitz, J, "The theory of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65(3), 283-300, 1975.
- Theil, H, "Qualities, prices and budget inquiri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 129-147, 1952
- Weiss, A, "Human capital vs. signaling explanations of wages", *Journal of economics Perspectives*, 9(4), 133-154, 1995.
- Willis, R,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S14-S64, 1973.
- Wolpin, K. I, "Education and screening", *American Economic Review*, 67(5), 949-958, 1977.

- Zeithaml, V. A, "Consumer Perceptions of Price, Quality, and Value: A Means-End Model and Synthesis of Evidence", *Journal of Marketing*, vol, 52(July), 1988.

부 록

[부록 1] 미시분석 결과 통계표

[부록 2] 미시 분석을 위한 전화 조사 설문지

〔부록 1〕 미시분석 결과 통계표

〈부표 1-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유형	구분		사례수(%)
지역	대도시		682(45.5)
	중소도시		722(48.1)
	농촌		96(6.4)
	계		1,500(100.0)
부모연령	어머니	25~29	259(17.3)
		30~34	577(38.5)
		35~39	664(44.3)
		계	1,500(100.0)
	아버지	24~29	73(4.9)
		30~34	381(25.5)
		35~39	638(42.7)
		40~44	352(23.5)
		45이상	51(3.4)
		계 ¹⁾	1,495(100.0)
부모학력	어머니	중학교 졸업	18(1.2)
		고등학교 졸업	556(37.1)
		대학교 재학 및 졸업	864(57.6)
		대학원 재학 및 졸업	62(4.1)
		계	1,500(100.0)
부모학력	아버지	중학교 졸업	13(0.9)
		고등학교 졸업	423(28.3)
		대학교 재학 및 졸업	915(61.2)
		대학원 재학 및 졸업	144(9.6)
		계 ¹⁾	1,495(100.0)
부모 취업 여부	어머니	취업	585(39.0)
		비취업	915(61.0)
		계	1,500(100.0)
	아버지	취업	1,473(98.5)
		비취업	22(1.5)
		계 ¹⁾	1,495(100.0)

〈부표 1-1〉 계속

(단위: 명, %)

유형	구분	사례수(%)	
부모 직업 종류	어머니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0.3)
		전문가	45(7.7)
		기술공 및 준전문가	8(1.4)
		사무종사자	312(53.3)
		서비스 종사자	47(8.0)
		판매종사자	22(3.8)
		농/임/어 축산업 종사자	4(0.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1(1.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0.7)
		단순노무 종사자	20(3.4)
		군인	2(0.3)
		자영업	108(18.5)
		계 ²⁾	585(100.0)
	아버지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6(0.4)
		전문가	92(6.2)
		기술공 및 준전문가	133(9.0)
		사무종사자	688(46.7)
		서비스 종사자	59(4.0)
		판매 종사자	35(2.4)
		농/임/어 축산업 종사자	12(0.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4.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0.8)
		단순노무 종사자	11(0.7)
		군인	17(1.2)
		자영업	337(22.9)
		계 ³⁾	1,473(100.0)
월평균 가구 소득	전체평균		353만원
	최저소득층		320(22.0)
	저소득층		204(14.0)
	중산층		404(27.8)
	고소득층		235(16.2)
	최고소득층		291(20.0)
	계 ⁴⁾		1,454(100.0)
자녀 출산 의향	있다		363(24.2)
	없다 혹은 모름		1,137(75.8)
	계		1,500(100.0)

〈부표 1-1〉 계속

(단위: 명, %)

유형	구분	사례수(%)
자녀수	0명	104(6.9)
	1명	425(28.3)
	2명	824(54.9)
	3명	134(8.9)
	4명	13(0.9)
	계	1,500(100.0)
기대 자녀수	1명	269(74.1)
	2명	79(21.8)
	3명	13(3.6)
	4명 이상	2(0.6)
	계 ⁵⁾	363(100.0)

- 주: 1) 아버지 사별(5명)은 무응답 처리함.
 2) 어머니 취업 응답자(585)에 대한 직업종류 임.
 3) 아버지 취업 응답자(1,473)에 대한 직업종류 임.
 4) '무응답(46명)'.
 5) '0명(1,137)'이라고 응답한 경우 무응답으로 처리함.

〈부표 2-1〉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평균(소득 계층별)

(단위: 원, 명)

구분		소득계층	지출평균	표본수
보육비 지출	가구당 비용	최저소득층	256,516	93
		저소득층	299,136	67
		중산층	345,670	106
		고소득층	434,322	59
		최고소득층	516,422	64
	자녀 1인당 비용	최저소득층	217,672	93
		저소득층	276,265	66
		중산층	299,861	106
		고소득층	367,344	59
		최고소득층	449,406	64
유치원비 지출	가구당 비용	최저소득층	361,994	88
		저소득층	363,489	38
		중산층	317,500	117
		고소득층	375,000	54
		최고소득층	323,899	79
	자녀 1인당 비용	최저소득층	323,632	88
		저소득층	327,498	38
		중산층	281,042	117
		고소득층	325,000	54
		최고소득층	288,137	79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가구당 비용	최저소득층	289,315	147
		저소득층	362,978	89
		중산층	424,786	211
		고소득층	508,043	115
		최고소득층	585,541	148
	자녀 1인당 비용	최저소득층	219,806	146
		저소득층	254,607	89
		중산층	320,905	210
		고소득층	378,493	115
		최고소득층	442,686	148
중학교 교육비 지출	가구당 비용	최저소득층	381,818	34
		저소득층	303,611	18
		중산층	410,000	49
		고소득층	521,935	31
		최고소득층	784,688	32

〈부표 2-1〉 계속

(단위: 원, 명)

구분		소득계층	지출평균	표본수
중학교 교육비 지출	자녀 1인당 비용	최저소득층	338,611	33
		저소득층	267,500	18
		중산층	379,236	48
		고소득층	423,548	31
		최고소득층	619,323	32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가구당 비용	최저소득층	490,909	11
		저소득층	440,000	5
		중산층	500,000	15
		고소득층	458,333	6
		최고소득층	862,500	8
	자녀 1인당 비용	최저소득층	378,030	11
		저소득층	440,000	5
		중산층	437,778	15
		고소득층	458,333	6
		최고소득층	837,500	8

〈부표 2-2〉 보육·교육비 적정비용, 지출비용과의 차이, 희망 감소율(소득계층별)

(단위: 원, 명)

구분		소득계층	평균	표본수
보육비 지출	자녀1인당 적정비용	최저소득층	105,916	93
		저소득층	127,929	67
		중산층	172,917	106
		고소득층	201,666	59
		최고소득층	239,744	64
	자녀1인당 평균비용과 적정비용 차이	최저소득층	126,804	84
		저소득층	171,500	56
		중산층	135,454	97
		고소득층	198,431	51
		최고소득층	192,957	47
	지출감소 희망 비율	최저소득층	51.6	79
		저소득층	51.4	53
		중산층	40.6	94
		고소득층	44.6	51
		최고소득층	41.4	47
유치원비 지출	자녀1인당 적정비용	최저소득층	128,313	88
		저소득층	121,528	38
		중산층	154,633	117
		고소득층	150,521	54
		최고소득층	212,838	79
	자녀1인당 평균비용과 적정비용 차이	최저소득층	140,246	80
		저소득층	184,722	36
		중산층	167,000	109
		고소득층	203,021	48
		최고소득층	190,946	74
	지출감소 희망 비율	최저소득층	49.6	78
		저소득층	53.8	36
		중산층	49.8	108
		고소득층	54.6	48
		최고소득층	45.4	73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자녀1인당 적정비용	최저소득층	120,254	147
		저소득층	163,533	89
		중산층	169,346	211
		고소득층	203,535	115
		최고소득층	230,155	148

〈부표 2-2〉 계속

(단위: 원, 명)

구분		소득계층	평균	표본수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자녀1인당 평균비용과 적정비용 차이	최저소득층	123,832	117
		저소득층	111,333	75
		중산층	150,737	190
		고소득층	190,976	99
		최고소득층	235,891	129
	지출감소 희망 비율	최저소득층	46.0	115
		저소득층	38.5	74
		중산층	43.0	189
		고소득층	47.0	99
		최고소득층	46.3	129
중학교 교육비 지출	자녀1인당 적정비용	최저소득층	174,355	34
		저소득층	145,833	18
		중산층	216,477	49
		고소득층	234,667	31
		최고소득층	307,407	32
	자녀1인당 평균비용과 적정비용 차이	최저소득층	181,333	30
		저소득층	121,667	18
		중산층	191,932	44
		고소득층	198,667	30
		최고소득층	294,815	27
	지출감소 희망 비율	최저소득층	46.1	30
		저소득층	36.3	18
		중산층	40.8	43
		고소득층	42.0	30
		최고소득층	45.8	27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자녀1인당 적정비용	최저소득층	222,222	11
		저소득층	205,000	5
		중산층	213,077	15
		고소득층	258,333	6
		최고소득층	431,250	8
	자녀1인당 평균비용과 적정비용 차이	최저소득층	228,704	9
		저소득층	235,000	5
		중산층	234,359	13
		고소득층	200,000	6
		최고소득층	406,250	8
	지출감소 희망 비율	최저소득층	48.0	9
		저소득층	48.7	5
		중산층	50.2	13
		고소득층	43.1	6
		최고소득층	46.0	8

〈부표 2-3〉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평균(전국 평균 지출 기준)

(단위: 원, 명)

구분			평균			표본수
현재 보육비 지출	가구당 비용	평균 이하	109,948			117
		평균 이상	454,408			284
	자녀 1인당 평균 비용	평균 이하	825,61			117
		평균 이상	400,309			284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균 이하	4.7			114
		평균 이상	14.8			276
	부담 정도		부담 스러움	보통	부담 스러지지않음	
		평균 이하	49(41.9)	40(34.2)	28(23.9)	117
		평균 이상	228(80.3)	46(16.2)	10(3.5)	284
	자녀 1인당 적정 비용	평균 이하	52,023			84
		평균 이상	194,034			264
	자녀 1인당 평균비용과 적정비용 차이	평균 이하	33,934			84
		평균 이상	193,950			264
현재 유치원 교육비 지출	가구당 비용	평균 이하	115,507			65
		평균 이상	409,464			321
	자녀 1인당 평균 비용	평균 이하	89,174			65
		평균 이상	370,211			321
	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중	평균 이하	4.8			64
		평균 이상	13.3			312
	부담 정도		부담 스러움	보통	부담 스러지지않음	
		평균 이하	32(49.32)	13(20.0)	20(30.8)	65
		평균 이상	278(86.6)	32(10.0)	11(3.4)	321
	자녀 1인당 적정 비용	평균 이하	58,977			44
		부담 정도	172,396			313
	자녀 1인당 평균비용과 적정비용 차이	평균 이하	37,378			44
		평균 이상	190,217			313
현재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가구당 비용	평균 이하	168,703			162
		평균 이상	506,883			576
	자녀 1인당 비용	평균 이하	110,529			162
		평균 이상	384,774			576
	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중	평균 이하	7.5			153
		평균 이상	15.0			557

〈부표 2-3〉 계속

(단위: 원, 명)

구분			평균			표본수
현재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 정도		부담 스러움	보통	부담스럽지 않음	
		평균 이하	82(50.6)	51(31.5)	29(17.9)	162
		평균 이상	478(83.0)	85(14.8)	13(2.3)	576
	자녀 1인당 적정 비용	평균 이하	80,346			101
		평균 이상	195,723			532
	자녀 1인당 비용과 적정비용 차이	평균 이하	36,372			101
		평균 이상	188,806			532
	지출감소 희망 비율	평균 이하	31.9			95
		평균 이상	46.6			532
중학교 교육비 지출	가구당 비용	평균 이하	226,333			45
		평균 이상	597,750			120
	자녀 1인당 비용	평균 이하	154,796			45
		평균 이상	515,458			120
	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중	평균 이하	9.8			44
		평균 이상	16.7			118
	부담 정도		부담 스러움	보통	부담스럽지 않음	
		평균 이하	28(62.2)	14(31.3)	3(6.7)	45
		평균 이상	106(88.3)	11(9.2)	3(2.5)	120
	자녀 1인당 적정 비용	평균 이하	112,000			35
		평균 이상	256,681			116
	자녀 1인당 비용과 적정비용 차이	평균 이하	58,285			35
		평균 이상	247,887			116
	지출감소 희망 비율	평균 이하	28.0			34
		평균 이상	46.5			116
현재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가구당 비용	평균 이하	271,333			15
		평균 이상	683,225			31
	자녀 1인당 비용	평균 이하	210,777			15
		평균 이상	635,913			31
	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중	평균 이하	9.6			15
		평균 이상	25.2			30
	부담 정도		부담 스러움	보통	부담스럽지 않음	
		평균 이하	13(86.7)	2(13.3)	0(0.0)	15
		평균 이상	29(93.5)	1(3.2)	1(3.2)	31
	자녀 1인당 적정비용	평균 이하	143,333			12
		평균 이상	312,500			30

〈부표 2-3〉 계속

(단위: 원, 명)

구분			평균	표본수
현재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자녀 1인당 비용과 적정비용 차이	평균 이하	63,333	5
		평균 이상	324,611	30
	지출감소 희망 비율	평균 이하	38.8	12
		평균 이상	51.0	30

〈부표 2-4〉 향후 보육·교육비 적정비용, 전국 평균 비용과의 차이, 희망 감소율(소득계층별)
(단위: 원, 명)

구분		소득계층	평균	표본수
보육비	예상 적정비용	최저소득층	107,292	120
		저소득층	104,177	79
		중산층	123,391	117
		고소득층	113,235	69
		최고소득층	125,733	79
	전국평균비용과의 차이	최저소득층	72,708	120
		저소득층	75,823	79
		중산층	56,609	115
		고소득층	66,765	68
		최고소득층	54,267	75
	희망 감소율	최저소득층	40.4	120
		저소득층	42.1	79
		중산층	31.4	115
		고소득층	37.1	68
		최고소득층	30.1	75
유치원비	예상 적정비용	최저소득층	102,833	120
		저소득층	102,025	79
		중산층	119,487	117
		고소득층	118,603	69
		최고소득층	121,558	79
	전국평균비용과의 차이	최저소득층	67,167	120
		저소득층	67,975	79
		중산층	50,513	113
		고소득층	51,397	68
		최고소득층	48,442	77
	희망 감소율	최저소득층	39.5	120
		저소득층	40.0	79
		중산층	29.7	113
		고소득층	30.2	68
		최고소득층	28.5	77
초등학교 교육비	예상 적정비용	최저소득층	120,945	242
		저소득층	128,067	150
		중산층	142,444	273
		고소득층	150,238	150
		최고소득층	165,000	190

〈부표 2-4〉 계속

(단위: 원, 명)

구분		소득계층	평균	표본수
초등학교 교육비	전국평균비용과의 차이	최저소득층	79,055	238
		저소득층	71,933	150
		중산층	57,556	268
		고소득층	49,762	147
		최고소득층	35,000	182
	희망 감소율	최저소득층	39.5	238
		저소득층	36.0	150
		중산층	28.8	268
		고소득층	24.9	147
		최고소득층	17.5	182
중학교 교육비	예상 적정비용	최저소득층	156,012	253
		저소득층	170,302	154
		중산층	180,586	333
		고소득층	189,059	175
		최고소득층	194,906	225
	전국평균비용과의 차이	최저소득층	103,988	249
		저소득층	89,698	149
		중산층	79,414	326
		고소득층	70,941	170
		최고소득층	65,094	213
	희망 감소율	최저소득층	40.0	249
		저소득층	34.5	149
		중산층	30.5	326
		고소득층	27.3	170
		최고소득층	25.3	213
고등학교 교육비	예상 적정비용	최저소득층	20,7134	159
		저소득층	23,2360	93
		중산층	22,8810	226
		고소득층	24,6160	129
		최고소득층	25,7229	160
	전국평균비용과의 차이	최저소득층	16,2866	157
		저소득층	13,7640	89
		중산층	14,1190	221
		고소득층	12,3840	125
		최고소득층	11,2771	157

〈부표 2-4〉 계속

(단위: 원, 명)

구분		소득계층	평균	표본수
고등학교 교육비	희망 감소율	최저소득층	44.0	157
		저소득층	37.2	89
		중산층	38.2	221
		고소득층	33.5	125
		최고소득층	30.5	157

〈부표 3-1〉 보육비 지출이 걱정 비용으로 절감해도 출산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걱정비용 감소시 출산 의향		미 출산 이유		N(%)	
	있다	178(44.35)				
현재 보육비 지출	없다	224(55.7)	경제적 이유	소득이 적어서	33(14.7)	115(51.6)
				고용 상태가 불안해서	1(0.4)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1(0.4)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29(13.0)	
				자녀 교육 비용이 높아서	51(22.9)	
			사회적 이유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9(4.0)	17(7.6)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2(0.9)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5(2.2)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이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1(0.4)	
			가치관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4(1.8)	59(26.4)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해서	2(0.9)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40(17.9)	
				아이가 많아서	13(5.8)	
			가족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 담되어 있지 않아서	2(0.9)	2(0.9)
			건강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8(3.6)	8(3.6)
			기타	나이가 많아서	16(7.2)	22(9.9)
				기타	6(2.7)	
향후 보육비 지출	없다	202(42.6)	경제적 이유	소득이 적어서	35(17.3)	101(50.0)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25(12.4)	
				자녀 교육 비용이 높아서	41(20.3)	
			사회적 이유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6(3.0)	8(4.0)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1(0.5)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이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1(0.5)	
			가치관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1(0.5)	66(32.7)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1(0.5)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48(23.8)	
				아이가 많아서	16(7.9)	
			건강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9(4.5)	9(4.5)
			기타	나이가 많아서	12(5.9)	18(8.9)
				기타	6(3.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3-2〉 유치원비 지출이 적정 비용으로 절감해도 출산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적정비용 감소시 출산 의향		미 출산 이유		N(%)	
	있다	127(32.9)				
현재 유치원비 지출	없다	259(67.1)	경제적 이유	소득이 적어서	41(15.9)	130(50.4)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32(12.4)	
				자녀 교육 비용이 높아서	57(22.1)	
			사회적 이유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8(3.1)	10(3.9)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1(0.4)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이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1(0.4)	
			가치관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2(0.8)	77(29.8)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해서	2(0.8)	
				계획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60(23.3)	
				아이가 많아서	13(5.0)	
			가족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1(0.4)	1(0.4)
			건강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13(5.0)	13(5.0)
			기타	나이가 많아서	16(6.2)	27(10.5)
				기타	11(4.3)	
향후 유치원비 지출	없다	202(42.6)	경제적 이유	소득이 적어서	33(16.3)	99 (49.0)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25(12.4)	
				자녀 교육 비용이 높아서	41(20.3)	
			사회적 이유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8(4.0)	10(5.0)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1(0.5)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이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1(0.5)	
			가치관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1(0.5)	67(33.2)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해서	1(0.5)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1(0.5)	
				계획한 만큼 자녀를 낳아서	47(23.3)	
			건강	아이가 많아서	17(8.4)	9(4.5)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9(4.5)	
			기타	나이가 많아서	11(5.4)	17(8.4)
				기타	6(3.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3-3〉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이 적정 비용으로 절감해도 출산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적정비용 감소시 출산 의향		미 출산 이유		N(%)	
	있다	190(25.8)				
현재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없다	549(74.2)	경제적 이유	소득이 적어서	100(18.3)	262(48.0)
				고용 상태가 불안해서	1(0.2)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2(0.4)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53(9.7)	
				자녀 교육 비용이 높아서	106(19.4)	
			사회적 이유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13(2.4)	24(4.4)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1(0.2)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8(1.5)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이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2(0.4)	
			가치관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6(1.1)	145(26.6)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해서	8(1.5)	
				계획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95(17.4)	
				아이가 많아서	36(6.6)	
			가족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3(0.5)	3(0.5)
			건강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2(0.4)	25(4.6)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23(4.2)	
			기타	나이가 많아서	76(13.9)	87(15.9)
				기타	11(2.0)	
향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없다	503(48.8)	경제적 이유	소득이 적어서	82(16.4)	232(46.3)
				실업 상태여서	1(0.2)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56(11.2)	
				자녀 교육 비용이 높아서	93(18.6)	
			사회적 이유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18(3.6)	29(5.8)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2(0.4)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7(1.4)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이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2(0.4)	
			가치관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7(1.4)	153(30.5)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해서	5(1.0)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1(0.2)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108(21.6)	
			가족	아이가 많아서	32(6.4)	3(0.6)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3(0.6)	
			건강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25(5.0)	25(5.0)
			기타	나이가 많아서	45(9.0)	59(11.8)
				기타	14(2.8)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3-4〉 중학교 교육비 지출이 걱정 비용으로 절감해도 출산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걱정비용 감소시 출산 의향		미 출산 이유		N(%)	
	있다	33(19.8)				
현재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없다	134(80.2)	경제적 이유	소득이 적어서	20(14.9)	55(41.0)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8(6.0)	
				자녀 교육 비용이 높아서	27(20.1)	
			사회적 이유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4(3.0)	6(4.5)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2(1.5)	
			가치관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1(0.7)	35(26.1)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해서	2(1.5)	
				계획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18(13.4)	
			건강	아이가 많아서	14(10.4)	10(7.5)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10(7.5)	
			기타	나이가 많아서	28(20.9)	28(20.9)
향후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없다	741(62.8)	경제적 이유	소득이 적어서	130(17.7)	271(36.9)
				고용 상태가 불안해서	1(0.1)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1(0.1)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71(9.7)	
				자녀 교육 비용이 높아서	122(16.6)	
			사회적 이유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24(3.3)	45(6.1)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3(0.4)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14(1.9)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이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4(0.5)	
			가치관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10(1.4)	212(28.8)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해서	9(1.2)	
				본인 또는 남편이 애를 싫어해서	1(0.1)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1(0.1)	
				계획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141(19.2)	
				아이가 많아서	50(6.8)	
			가족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3(0.4)	3(0.4)
			건강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37(5.0)	38(5.2)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1(0.1)	
			기타	나이가 많아서	90(12.2)	112(15.2)
				기타	22(3.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3-5〉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이 적정 비용으로 절감해도 출산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적정이용 감소시 출산 의향		미 출산 이유		N(%)	
	있다	11(23.9)				
현재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없다	35(76.1)	경제적 이유	소득이 적어서	8(23.5)	14(41.2)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1(2.9)	
				자녀 교육 비용이 높아서	5(14.7)	
			사회적 이유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1(2.9)	1(2.9)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해서	1(2.9)	9(26.5)
			가치관	계획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2(5.9)	
				아이가 많아서	6(17.6)	
			건강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3(8.8)	3(8.8)
			기타	나이가 많아서	7(20.6)	7(20.6)
향후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있다	232(29.1)				
	없다	566(70.9)	경제적 이유	소득이 적어서	105(18.7)	224(40.0)
				고용 상태가 불안해서	1(0.2)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1(0.2)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41(7.3)	
				자녀 교육 비용이 높아서	76(13.5)	
			사회적 이유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17(3.0)	31(5.2)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1(0.2)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9(1.6)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이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4(0.7)	
			가치관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10(1.8)	162(28.9)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해서	6(1.1)	
				본인 또는 남편이 애를 싫어해서	1(0.2)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1(0.2)	
				계획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101(18.0)	
				아이가 많아서	43(7.7)	
			가족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 담되어 있지 않아서	2(0.4)	2(0.4)
			건강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30(5.3)	31(5.5)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1(0.2)	
			기타	나이가 많아서	97(17.3)	111(19.8)
				기타	14(2.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3-6〉 대학교 교육비 지출이 걱정 비용으로 절감해도 출산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적정비용 감소시 출산 의향		미 출산 이유		N(%)	
	있다	44(23.9)				
향후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없다	140(76.1)	경제적 이유	소득이 적어서	23(17.2)	45(33.6)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4(3.0)	
				자녀 교육 비용이 높아서	18(13.4)	
			사회적 이유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4(3.0)	6(4.5)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 에 지장이 있을까봐	2(1.5)	
			가치관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1(0.7)	22(16.4)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해서	2(1.5)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19(14.2)	
			가족	아이가 많아서	18(13.4)	18(13.4)
			건강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11(8.2)	43(32.1)
			기타	나이가 많아서	32(23.9)	
전체				134		

〈부표 4-1〉 자녀가치관에 따른 가구당 보육·교육비 지출 평균

(단위: 명, 원)

구분	자녀가 크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보육비지출	351,969 (319)	334,542 (59)	430,435 (23)	353,905 (402)
유치원비지출	364,252 (317)	326,000 (53)	387,500 (16)	359,964 (386)
초등학교지출	430,781 (608)	438,764 (89)	447,073 (41)	432,649 (740)
중학교지출	492,364 (129)	589,474 (19)	423,529 (17)	496,455 (167)
고등학교지출	544,118 (34)	557,143 (7)	570,000 (5)	548,913 (46)
구분	내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는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보육비지출	347,158 (19)	251,538 (26)	361,742 (356)	353,905 (402)
유치원비지출	328,462 (13)	298,182 (22)	365,003 (351)	359,964 (386)
초등학교지출	377,274 (33)	382,763 (38)	438,231 (667)	432,649 (740)
중학교지출	410,909 (11)	532,500 (8)	500,925 (146)	496,455 (167)
고등학교지출	575,000 (6)	266,667 (3)	567,568 (37)	548,913 (46)
구분	적어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보육비지출	349,072 (278)	401,786 (28)	353,937 (95)	353,905 (402)
유치원비지출	354,267 (251)	422,639 (36)	351,616 (99)	359,964 (386)
초등학교지출	437,565 (478)	473,254 (63)	407,736 (197)	432,649 (740)
중학교지출	517,500 (108)	510,833 (12)	442,111 (45)	496,455 (167)
고등학교지출	610,000 (27)	362,500 (4)	488,667 (15)	548,913 (46)
구분	자식을 키워봐야 어른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보육비지출	361,175 (40)	292,696 (23)	357,210 (338)	353,905 (402)
유치원비지출	314,868 (38)	361,500 (20)	365,095 (328)	359,964 (386)
초등학교지출	421,591 (88)	457,742 (31)	432,964 (619)	432,649 (740)
중학교지출	440,952 (21)	566,667 (6)	501,848 (138)	496,455 (167)
고등학교지출	525,000 (6)	425,000 (2)	559,211 (38)	548,913 (46)
구분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보육비지출	372,385 (26)	319,913 (23)	354,761 (352)	353,905 (402)
유치원비지출	429,048 (21)	366,667 (24)	355,238 (341)	359,964 (386)
초등학교지출	441,538 (52)	415,750 (40)	432,980 (646)	432,649 (740)
중학교지출	335,455 (11)	606,250 (8)	502,568 (146)	496,455 (167)
고등학교지출	364,286 (7)	550,000 (4)	585,714 (35)	548,913 (46)

〈부표 4-1〉 계속

(단위: 명, 원)

구분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보육비지출	338,727(260)	431,488(43)	306,546(97)	353,905(401)
유치원비지출	364,187(251)	315,102(49)	373,198(86)	359,964 (386)
초등학교지출	439,663(457)	394,415(94)	434,727(187)	432,649 (740)
중학교지출	511,250(97)	450,000(20)	486,429(49)	496,455 (167)
고등학교지출	570,800(25)	600,000(5)	498,750(16)	548,913(46)
구분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지 못하면 이웃이나 친지를 볼 맛이 없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보육비지출	349,608(316)	447,371(35)	315,640(50)	353,905(402)
유치원비지출	350,514(313)	414,000(30)	391,047(43)	359,964 (386)
초등학교지출	409,604(556)	570,423(71)	459,955(111)	432,649 (740)
중학교지출	452,817(126)	707,692(13)	602,308(26)	496,455 (167)
고등학교지출	502,857(35)	558,333(6)	860,000(5)	548,913(46)
구분	내 자식이 다른 집 자식보다 공부를 못하면 창피하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보육비지출	346,667(225)	406,933(60)	340,517(116)	353,905(402)
유치원비지출	352,861(231)	335,656(61)	393,191(94)	359,964 (386)
초등학교지출	417,782(399)	430,938(112)	459,626(227)	432,649 (740)
중학교지출	491,931(101)	446,000(15)	521,224(49)	496,455 (167)
고등학교지출	457,142(28)	833,333(3)	663,333(15)	548,913(46)
구분	학력이 높을 수록 더 좋은 직장에 취학하거나 결혼을 잘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보육비지출	327,424(125)	355,000(37)	367,856(239)	353,905(402)
유치원비지출	347,869(122)	280,439(41)	381,202(223)	359,964 (386)
초등학교지출	407,504(230)	426,590(78)	447,198(430)	432,649 (740)
중학교지출	509,052(58)	494,444(18)	488,652(89)	496,455 (167)
고등학교지출	428,461(13)	533,333(3)	602,666(30)	548,913(46)
구분	학력이 높으면 살기 편하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보육비지출	358,735(136)	340,933(60)	354,498(205)	353,905(402)
유치원비지출	358,697(132)	291,923(65)	358,229(188)	359,964 (386)
초등학교지출	412,946(258)	404,664(119)	456,389(360)	432,649 (740)
중학교지출	494,141(64)	426,400(25)	521,447(76)	496,455 (167)
고등학교지출	545,000(16)	542,857(7)	553,478(23)	548,913(46)

〈부표 4-2〉 자녀 가치관에 따른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평균

(단위: 원, 명)

구분	자녀가 크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자녀 1인당 보육비 지출	306,010 (319)	291,195 (59)	371,739 (23)	307,600 (402)
자녀 1인당 유치원비 지출	329,925 (317)	272,604 (53)	350,000 (16)	322,887 (386)
자녀 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324,703 (608)	318,109 (89)	336,707 (41)	324,574 (740)
자녀 1인당 중학교 교육비 지출	419,315 (129)	426,096 (19)	390,196 (17)	417,096 (167)
자녀 1인당 고교 교육비 지출	492,157 (34)	557,143 (7)	448,333 (5)	497,283 (46)
구분	내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는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자녀 1인당 보육비 지출	239,544 (19)	213,077 (26)	318,136 (356)	307,600 (402)
자녀 1인당 유치원비 지출	259,231 (13)	243,636 (22)	330,212 (351)	322,887 (386)
자녀 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297,727 (33)	325,351 (38)	325,858 (667)	324,574 (740)
자녀 1인당 중학교 교육비 지출	365,455 (11)	449,167 (8)	419,229 (146)	417,096 (167)
자녀 1인당 고교 교육비 지출	458,333 (6)	155,556 (3)	531,306 (37)	497,283 (46)
구분	적어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자녀 1인당 보육비 지출	303,754 (278)	375,357 (28)	298,884 (95)	307,600 (402)
자녀 1인당 유치원비 지출	322,839 (251)	369,491 (36)	306,061 (99)	322,887 (386)
자녀 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332,676 (478)	346,971 (63)	297,753 (197)	324,574 (740)
자녀 1인당 중학교 교육비 지출	440,509 (108)	419,167 (12)	360,352 (45)	417,096 (167)
자녀 1인당 고교 교육비 지출	539,630 (27)	362,500 (4)	457,000 (15)	497,283 (46)
구분	자식을 키워봐야 어른이 될수 있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자녀 1인당 보육비 지출	311,483 (40)	230,000 (23)	312,421 (338)	307,600 (402)
자녀 1인당 유치원비 지출	289,868 (38)	294,000 (20)	328,474 (328)	322,887 (386)
자녀 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336,354 (88)	333,387 (31)	322,458 (619)	324,574 (740)
자녀 1인당 중학교 교육비 지출	378,571 (21)	416,667 (6)	422,977 (138)	417,096 (167)
자녀 1인당 고교 교육비 지출	508,333 (6)	287,500 (2)	506,579 (38)	497,283 (46)
구분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자녀 1인당 보육비 지출	305,615 (26)	240,130 (23)	312,155 (352)	307,600 (402)
자녀 1인당 유치원비 지출	368,333 (21)	341,667 (24)	318,766 (341)	322,887 (386)
자녀 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316,474 (52)	344,958 (40)	323,964 (646)	324,574 (740)
자녀 1인당 중학교 교육비 지출	284,545 (11)	491,667 (8)	422,997 (146)	417,096 (167)
자녀 1인당 고교 교육비 지출	350,000 (7)	466,667 (4)	530,238 (35)	497,283 (46)
구분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룰수 있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자녀 1인당 보육비 지출	291,753 (260)	382,419 (43)	318,433 (97)	307,969 (402)
자녀 1인당 유치원비 지출	329,353 (251)	267,041 (49)	335,833 (86)	322,887 (386)
자녀 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330,128 (457)	299,495 (94)	323,609 (187)	324,574 (740)
자녀 1인당 중학교 교육비 지출	419,991 (96)	403,750 (20)	416,871 (49)	417,096 (167)
자녀 1인당 고교 교육비 지출	525,133 (25)	600,000 (5)	421,667 (16)	497,283 (46)

〈부표 4-2〉 계속

(단위: 원, 명)

구분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지 못하면 이웃이나 친지를 볼 맛이 없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자녀 1인당 보육비 지출	301,290 (316)	410,514 (35)	275,440 (50)	307,600 (402)
자녀 1인당 유치원비 지출	317,213 (313)	366,500 (30)	333,760 (43)	322,887 (386)
자녀 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311,238 (556)	410,235 (71)	336,584 (111)	324,574 (740)
자녀 1인당 중학교 교육비 지출	381,118 (126)	526,154 (13)	536,923 (26)	417,096 (167)
자녀 1인당 고교 교육비 지출	435,000 (35)	558,333 (6)	860,000 (5)	497,283 (46)
구분	내 자식이 다른집 자식보다 공부를 못하면 창피하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자녀 1인당 보육비 지출	308,795 (225)	350,633 (60)	283,024 (116)	307,600 (402)
자녀 1인당 유치원비 지출	319,810 (231)	301,694 (61)	344,202 (94)	322,887 (386)
자녀 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319,820 (399)	323,624 (112)	333,399 (227)	324,574 (740)
자녀 1인당 중학교 교육비 지출	399,307 (101)	364,222 (15)	469,949 (49)	417,096 (167)
자녀 1인당 고교 교육비 지출	409,226 (28)	522,222 (3)	656,667 (15)	497,283 (46)
구분	학력이 높을 수록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결혼을 잘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자녀 1인당 보육비 지출	268,771 (125)	292,838 (37)	330,194 (239)	307,600 (402)
자녀 1인당 유치원비 지출	308,279 (122)	267,634 (41)	341,037 (223)	322,887 (386)
자녀 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314,711 (230)	331,526 (78)	328,589 (430)	324,574 (740)
자녀 1인당 중학교 교육비 지출	426,552 (58)	435,185 (18)	407,275 (89)	417,096 (167)
자녀 1인당 고교 교육비 지출	407,308 (13)	533,333 (3)	532,667 (30)	497,283 (46)
구분	학력이 높으면 살기 편하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자녀 1인당 보육비 지출	299,559 (136)	297,300 (60)	315,950 (205)	307,600 (402)
자녀 1인당 유치원비 지출	324,189 (132)	260,641 (65)	344,147 (188)	323,206 (386)
자녀 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310,294 (258)	325,525 (119)	334,563 (360)	324,608 (740)
자녀 1인당 중학교 교육비 지출	423,203 (64)	373,400 (25)	426,327 (76)	417,096 (167)
자녀 1인당 고교 교육비 지출	423,646 (16)	542,857 (7)	534,638 (23)	497,283 (46)

〈부표 4-3〉 자녀출산의향별 자녀가치관

(단위: 원, 명)

구분		자녀가 크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			계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자녀출산의향	있다	275 (75.8)	61 (16.8)	27 (7.4)	363
	없다	932 (82.0)	141 (12.4)	64 (5.6)	1,137
		내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는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계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자녀출산의향	있다	20 (5.5)	19 (5.2)	324 (89.3)	363
	없다	46 (4.0)	64 (5.6)	1,027 (90.3)	1,137
		적어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			계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자녀출산의향	있다	213 (58.7)	28 (7.7)	122 (33.6)	363
	없다	783 (68.9)	90 (7.9)	264 (23.2)	1,137
		자식을 키워봐야 어른이 될수 있다			계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자녀출산의향	있다	47 (13.0)	21 (5.8)	294 (81.2)	362
	없다	135 (11.9)	58 (5.1)	944 (83.0)	1,137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계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자녀출산의향	있다	26 (7.2)	19 (5.2)	317 (87.6)	362
	없다	87 (7.7)	75 (6.6)	975 (85.8)	1,137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룰수 있다			계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자녀출산의향	있다	238 (65.7)	40 (11.0)	84 (23.2)	362
	없다	738 (65.0)	141 (12.4)	257 (22.6)	1,136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지 못하면 이웃이나 친지를 볼 날이 없다			계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자녀출산의향	있다	289 (79.6)	32 (8.8)	42 (11.6)	363
	없다	877 (77.1)	110 (9.7)	150 (13.2)	1,137
		내 자식이 다른집 자식보다 공부를 못하면 창피하다			계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자녀출산의향	있다	224 (61.7)	57 (15.7)	82 (22.6)	363
	없다	647 (56.9)	170 (15.0)	320 (28.1)	1,137
		학력이 높을 수록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결혼을 잘 할 수 있다			계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자녀출산의향	있다	133 (36.6)	30 (8.3)	200 (55.1)	363
	없다	357 (31.4)	114 (10.0)	666 (58.6)	1,137
		학력이 높으면 살기 편하다			계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자녀출산의향	있다	125 (34.4)	52 (14.3)	186 (51.2)	363
	없다	391 (34.4)	184 (16.2)	561 (49.4)	1,136

〈부표 5-1〉 로짓분석 통계표: 첫 번째 모형(전체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출산의향중속	1349	.00	1.00	.1950	.39632
가구당 보육·교육비지출	1349	.00	300.00	51.0984	40.43355
자녀1인당 보육·교육비지출	1349	.00	150.000	28.9243	23.98836
최저소득층	1349	.00	1.00	.2283	.41990
저소득층	1349	.00	1.00	.1431	.35027
중산층	1349	.00	1.00	.2795	.44890
고소득층	1349	.00	1.00	.1549	.36197
양육자녀수	1349	1.00	4.00	1.8065	.63087
남아자녀있음	1349	.00	1.00	.7235	.44743
어머니 연령	1349	25	39	34.01	3.548
어머니 대졸이상	1349	.00	1.00	.6079	.48841
어머니 취업	1349	.00	1.00	.3795	.48545
대도시	1349	.00	1.00	.4433	.49696
중소도시	1349	.00	1.00	.4893	.50007
Valid N (listwise)	1349				

〈부표 5-2〉 로짓분석 통계표: 첫 번째 모형(양육자녀수 1명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출산의향중속	412	.00	1.00	.4393	.49691
자녀1인당 보육·교육비지출	412	.00	150.00	31.3114	33.45097
최저소득층	412	.00	1.00	.2136	.41034
저소득층	412	.00	1.00	.1675	.37385
중산층	412	.00	1.00	.2379	.42629
고소득층	412	.00	1.00	.1699	.37600
남아자녀있음	412	.00	1.00	.5291	.49976
어머니 연령	412	25	39	32.47	3.612
어머니 대졸이상	412	.00	1.00	.6869	.46432
어머니 취업	412	.00	1.00	.4150	.49333
대도시	412	.00	1.00	.4903	.50051
중소도시	412	.00	1.00	.4393	.49691
Valid N (listwise)	412				

〈부표 5-3〉 로짓분석 통계표: 첫 번째 모형(양육자녀수 2명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출산의향중속	798	.00	1.00	.0927	.29024
가구당 보육·교육비 지출	798	.00	300.00	56.4589	36.80974
최저소득층	798	.00	1.00	.2206	.41488
저소득층	798	.00	1.00	.1316	.33824
중산층	798	.00	1.00	.2995	.45833
고소득층	798	.00	1.00	.1604	.36721
남아자녀있음	798	.00	1.00	.8008	.39969
어머니 연령연령	798	25	39	34.48	3.308
어머니 대졸이상	798	.00	1.00	.5940	.49140
어머니 취업	798	.00	1.00	.3709	.48336
대도시	798	.00	1.00	.4273	.49500
중소도시	798	.00	1.00	.5113	.50019
Valid N (listwise)	798				

〈부표 5-4〉 로짓분석 통계표: 첫 번째 모형(보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출산의향중속	388	.00	1.00	.2526	.43505
가구당 보육비지출	388	.00	170.00	35.8031	28.87055
자녀1인당 보육비 지출	388	.00	150.00	31.1076	25.26293
최저소득층	388	.00	1.00	.2397	.42745
저소득층	388	.00	1.00	.1701	.37621
중산층	388	.00	1.00	.2732	.44618
고소득층	388	.00	1.00	.1521	.35954
양육자녀수	388	1.00	4.00	1.7809	.64375
남아자녀있음	388	.00	1.00	.7423	.43795
어머니 연령	388	25	39	32.80	3.307
어머니 대졸이상	388	.00	1.00	.6804	.46692
어머니 취업	388	.00	1.00	.4356	.49647
대도시	388	.00	1.00	.4124	.49290
중소도시	388	.00	1.00	.5206	.50022
Valid N (listwise)	388				

〈부표 5-5〉 로짓분석 통계표: 첫 번째 모형(유치원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출산의향종속	376	.00	1.00	.1383	.34567
가구당 유치원비 지출	376	.00	240.00	36.0707	24.77167
자녀1인당 유치원비 지출	376	.00	240.00	32.3645	20.52164
최저소득층	376	.00	1.00	.2340	.42396
저소득층	376	.00	1.00	.1011	.30181
중산층	376	.00	1.00	.3112	.46359
고소득층	376	.00	1.00	.1436	.35117
양육자녀수	376	1.00	4.00	2.0027	.56803
남아자녀있음	376	.00	1.00	.7394	.43957
어머니 연령	376	25	39	33.56	2.946
어머니 대졸이상	376	.00	1.00	.6569	.47537
어머니 취업	376	.00	1.00	.2979	.45793
대도시	376	.00	1.00	.4468	.49783
중소도시	376	.00	1.00	.4920	.50060
Valid N (listwise)	376				

〈부표 5-6〉 로짓분석 통계표: 첫 번째 모형(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출산의향종속	710	.00	1.00	.0817	.27409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지출	710	.00	1000.00	46.3148	59.00709
자녀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지출	708	.00	150.000	32.6534	20.47456
최저소득층	710	.00	1.00	.2070	.40547
저소득층	710	.00	1.00	.1254	.33135
중산층	710	.00	1.00	.2972	.45734
고소득층	710	.00	1.00	.1620	.36868
양육자녀수	710	1.00	4.00	2.0479	.58948
남아자녀있음	710	.00	1.00	.7915	.40649
어머니 연령	710	26	39	35.71	2.570
어머니 대졸이상	710	.00	1.00	.5366	.49901
어머니 취업	710	.00	1.00	.4197	.49386
대도시	710	.00	1.00	.4296	.49536
중소도시	710	.00	1.00	.5056	.50032
Valid N (listwise)	710				

〈부표 5-7〉 로짓분석 통계표: 두 번째 모형(전체 여성, 보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보육비적정절감출산의향	324	.00	1.00	.4815	.50043
보육비지출감소	324	.00	100.00	45.7782	27.52958
가구당 보육비 지출	324	1.00	150.00	37.1685	26.07212
최저소득층	324	.00	1.00	.2438	.43005
저소득층	324	.00	1.00	.1636	.37047
중산층	324	.00	1.00	.2901	.45452
고소득층	324	.00	1.00	.1574	.36475
양육자녀수	324	1.00	4.00	1.7377	.62135
남아자녀있음	324	.00	1.00	.7284	.44548
어머니 연령	324	25	39	32.60	3.292
어머니 대졸이상	324	.00	1.00	.6667	.47213
어머니 취업	324	.00	1.00	.4290	.49570
대도시	324	.00	1.00	.4012	.49091
중소도시	324	.00	1.00	.5278	.50000
Valid N (listwise)	324				

〈부표 5-8〉 로짓분석 통계표: 두 번째 모형(전체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유치원비적정지출출산	343	.00	1.00	.3469	.47669
유치원비지출감소	343	.00	100.00	49.9338	25.26389
가구당 유치원비 지출	343	2.00	150.00	36.8195	20.95269
최저소득층	343	.00	1.00	.2274	.41977
저소득층	343	.00	1.00	.1050	.30694
중산층	343	.00	1.00	.3149	.46514
고소득층	343	.00	1.00	.1399	.34743
양육자녀수	343	1.00	4.00	1.9825	.57200
남아자녀있음	343	.00	1.00	.7259	.44669
어머니 연령	343	25	39	33.54	2.960
어머니 대졸이상	343	.00	1.00	.6531	.47669
어머니 취업	343	.00	1.00	.2857	.45241
대도시	343	.00	1.00	.4519	.49841
중소도시	343	.00	1.00	.4869	.50056
Valid N (listwise)	343				

〈부표 5-9〉 로짓분석 통계표: 두 번째 모형(전체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초등비적정지출출산	606	.00	1.00	.2739	.44634
초등비지출감소	606	.00	100.00	44.3916	24.56935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606	2.00	300.00	44.8845	29.49027
최저소득층	606	.00	1.00	.1898	.39244
저소득층	606	.00	1.00	.1221	.32769
중산층	606	.00	1.00	.3119	.46364
고소득층	606	.00	1.00	.1634	.37000
양육자녀수	606	1.00	4.00	2.0231	.57449
남아자녀있음	606	.00	1.00	.7937	.40496
어머니 연령	606	28	39	35.69	2.556
어머니 대졸이상	606	.00	1.00	.5462	.49827
어머니 취업	606	.00	1.00	.4241	.49461
대도시	606	.00	1.00	.4274	.49511
중소도시	606	.00	1.00	.5050	.50039
Valid N (listwise)	606				

〈부표 5-10〉 로짓분석 통계표: 두 번째 모형(전체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중학적정지출출산	148	.00	1.00	.2095	.40830
중등비지출감소	148	.00	100.00	42.4559	24.09174
가구당 중학교 교육비 지출	148	7.00	200.00	48.2128	28.51238
최저소득층	148	.00	1.00	.2027	.40338
저소득층	148	.00	1.00	.1216	.32796
중산층	148	.00	1.00	.2905	.45555
고소득층	148	.00	1.00	.2027	.40338
양육자녀수	148	1.00	4.00	2.2703	.63455
남아자녀있음	148	.00	1.00	.8311	.37595
어머니 연령	148	34	39	37.80	1.393
어머니 대졸이상	148	.00	1.00	.3649	.48303
어머니 취업	148	.00	1.00	.5743	.49612
대도시	148	.00	1.00	.3919	.48983
중소도시	148	.00	1.00	.5338	.50055
Valid N (listwise)	148				

〈부표 5-11〉 로짓분석 통계표: 두 번째 모형(전체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고등비적정지출출산	41	.00	1.00	.2439	.43477
고등비지출감소	41	.00	100.00	47.6584	24.82742
가구당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41	7.00	150.00	56.8293	29.25569
최저소득층	41	.00	1.00	.2195	.41906
저소득층	41	.00	1.00	.1220	.33129
중산층	41	.00	1.00	.3171	.47112
고소득층	41	.00	1.00	.1463	.35784
양육자녀수	41	1.00	4.00	2.2927	.78243
남아자녀있음	41	.00	1.00	.8049	.40122
어머니 연령	41	34	39	38.46	1.027
어머니 대졸이상	41	.00	1.00	.2683	.44857
어머니 취업	41	.00	1.00	.6341	.48765
대도시	41	.00	1.00	.3902	.49386
중소도시	41	.00	1.00	.4878	.50606
Valid N (listwise)	41				

〈부표 5-12〉 로짓분석 통계표: 두 번째 모형(자녀출산 의향 없는 여성, 보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보육비적정절감출산의향	240	.00	1.00	.3125	.46448
보육비지출감소	240	.00	100.00	46.5057	28.12422
가구당 보육비 지출	240	3.00	150.00	34.6000	22.63321
최저소득층	240	.00	1.00	.2625	.44091
저소득층	240	.00	1.00	.1625	.36968
중산층	240	.00	1.00	.3000	.45922
고소득층	240	.00	1.00	.1542	.36186
양육자녀수	240	1.00	4.00	1.9000	.57711
남아자녀있음	240	.00	1.00	.7667	.42384
어머니 연령	240	25	39	33.18	3.088
어머니 대졸이상	240	.00	1.00	.6417	.48051
어머니 취업	240	.00	1.00	.4125	.49331
대도시	240	.00	1.00	.3958	.49005
중소도시	240	.00	1.00	.5250	.50042
Valid N (listwise)	240				

〈부표 5-13〉 로짓분석 통계표: 두 번째 모형(자녀출산 의향 없는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유치원비 적정 지출출산	294	.00	1.00	.2551	.43666
유치원비 지출감소	294	.00	100.00	50.2935	25.41635
가구당 유치원비 지출	294	2.00	150.00	36.4374	21.39272
최저소득층	294	.00	1.00	.2313	.42238
저소득층	294	.00	1.00	.1054	.30765
중산층	294	.00	1.00	.3197	.46717
고소득층	294	.00	1.00	.1565	.36391
양육자녀수	294	1.00	4.00	2.0408	.54023
남아자녀있음	294	.00	1.00	.7381	.44042
어머니 연령	294	25	39	33.82	2.906
어머니 대졸이상	294	.00	1.00	.6803	.46717
어머니 취업	294	.00	1.00	.2721	.44580
대도시	294	.00	1.00	.4626	.49945
중소도시	294	.00	1.00	.4762	.50028
Valid N (listwise)	294				

〈부표 5-14〉 로짓분석 통계표: 두 번째 모형(자녀출산 의향 없는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초등비 적정 지출출산	551	.00	1.00	.2051	.40413
초등비 지출감소	551	.00	100.00	44.4269	24.57674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551	2.00	300.00	45.6087	30.15718
최저소득층	551	.00	1.00	.1742	.37965
저소득층	551	.00	1.00	.1216	.32712
중산층	551	.00	1.00	.3194	.46668
고소득층	551	.00	1.00	.1724	.37808
양육자녀수	551	1.00	4.00	2.0436	.57359
남아자녀있음	551	.00	1.00	.8076	.39453
어머니 연령	551	28	39	35.86	2.434
어머니 대졸이상	551	.00	1.00	.5554	.49738
어머니 취업	551	.00	1.00	.4265	.49502
대도시	551	.00	1.00	.4392	.49674
중소도시	551	.00	1.00	.4955	.50043
Valid N (listwise)	551				

〈부표 5-15〉 로짓분석 통계표: 두 번째 모형(자녀출산 의향 없는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중학적정지출출산	141	.00	1.00	.1844	.38919
중등비지출감소	141	.00	100.00	42.4807	24.47836
가구당 중학교 교육비 지출	141	7.00	200.00	47.8050	28.58232
최저소득층	141	.00	1.00	.1986	.40035
저소득층	141	.00	1.00	.1277	.33490
중산층	141	.00	1.00	.2766	.44891
고소득층	141	.00	1.00	.2128	.41072
양육자녀수	141	1.00	4.00	2.2624	.63970
남아자녀있음	141	.00	1.00	.8227	.38329
어머니 연령	141	34	39	37.77	1.411
어머니 대졸이상	141	.00	1.00	.3617	.48221
어머니 취업	141	.00	1.00	.5603	.49812
대도시	141	.00	1.00	.3972	.49105
중소도시	141	.00	1.00	.5248	.50116
Valid N (listwise)	141				

〈부표 5-16〉 로짓분석 통계표: 두 번째 모형(자녀출산 의향 없는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고등비적정지출출산	38	.00	1.00	.2368	.43085
고등비지출감소	38	.00	100.00	48.7779	25.24438
가구당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38	7.00	150.00	55.7895	28.69896
최저소득층	38	.00	1.00	.2368	.43085
저소득층	38	.00	1.00	.1316	.34257
중산층	38	.00	1.00	.2895	.45961
고소득층	38	.00	1.00	.1579	.36954
양육자녀수	38	1.00	4.00	2.2895	.80229
남아자녀있음	38	.00	1.00	.7895	.41315
어머니 연령	38	34	39	38.45	1.058
어머니 대졸이상	38	.00	1.00	.2632	.44626
어머니 취업	38	.00	1.00	.6316	.48885
대도시	38	.00	1.00	.4211	.50036
중소도시	38	.00	1.00	.4474	.50390
Valid N (listwise)	38				

〈부표 5-17〉 로짓분석 통계표: 세 번째 모형(전체여성, 보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보육비평균출산의향	456	.00	1.00	.5702	.49559
보육비 예상지출감소	456	.00	100.00	36.3487	30.58902
최저소득층	456	.00	1.00	.2632	.44083
저소득층	456	.00	1.00	.1732	.37888
중산층	456	.00	1.00	.2500	.43349
고소득층	456	.00	1.00	.1491	.35660
양육자녀수	456	.00	4.00	1.3969	.92719
남아자녀있음	456	.00	1.00	.5241	.49997
어머니 연령	456	25	39	31.42	3.314
어머니 대졸이상	456	.00	1.00	.7193	.44984
어머니 취업	456	.00	1.00	.2259	.41862
대도시	456	.00	1.00	.4934	.50051
중소도시	456	.00	1.00	.4452	.49753
Valid N (listwise)	456				

〈부표 5-18〉 로짓분석 통계표: 세 번째 모형(전체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유치원비평균출산의향	456	.00	1.00	.5702	.49559
유치원비 예상지출감소	456	.00	100.00	34.0080	30.24582
최저소득층	456	.00	1.00	.2632	.44083
저소득층	456	.00	1.00	.1732	.37888
중산층	456	.00	1.00	.2456	.43092
고소득층	456	.00	1.00	.1491	.35660
양육자녀수	456	.00	4.00	1.3969	.92719
남아자녀있음	456	.00	1.00	.5263	.49986
어머니 연령	456	25	39	31.43	3.308
어머니 대졸이상	456	.00	1.00	.7193	.44984
어머니 취업	456	.00	1.00	.2281	.42005
대도시	456	.00	1.00	.4912	.50047
중소도시	456	.00	1.00	.4496	.49800
Valid N (listwise)	456				

〈부표 5-19〉 로짓분석 통계표: 세 번째 모형(전체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초등학교 교육비평균출산의향	984	.00	1.00	.5173	.49996
초등학교 교육비예상 지출감소	984	.00	100.00	29.8349	28.20894
최저소득층	984	.00	1.00	.2419	.42843
저소득층	984	.00	1.00	.1524	.35963
중산층	984	.00	1.00	.2713	.44488
고소득층	984	.00	1.00	.1494	.35665
양육자녀수	984	.00	4.00	1.6098	.82321
남아자녀있음	984	.00	1.00	.6341	.48191
어머니 연령	984	25	39	32.48	3.415
어머니 대졸이상	984	.00	1.00	.6860	.46436
어머니 취업	984	.00	1.00	.3272	.46944
대도시	984	.00	1.00	.4563	.49834
중소도시	984	.00	1.00	.4797	.49984
Valid N (listwise)	984				

〈부표 5-20〉 로짓분석 통계표: 세 번째 모형(전체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중학교 교육비 평균출산의향	1107	.00	1.00	.3785	.48523
중학교 교육비 예상지출감소	1107	.00	100.00	31.6420	27.67128
최저소득층	1107	.00	1.00	.2249	.41773
저소득층	1107	.00	1.00	.1346	.34145
중산층	1107	.00	1.00	.2945	.45602
고소득층	1107	.00	1.00	.1536	.36070
양육자녀수	1107	1.00	4.00	1.8934	.61581
남아자녀있음	1107	.00	1.00	.7525	.43176
어머니 연령	1107	25	39	34.29	3.297
어머니 대졸이상	1107	.00	1.00	.5998	.49016
어머니 취업	1107	.00	1.00	.3957	.48921
대도시	1107	.00	1.00	.4453	.49723
중소도시	1107	.00	1.00	.4878	.50008
Valid N (listwise)	1107				

〈부표 5-21〉 로짓분석 통계표: 세 번째 모형(전체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고등학교 교육비평균출산의향	749	.00	1.00	.2937	.45577
고등학교 교육비 예상지출감소	749	.00	100.00	36.8809	25.88702
최저소득층	749	.00	1.00	.2096	.40730
저소득층	749	.00	1.00	.1188	.32380
중산층	749	.00	1.00	.2951	.45637
고소득층	749	.00	1.00	.1669	.37313
양육자녀수	749	1.00	4.00	2.0441	.59358
남아자녀있음	749	.00	1.00	.7877	.40920
어머니 연령	749	26	39	35.90	2.586
어머니 대졸이상	749	.00	1.00	.5234	.49979
어머니 취업	749	.00	1.00	.4352	.49612
대도시	749	.00	1.00	.4259	.49481
중소도시	749	.00	1.00	.5060	.50030
Valid N (listwise)	749				

〈부표 5-22〉 로짓분석 통계표: 세 번째 모형(전체여성,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대학교 교육비 평균출산의향	173	.00	1.00	.2428	.43000
대학교 교육비 예상지출감소	173	.00	100.00	34.7240	22.83255
최저소득층	173	.00	1.00	.2139	.41123
저소득층	173	.00	1.00	.1098	.31358
중산층	173	.00	1.00	.2948	.45728
고소득층	173	.00	1.00	.1792	.38463
양육자녀수	173	1.00	4.00	2.2601	.68749
남아자녀있음	173	.00	1.00	.8150	.38940
어머니 연령	173	34	39	37.93	1.332
어머니 대졸이상	173	.00	1.00	.3468	.47734
어머니 취업	173	.00	1.00	.5780	.49531
대도시	173	.00	1.00	.4162	.49436
중소도시	173	.00	1.00	.5029	.50144
Valid N (listwise)	173				

〈부표 5-23〉 로짓분석 통계표: 세 번째 모형(자녀 출산 의향 없는 여성, 보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보육비평균출산의향	270	.00	1.00	.3074	.46228
보육비 예상지출감소	270	.00	100.00	35.9774	30.01826
최저소득층	270	.00	1.00	.2889	.45409
저소득층	270	.00	1.00	.1704	.37666
중산층	270	.00	1.00	.2667	.44304
고소득층	270	.00	1.00	.1333	.34057
양육자녀수	270	.00	4.00	1.8852	.69368
남아자녀있음	270	.00	1.00	.6963	.46071
어머니 연령	270	25	39	32.20	3.332
어머니 대졸이상	270	.00	1.00	.6963	.46071
어머니 취업	270	.00	1.00	.1556	.36311
대도시	270	.00	1.00	.4852	.50071
중소도시	270	.00	1.00	.4593	.49926
Valid N (listwise)	270				

〈부표 5-24〉 로짓분석 통계표: 세 번째 모형(자녀 출산 의향 없는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유치원비 평균출산의향	269	.00	1.00	.3048	.46119
유치원비 예상지출감소	269	.00	100.00	32.5782	29.88317
최저소득층	269	.00	1.00	.2900	.45459
저소득층	269	.00	1.00	.1710	.37721
중산층	269	.00	1.00	.2677	.44356
고소득층	269	.00	1.00	.1301	.33705
양육자녀수	269	.00	4.00	1.8885	.69286
남아자녀있음	269	.00	1.00	.6989	.45960
어머니 연령	269	25	39	32.22	3.328
어머니 대졸이상	269	.00	1.00	.6952	.46119
어머니 취업	269	.00	1.00	.1524	.36009
대도시	269	.00	1.00	.4833	.50065
중소도시	269	.00	1.00	.4610	.49940
Valid N (listwise)	269				

〈부표 5-25〉 로짓분석 통계표: 세 번째 모형(자녀 출산 의향 없는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초등학교 교육비 평균출산의향	671	.00	1.00	.3174	.46583
초등학교 교육비 예상지출감소	671	.00	100.00	30.6371	28.71330
최저소득층	671	.00	1.00	.2548	.43610
저소득층	671	.00	1.00	.1475	.35491
중산층	671	.00	1.00	.2891	.45369
고소득층	671	.00	1.00	.1446	.35192
양육자녀수	671	.00	4.00	1.9195	.66653
남아자녀있음	671	.00	1.00	.7288	.44493
어머니 연령	671	25	39	33.33	3.226
어머니 대졸이상	671	.00	1.00	.6677	.47140
어머니 취업	671	.00	1.00	.2996	.45840
대도시	671	.00	1.00	.4456	.49740
중소도시	671	.00	1.00	.4873	.50021
Valid N (listwise)	671				

〈부표 5-26〉 로짓분석 통계표: 세 번째 모형(자녀 출산 의향 없는 여성, 중학교 교
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중학교 교육비 평균출산의향	932	.00	1.00	.2736	.44605
중학교 교육비 예상지출감소	932	.00	100.00	31.9260	27.85229
최저소득층	932	.00	1.00	.2189	.41371
저소득층	932	.00	1.00	.1330	.33981
중산층	932	.00	1.00	.3026	.45962
고소득층	932	.00	1.00	.1609	.36768
양육자녀수	932	1.00	4.00	1.9764	.58763
남아자녀있음	932	.00	1.00	.7725	.41942
어머니 연령	932	25	39	34.72	3.100
어머니 대졸이상	932	.00	1.00	.5955	.49106
어머니 취업	932	.00	1.00	.3916	.48838
대도시	932	.00	1.00	.4506	.49783
중소도시	932	.00	1.00	.4828	.49997
Valid N (listwise)	932				

〈부표 5-27〉 로짓분석 통계표: 세 번째 모 (자녀 출산 의향 없는 여성, 고등학교 교
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고등학교 교육비 평균출산의향	690	.00	1.00	.2391	.42686
고등학교 교육비 예상지출감소	690	.00	100.00	36.6620	25.90925
최저소득층	690	.00	1.00	.1986	.39920
저소득층	690	.00	1.00	.1203	.32554
중산층	690	.00	1.00	.2971	.45731
고소득층	690	.00	1.00	.1754	.38055
양육자녀수	690	1.00	4.00	2.0623	.59304
남아자녀있음	690	.00	1.00	.7986	.40137
어머니 연령	690	26	39	36.03	2.482
어머니 대졸이상	690	.00	1.00	.5290	.49952
어머니 취업	690	.00	1.00	.4377	.49646
대도시	690	.00	1.00	.4362	.49628
중소도시	690	.00	1.00	.4971	.50035
Valid N (listwise)	690				

〈부표 5-28〉 로짓분석 통계표: 세 번째 모형(자녀 출산 의향 없는 여성, 대학교 교
육비 지출 여성)

구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대학교 교육비 평균출산의향	166	.00	1.00	.2229	.41745
대학교 교육비 예상지출감소	166	.00	100.00	34.5948	22.81208
최저소득층	166	.00	1.00	.2108	.40914
저소득층	166	.00	1.00	.1145	.31933
중산층	166	.00	1.00	.2831	.45188
고소득층	166	.00	1.00	.1867	.39089
양육자녀수	166	1.00	4.00	2.2530	.69358
남아자녀있음	166	.00	1.00	.8072	.39567
어머니 연령	166	34	39	37.91	1.348
어머니 대졸이상	166	.00	1.00	.3434	.47627
어머니 취업	166	.00	1.00	.5663	.49709
대도시	166	.00	1.00	.4217	.49532
중소도시	166	.00	1.00	.4940	.50148
Valid N (listwise)	166				

[부록 2] 미시 분석을 위한 전화 조사 설문지

